

태권도

TAEKWONDO

vol.168 | 2018 06·07

태권도 TAEKWONDO

SPECIAL REPORT 태권도와 문화 정책

vol.168 | 2018 06·07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II

SPECIAL REPORT
태권도와 문화 정책

COVER STORY
2018 월드 그랑프리
한국, 세계 태권도계가 경탄할 금자탑 쌓는다

ISSUE
남북 태권도 교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PEOPLE
'그랜드 마스터' 김재훈 <상>

LEGENDARY PLAYER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 챔피언 이기형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4·5월의 선수 곽여원





대한태권도협회 KTA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DIDAS TAEKWONDO

adidas

태권도

TAEKWONDO

vol.168 | 2018 **06·07**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II

SPECIAL REPORT

태권도와 문화 정책

COVER STORY

2018 월드 그랑프리

한국, 세계 태권도계가 경탄할 금자탑 쌓는다

ISSUE

남북 태권도 교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PEOPLE

‘그랜드 마스터’ 김재훈 <상>

LEGENDARY PLAYER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 챔피언 이기형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4·5월의 선수곽여원





미래를 준비하는 국기원,
태권도를 대표하며 세계로 나아갑니다.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II

012 KTA와 일선 사범,
함께 '도장 살리기'에 나섰다

2018년도 제4회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014 "함께 배움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
017 교육전 편중 벗어나 산업전에도
많은 관심 필요
020 PICTORIAL
한국 태권도의 나아갈 길 밝히다
022 이야기로 보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도장 지원 사업 <하·끝>
024 도장 탐방 <2> 일산 김재훈 태권도장
무도 본연의 기본기에 충실한
도제식 수업 ... 성공의 비결

EDITOR'S LETTER

009 곧 도입될 노인층 스포츠 바우처,
태권도 사범이 준비해야 할 것은?

PROLOGUE

010 대지를 일깨우는 몸놀림과 기합 소리,
한국 태권도의 웅비를 노래한다

끝을 모르는 무패 가도다.
지난해부터만 봐도
국제 무대에서 26연승이다.
무주 세계 선수권 →
월드 그랑프리(1차·2차·파이널) →
월드 그랜드슬램에 이어 올 아시아 선수권까지
출전 6개 대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김태훈, 그의 상승세는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이어지리라.



014



032



040



052

태권도
TAEKWONDO

vol.168 | 2018 | 06·07

PEOPLE

028 '그랜드 마스터' 김재훈 <상>
거듭된 반전, '태권도 큰 스승'으로
귀결되다

COVER STORY

032 2018 월드 그랑프리, 로마에서 막 올려
한국, 세계 태권도계가 경탄할
금지탑 쌓는다

NATIONAL TEAM

2018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038 한국 겨루기,
아시안 게임 희망의 불빛 밝혔다
040 한국 품새, 호치민에서 금지탑 쌓았다

2018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042 뜨거운 '태극 도복' 쟁탈전,
파란은 없었다
044 금빛으로 한여름 밤 수놓을
품새 태극 도령·낭자, 누가 뽑혔나?

ISSUE

046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 게임은
무술 종목의 경연장?
050 남북 태권도 교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052 태권도, 세계 기네스 도전 ...
국기 지정 자부심 뽐내

COMPETITION

062 제20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남녀 중·고 대회
박진감 넘친 멋진 승부,
20주년 의미 더욱 빛내
064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충남, 소년체전 47년 역사 첫 정상 올라 ...
대전, 준우승

아주 특별한
태권도장 만들기

한도감한생명
살리기 캠페인

우리 태권도장은 지도자와 관원들이
함께 지구촌 아동을 후원하여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TAEKWONDO

vol.168 | 2018 | 06·07

SPECIAL REPORT

태권도와 문화 정책

- 054 태권도 꿈을 담은 문화 정책
- 056 태권도 꿈 담은 문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
- 059 태권도 국정 과제 정책안의 문제점과 대안



INTERVIEW

- 066 태권도 경계인, 포르투갈 정선용 사범
“ITF=북한”이라는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OUR FAMILY

- 068 <3>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격랑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도약을 위한
휘파람을 불다
- 071 <4>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미래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전념

PHOTO ESSAY

- 074 태권도 수련의 최종 종착역은 인격의 완성
- 076 봄바람 꽃바람과 함께 수련하는 즐거움을
마다하라



HISTORY

- 078 한국 태권도의 발자취를 찾아서 <2>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와
세계태권도연맹(WTF) 창설
- 081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2>
1960년대 초 사용한 ‘방구대타(防具對打)’
호구

LEGENDARY PLAYER

- 082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 챔피언 이기형
태권도 불모지 페루의 태권도 개척자로 헌신



VISION & TREND

- 086 한민족 전통 무예 시리즈 <1> 혈기도
몸을 갓난아이처럼 되돌리는 도인술, 혈기도

ANECDOTE

- 090 김운용의 다섯 가지 예언(?)과 마지막 선물

PLAYER OF THE MONTH

- 092 『태권도』 선정 4·5월의 선수 광여원
땀으로 점철된 오늘의 영광,
장밋빛 미래의 밑알

TRAINING

- 094 사진으로 배우는 태권도 기술 <2>
앞차기·뛰어 앞차기·옆차기·뛰어 옆차기

PROPOSAL

- 098 태권도인이여, 서로 존중하고 단합하자
- 099 이제는 장애인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OUR WORLD

- 100 YOUNG'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FAMILY NEWS

- 105 시도 협회 통신원 마당

MISCELLANY

- 108 RECORDING ROOM
- 111 PUZZLE
- 112 CALENDAR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 부국장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 서울 편집국 부국장

자문위원 **도장** ▶ 장권(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최훈민(가천대학교 강사)

학교 ▶ 김중현(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경기·심판 ▶ 김경일(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
이종관(대한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지도자 ▶ 권오민(코치협의회 회장)
김종기(겨루기 국가대표팀 감독)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국가대표 시범단 단장)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각 분야별 가나다순

제작 실무 박성욱 전략사업부 부장 직무 대리
김영필 전략사업부 과장
강경훈 전략사업부 대리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강성현(세종),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경희대학교 ▶ 김민서, 김수진, 박진주, 박해진, 정혜나
계명대학교 ▶ 정준우(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 최성욱
용인대학교 ▶ 안정현, 이태성
전주대학교 ▶ 공찬욱

등록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TEL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18년 6월 5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제작 제이엔제이미디어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 잠에서 깨어나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어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태권도』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합니다.



곧 도입될 노인층 스포츠 바우처, 태권도 사범이 준비해야 할 것은?



재작년 뉴질랜드 여행 때였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양떼 목장 풍경이 질릴 무렵, 앞 좌석에서 졸던 가이드가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뉴질랜드 노인들 가운데 허리 꾸부정한 사람을 봤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시골 노인들이 하나같이 허리가 꼳꼳한 게 우리 네 노인들과는 자못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가이드 말로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유제품을 많이 먹어 뼈가 튼튼하다는 것과 촘촘한 노인 복지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복지제도는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체육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해 건강보험료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복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지역사회가 마련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해 운동도 하고 돈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출석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스포츠 바우처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복지 정책의 하나입니다.

한국도 2009년부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시설이용료와 운동용품 구입비 일부를 대주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스포츠 바우처 대상 계층을 노인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정책 안에 60세 이상 노년층도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장에 노인들이 등록하면 사실상 무료로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고, 도장은 수련비를 해당 지자체와 국민진흥공단에서 받은 형태가 되겠지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노인 복지제도 확대라는 측면 외에 어린이 수련생 감소로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전국 태권도장의 경영 수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노인층에게 스포츠 바우처 혜택을 준다면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노인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장은 얼마나 이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노인 스포츠 바우처 제도는 태권도장을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많은 태권도인들이 건의해 제도가 만들어졌지요. 지금의 도장, 다시 말해 어린이 수

련생에 특화된 태권도장을 찾아오는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40년간 한국의 태권도장은 어린이 수련생 위주의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수련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맞춰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설령 성인들이 도장을 찾는다 해도 가르칠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성인들의 근골격은 어린이와 달라 적용하는 수련 프로그램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는 더욱 그러합니다. 태권도장을 찾는 노인들을 위해 일선 도장 사범들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가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사범들은 노인인커녕 중장년층 대상 수련 프로그램조차 운용해 본 경험이 매우 드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고, 사범이 돼서도 성인 수련 프로그램을 접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새로운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전 일선 사범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도장에 왜 올까요. 정권을 단련하기 위해? 발차기를 잘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건강을 다지기 위해 도장을 찾을 노인들에게 사범들은 지역 노인들의 건강 지킴이가 돼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호신술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건강을 위해 태권도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태권도 수련의 가장 전형적인 발차기는 노인들에게 애초부터 무립니다. 가장 직선적이어서 맛있는 태권도의 빠른 동작은 역시 노인들에게 부상의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 수련의 범주에 명상, 호흡, 태권무, 요가, 스트레칭 이런 소프트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떨까요. 단전호흡 전문 도장에 혹 가보셨나요. 거기 수련생은 거의 노인이라는 점은 태권도 사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또한 딱딱한 태권도 품새 동작은 노인 수련생들에게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왜 아파트 앞 태권도장은 오전에 비어있을까. 전국 1만개 태권도장을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에 준비된 사범이면 이런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아파트 주민, 특히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 집 앞 체육관으로 운동하러 오세요. 제가 단전호흡, 명상법, 요가, 스트레칭 다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타 종목 지도자보다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태권도장은 분명 스포츠 바우처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일선 사범들이 각 아파트 노인들의 건강 지킴이를 자임할 때 정부의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성공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편집인

서완석



대지를 일깨우는 몸놀림과 기합 소리, 한국 태권도의 웅비를 노래한다



봐라, 저 힘찬 몸놀림을! 내지르는 주먹과 내뿜는 발길은 거센 파열음과 함께 허공을 가르다. 들어라, 저 우렁찬 기합 소리를! 내뿜는 고향은 날카로운 파공성과 함께 천지를 진동한다. 얼마나 거세고 작히나 날카로웠을까? 기세를 돋우던 아침 햇살마저 놀란 듯 숨죽이며 살포시 다가와 안긴다. 중천을 향해 표표히 발길을 재촉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발걸음을 늦춘다.

6월! 설레고 일렁이며 부풀어 오른다. 천중가절(天中佳節) 단오(18일)가 들어서일까? 양인 기수(奇數 = 홀수)가 겹쳐(음력 5월 5일)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중오절(重午節)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들뜨고 두근거리게 한다. 그리운 임, 한국 태권도가 들려줄 밀어가 기대된다. 서정적·몽환적일지, 서사적·묘사적일지... 임의 달콤한 속삭임에 사로잡힐 황홀한 꿈길로 들어서려나.

“하루 종일 / 당신 생각으로 /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 하루해가 갑니다. // 불쑥불쑥 솟아나는 /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 그것이 /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 하루 종일 / 당신 생각으로 / 6월의 나뭇잎이 / 바람에 흔들리고 / 해가 갑니다.”(6월 · 김용택 시)

6월, 임의 눈앞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각본 없이 그려질 미래는 그만큼 독특한 마력(魔力)을 풍기며 궁금증을 일으킨다. 오로지 신만이 알리라. 신비로움으로 가려진 그 세계를 엿보려 함은 한낱 범인의 지나친 욕심일지 모르겠다. 임은 밀월의 여행을 즐기자고 유혹한다. “어서 와 안아 주세요.” 낮과 밤을 벗 삼아 함께 떠나자는 임의 미소와 손짓에 화답의 웃음꽃을 피운다.

해님이 솟는다. 임을 어루만지는 동녘의 서광이다. 붉은빛은 축복의 미소를 띠고 온 누리에 배어든다. 희망의 아침이 열린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며 정겹게 온몸을 간질인다. 그동안 응집됐던 갈망을 한껏 분출시키라며 흥겹게 날개 친다. 그래, 같이 춤추자구나. 어우렁더우렁 어우러져 덩실덩실 몸을 놀리려무나. “한국 태권도 만세!” 환희의 그날, 감격의 바다에 잠기려나.

2018년도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중 '국기(國技)태권도' 지정 기념 전체 운동.

KTA와 일선 사범, 함께 ‘도장 살리기’에 나섰다

“도장을 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부도 나섰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내놓은 10대 태권도 문화 콘텐츠 정책에 도장 경영 활성화 방안이 수두룩하다. 노년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건강관리 개념을 도입한 특성화 도장 육성, 일반인이 배우기 쉬운 보급형 품새 개발, 명품 도장 인증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더욱 절실하다. 일선 도장 지원 정책 강화는 최창신 회장의 7대 공약 중 하나기 때문이다. KTA는 이미 4년 전부터 도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를 일선 태권도 지도자에게 공개해 태권도 지도와 경영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에 보조를 맞춰 태권도 관련 산업계도 박람회에 참가해 태권도 용품을 홍보하는 장도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는 5월 19일~20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어찌 첫술에 배부르랴. 몇 차례 박람회로 단번에 도장을 일으켜 세울 순 없다. 도장 경영 약화는 태권도 외적 환경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태권도 사범이 변해야 한다. 성인부를 위한 프로그램,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수련생을 위해 사범이 미리 공부해야 한다.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세계 유일의 보고, 듣고, 물을 수 있는
2018년도 제4회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일시 : 2018. 5. 19.(토) ~ 20.(일)
장소 : 태권도원
주최 : KTA 대한태권도협회 TPE 태권도진흥재단
후원 : adidas



“함께 배움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취지와 특징

2018년 5월 19일 오전 9시,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태권도장 차량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밀물처럼 몰려왔다.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한 2018년도 제4회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KTA는 4년 전부터 도장 지원 사업 일환으로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보고, 듣고, 물을 수 있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는 KTA가 2007년부터 개최한 전국 태권도장

경영·지도법 경진대회'가 토대가 됐다. 이 행사에서 입상한 내용을 주축으로 90개가 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한 교육 콘텐츠를 일선 태권도 지도자에게 공개해 태권도 지도와 경영의 질적 발전을 꾀한 게 바로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이외에 태권도 산업체가 참가해 태권도 용품을 홍보하는 장(場)도 마련했다. KTA가 보유한 교육 콘텐츠는 실기 지도법(기본·응용) 22개, 경영법(운영·관리·홍보·교육) 79개인데, 올해 박람회에는 50명으로 이뤄진 강사진이 그동안 터득한 지도법과 경영법 콘텐츠를 공개했다. 교육 콘텐츠를 소개한 안내서는

주제별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핵심 키워드, 적용 방안, 팀이 잘 구성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태권도 지도법 콘텐츠 주요 내용

태권도 지도법 주요 내용은 △기본 기술 지도법 및 활용과 품새 지도법(강익필·안재로·엄재영·설성란·송남정 강사) △지도자를 위한 겨루기 지도법(김동연·윤정민·장종오·이평원 강사) △발차기 지도법(박동영 강사) △격파 지도법(안재로·엄재영 강사) △코어 전신 통합 운동(강



지난 5월 19일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열린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모습이다.

재홍 강사) △겨루기 지도법 활용(김동연 강사) △품새 응용 호신술(김영수·김충환 강사) △태권도에 필요한 몸의 이해(김용중 강사) △판미트(Fanmats)를 활용한 다양한 태권도 지도(반은아 강사) △태권도 호흡법과 인체 구조 이해(설성란 강사) △공인 태권 체조 지도법(송남정·송선영·신미영·최정희 강사) △익스트림 태권도(신민철 강사) △실전 손기술 지도법(엄재영·안재로·정인철 강사) △실전 태권도 지도법(이동희 강사) △도구를 활용한 지도법(최재도 강사) △필라테스 응용 준비 및 정리 운동(최정희 강사) △태권도 코어 운동(한병철·한병기 강사) △근육통 감소 위한 마사지 및 트레이닝 방법(박범진 강사) 등이다.

이 중에서 '태권도 기본 기술 지도법 및 활용'은 일선 태권도장에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내용이다. 이 내용을 강연하는 강익필 강사를 비롯한 5명의 강사진은 "몸으로 하는 모든 무술이나 스포츠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정확한 동작의 체득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이 되는 정확한 몸 움직임과 수련을 통해 다양한 기술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강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몸 쓰기 방법이다. 태권도 기본 기술의 정확한 동선을 통해 힘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해하고 힘을 쓸 수 있는 몸의 자세와 서기차기 등 정확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다. 강사들은 "각 기술의 단계별 움직임을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동작을 몸, 손, 발로 그리듯 움직임을 이해하며 천천히 수련해야 한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한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몸과 각부의 동선을 두루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판미트를 활용한 태권도 지도법'도 흥미를 끌었다. 반은아 강사는 "태권도를 배우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선 즐겁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미트를 활용한 태권도 지도는 직사각형의 판미트를 상하 좌우로 나눠 음악, 서바이벌 게임, 태권 체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태권도 기술을 익힐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 "시범 발차기를 연습하기 위해 판미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판미트를 활용함으로써 공간과 수련 정도에 구애 없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태권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반 강사의 설명이다. 이날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30분부터 50분 동안 진행된 이동희 강사의 '실전 태권도 지도법'에는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 강연의 목적은 겨루기나 품새가 아닌 실제 격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데 있다. 이 강사는 "태권도는 손과 발 등 신체 부위를 활용해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실전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동작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권도 경영법 콘텐츠 주요 내용

태권도 경영법은 지도법보다 폭넓고 다채롭다. 주요 내용은 △겨루기 특성화를 통한 유품자 장

박람회 강사진과 참가자 가운데 200여 명이 태권도 국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동희 강사가 실전 태권도를 강의하고 있다.

기 수련 전략(권기덕 강사) △태권도 성인반 장기 수련을 위한 상담 및 지도법(김민호 강사) △공개심사 매뉴얼(손성동 강사) △태권도장 교육의 틀 세우기(이동찬 강사) △이제 여자아이가 답이다·여아 전문 태권도(이은지 강사) △주3회 태권도 수련 운영법(이지성 강사) △성인 태권도 활성화 도장 성공시키기(임호진 강사) △새로운 시작! 성인부를 통한 도장 활성화 방안(전병철 강사) △자존감 키우는 태권도 코칭 언어(정문자 강사) △인성 교육 교재를 활용한 도장 활성화 및 인성 격파(정상민 강사) △1인 태권도장 운영법(정준철 강사) △수련생 관리와 입관 유도 방안(최훈민 강사) △단계별 도장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만족 향상과 경영 안정성 꾀하기(임미화 강사) △리더십 시스템을 통한 '내 제자 지도자 만들기'(김영철 강사) △수련생 부모 제자 만들기(조민정 강사) △태권도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감성 나눔 마케팅(유진호 강사) △수련생 장기화 전략과 자율적 수련 경영법(심재완 강사) △매니저와 함께하는 태권도장 관리 방안(김은진 강사) △심사체계 구축과 격파 시스템 적용 방법(신창섭 강사) △SNS 시대 맞춤형 태권도장 홍보 전략 세우기(진재성 강사) △정책을 이용한 태권도 수련생 모집 방안(신광철 강사) △성공하는 태권도장 이야기(정중수 강사) △체험 수련 및 단계별 심사를 통한 수련생 관리 시스템 구축하기(홍보선 강사) △진지한 수련으로 도장의 중심 잡기(김경무 강사) △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태권도 체력 훈련(박수을 강사) △마음에 꽂히는 필(必) 인성 교육 지도법(배원균 강사) △태권도 인성 교육(최중구 강사) △시범 프로그램 구성 방법 및 시범단 훈련법(노정환 강사) 등이다. 이 가운데서 '공개 심사 매뉴얼'을 교육한 손성동 강사는 공개 심사는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손 강사는 공개 심사 주제

와 범위, 지도진과 매니저의 소임 분담, 감동의 마무리를 위한 시나리오 등을 설명하면서 "공개 심사를 통해 지도자의 교육 철학과 도장의 수련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인부 활성화 전도사로 유명한 전병철 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래를 대비한 도장 성장의 비결을 청소년부와 성인부에서 해답을 찾았다. 전 강사는 성인부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인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인성 교육 교재를 활용한 도장 활성화 및 인성 격파'를 강연한 정상민 강사는 유치부와 초등부 및 중고등부에 맞는 인성 격파를 소개하며 "태권도 격파 안에 인성이 있다."라고 설파했다. '자존감을 키우는 태권도 코칭 언어'도 관심을 끌었다. 정문자 강사는 "지도자의 적절하고 긍정적인 언어는 수련 분위기를 밝게 하고 수련생 간의 호감과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라면서 수련생의 행동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코칭 언어를 소개했다.

교육 콘텐츠 평가와 과제

올해 박람회 교육 부문은 지난해 열린 3회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점이 거의 없었다. 기존 내용에 지난해 12월 도장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신진 강사들의 지도 및 경영법 내용이 조금 보태진 정도였다. 따라서 1-3회 박람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엔 참신함과 새로움이 다소 부족했다. 물론 올해 처음 박람회에 온 젊은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강사들의

표정과 몸짓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보고 듣고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에서 온 이대규 사범은 "처음 박람회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도 강사들을 보며 '아, 이래서 성공했구나!' 하는 자극과 교훈을 덩으로 얻었으리라. 강사들도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동찬 강사는 "박람회에서 세 번째로 강의했다. 예전의 실렘보다는 내가 만들어 온 경영법을 공유한다는 보람에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임미화 강사는 "50명 강사 중에서 여성 강사는 11명이다. 함께해서 힘이 되고 행복했다. 숨어 있는 더 능력 있는 여성 강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5회를 맞을 내년에는 내용과 진행 측면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 고루함과 식상함을 최대한 덜어 내고 그 안에 새로움을 넣어야 호응을 이어 갈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도법에 비해 경영법 콘텐츠가 많고 참가자의 관심도 주로 경영법에 쏠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파격적 변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 사무처 실무진, 강사진, 언론 매체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어떨까?

박람회 기획한 그 사람의 바람은?

2007년부터 도장 지원 실무를 도맡고 있는 이종천 KTA 도장사업부 부장 직무대리는 '기획통'으로 통한다.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일선 태권도 지도자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 주며 물꼬를 트는 데 일가견이 있다. 도장 관련 행사의 산파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부장 직무대리는 올해 박람회를 평가하면서 바람을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참가자 연령이 가장 낮았다. 그분들에게 도장 경영과 지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드리려고 KTA 50명의 강사진이 열심히 준비했다. 젊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미래 태권도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콘텐츠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국외적으로 박람회를 확장해 태권도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빨리 추진하고 싶다." **KTA**



교육전 편중 벗어나 산업전에도 많은 관심 필요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는 대한태권도협회(KTA)가 만들어 낸 '대박' 히트 상품으로 꼽힌다.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은 교육·산업 박람회가 지난 5월 19일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도장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국내 최고 태권도 지도자들이 자신만의 도장 경영 및 지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한다는 점에서, 많은 태권도 관장과 사범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열기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 보니 자연스럽게 태권도 관련 업체들의 관심과 참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KTA는 도장사업부 주관으로 산업전 참가 업체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며 교육전뿐만 아니라 산업전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교육·산업 이원화 대신 상호 의존·협력해야

올해에는 무도, 태권웨일리, 애니빅, SM스포츠, 엠제이스포츠, 제미타, 대한민국태권도작품업체, 중등학생태권도진로캠프, 태권도플레닛, 더벨런스코리아, 헬시아이키즈짐, 스플레시아 아이디어, 태권기획, 호키타권도, 키즈편, 아이행

복주식회사키플러스, 여연, KTI, 웰티즈, 아트숨비, 대한태권트램폴린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한화, 행동유발, 짐앤편 등 총 26개 부문 사업체가 참가해 한국 태권도 산업의 현재를 가능하게 했다. 이들 업체의 면면을 보면 기존의 터줏대감처럼 참가해 온 업체들이 이번에도 주류를 이루었지만, 태권도 소재 명품 기념품업체(여연), 태권도 캐릭터 교육업체(태권기획) 등 태권도 산

업의 영역 확장을 제시하는 업체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태권도 산업 박람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가한 업체들의 부스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태권도원 도약센터 2층과 3층 복도에 준비됐다. 교육 박람회를 주목적으로 참가한 태권도 지도자들이긴 했어도 자연스럽게 관련 업체들의 홍보에 눈을 모으지 않을 수 없었다.



연맹이나 협회가 공인 비용만 받고 그 권한을 지켜 주는 데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적 면에서 볼 때, 교육 박람회에는 지도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산업 박람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었다. 교육 박람회가 독자적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한 데 비해 산업 박람회가 독자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천 KTA 도장사업부 부장 직무 대리는 “교육·산업 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산업전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말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우선 공간이다. 현재 산업전에 참가한 업체의 자리는 행사장인 2층과 3층의 복도에 마련되어 있다. 참가자가 이동하는 복도에 있다는 점은 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복도가 기본적으로는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고 마

련된 부스의 크기 역시 비좁다는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참가자가 더 많이 오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2층이나, 3층이나, 화장실 앞이나, 계단 앞이나 등의 위치 문제도 참가 업체엔 적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이미 KTA에도 전달됐다. 이 부장 직무 대리는 “그러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다. 다만 박람회가 교육 박람회와 교육·산업 박람회로 외연이 확대된 게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에서, 산업전 참가자의 목소리가 다음 박람회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별도의 산업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독자적 태권도 산업전의 모델로 꼽히는 것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마살 아츠 슈퍼쇼다. 마살 아츠 슈퍼쇼는 마살 아츠(무술)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의 관련 산업, 상품,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홍보하고 경쟁하며 상호

자극을 주고받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행사 일정 자체도 사흘간에 걸쳐 뽐뿌하게 짜인 스케줄로 진행돼 흡사 무술 용품업체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빅 이벤트다. 행사의 주최도 태권도나 무술 관련 협회가 아니라 센추리라는 무술 용품 회사다. 수익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참가 업체는 약 2,000달러(약 220만 원)의 참가비를 주최 측에 지불해야 한다. 이 행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도 40만 원에 달하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장 직무 대리는 라스베이거스 마살 아츠 슈퍼쇼를 참관하고 온 소감에서 “소비자(관장·사범)에게 이런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경험은 매우 유익하다. 따라서 무술(태권도) 시장 환경에서 교육과 산업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슈퍼쇼는 태권도라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전 무술 관련 종목을 모두 아우른다. 그런 면에서 태권도 하나만을 다루는 산업전이 이 슈퍼쇼와 그대로 비교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참고할 만한 지향점으로서 마살 아츠 슈퍼쇼는 KTA 관계자뿐 아니라 이번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에게도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산업전 시작부터 참가해 오고 있는 상이기획의 문상필 대표는 “마살 아츠 슈퍼쇼에 참가하는 무술 지도자의 목적은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한국도 이런 트렌드를 모티브로 삼아 KTA 주최로 교육 박람회를 교육·산업 박람회로 확대시킨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 박람회 운영이 교육 콘텐츠 수강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은 산업전이 확장성을 갖추는 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전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 태권도 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산업 박람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부장 직무 대리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부장 직무 대리는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표준을 만들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문화를 이끌어 나갈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협회 차원이 아닌 업계 관계자와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역시 고심하고 있다. 교육전과 산업전을 분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과 산업을 별개로 이원화

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의존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태권도 산업의 발전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태권도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TA·지도자·업체 협력, 박람회 외연 확대 등 도약 기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출현은 이번 박람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심현섭 SM스포츠 대표는 “태권도 산업은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태권도 산업 발전이 태권도 발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 행사에 비해 새로운 시도가 보였다. 점에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다. 교육 박람회와 함께 산업 박람회가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대표는 “현재 참가 업체에 제공되는 지원은 책상 2개, 의자 2개 정도가 전부다. 나머지는 해당 업체에서 모두 준비해야 한다. 산업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세부적 지원에 더해 운영 형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는 “산업전에 참가하는 업체 처지에서는 약 500명의 교육전 참가자만을 기대하고 행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 참가자뿐 아니라 산업전이 독립된 공간과 독립된 운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산업전 자체를 보고도 사람이 올 수 있는 박람회를 기대한다. 비록 아직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지 모르나, 마살 아츠 슈퍼쇼 성공이 우리에게 꼭 불가능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현 도약센터 내의 나래홀 또는 더 큰 경우 T1 경기장에서 산업전을 운영하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고 봤다. 아직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KTA와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태권도 산업 전체로 영역을 확대한다면, 현재 산업전에 참가하는 업체 외에도 태권도 관련 산업 분야는 더 많다. 그리고 기술적 면에서도 최첨단을 걸어야 하는 영역도 있다. 대표적 분야가 전자 호구 업계일 듯하다. 전자 호구가 태권도계에 도입되면서, 태권도는 도복만 있으면 되는 운동에서 최고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는 첨단 스포츠로 진화했다.

경기장 운영 프로그램 역시 태권도 기술 발전 척도를 보여 주는 분야로 꼽힌다. 손으로 대진표를 그려 가면서 대회를 진행했던 이야기가 지금은 석기 시대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다.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산업 박람회와 같은 눈에 띄는 행사 외에 업체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 분야가 공인과 관련된 규정이다. 태권도 업체의 발전에서, 특히 경기장에 필요한

용품 업체 경우, 세계태권도연맹(WT)이나 KTA와 같은 주요 단체의 인정(공인)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분야에서는, 연맹이나 협회가 공인 비용만 받고 그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켜 주는 데는 무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가 엄정한 기준으로 공인해 주고, 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확실하게 담보한 후 그에 대한 비용(공인비)을 지불하고, 연맹과 협회는 그 공인비가 결코 아깝지 않도록 공인 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태권도 관련 업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목소리였다.

이번 박람회 산업전에 참가한 업체들이 전체적인 태권도 사업체 양에 비해 비교적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문제도 이러한 전반적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박람회의 외연이 확대된다면, 교육 분야에서도 현재의 일선 도장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 박람회에서 겨루기의 영역, 시범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말 그대로 태권도 교육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종천 부장 직무 대리가 지적했던 교육과 사업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KTA의 최고 히트 상품인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는 이렇게 협회, 업체, 지도자의 협력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KTA**

참가 업체에 제공되는 지원이 책상 2개, 의자 2개뿐이라는 점은 개선될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8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한국 태권도의 나아갈 길 밝히다

세계 유일의 보고 듣고 볼 수 있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지난 5월 19~20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8년도 제4회 KTA(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는 한국 태권도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나를 채워 줄 박람회'라는 키워드로 다가온 이번 교육·산업의 장(KTA·태권도진흥재단 공동 주최)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이틀에 걸친 과정 내내 뜨거운 기운을 토해냈다. 강사 50명과 참가자 442명은 100개 강좌를 통해 한마음 한뜻을 이뤄 가르치고 배움에 촛음을 아꼈다. '태바시(태권도를 바꾸는 시간)'를 기치로 내건 박람회 현장을 시간별로 쫓아가 들여다봤다.

“어떤 교육이 좋을까?” 참가자들이 자유 투어 시간에 어떤 강좌를 택할지 사전에 각 강좌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겠습니다.” 개회식에서,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어 참가자들의 열정에 부응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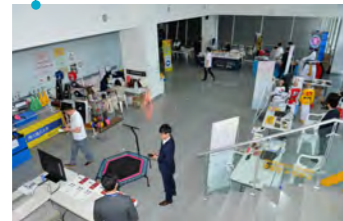
“한·중 태권도 파이팅!” 개회식이 끝난 뒤, 최창신 회장과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한중 태권도 우호와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꿀맛이네!” 함께 어우러져 담소를 나누며 먹는 식사의 즐거움을 그 무엇에 비하랴.

제1일차
09:30~22:30

제2일차
07:30~12:00



“나 어때요?” 박람회 산업 부문에 출품된 각종 태권도 관련 상품이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내세운 채 진열대에서 맴시를 뽐내는 듯하다.

“기저라고 펜만 들고 있을 수야...” 박성진 프리랜서 기자(왼쪽)는 취재 도중 직접 교육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어서 오세요” 박람회 교육 부문 강사진이 양쪽으로 늘어선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정열과 진지함의 어우러짐.” 과정별 필수 강좌와 자유 투어 강좌는 강사진의 정열과 참가자들의 진지함이 하나로 조화를 이뤘다. 가족 같은 분위기도 이채로웠다.



“사범이야, 개그맨이야?” 태권 콘서트 막이 오르기 전, 정상민 강사(사범·가운데)는 개그맨 뽐치는 진행 솜씨로 흥을 돋웠다. 제주도에 온 부부 참가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고 있다.



“어우렁더우렁 어우러지자꾸나.” 참가자들이 서로 어깨를 끼고 흥겹게 울동하고 있다. ‘태바시(태권도를 바꾸는 시간)’의 진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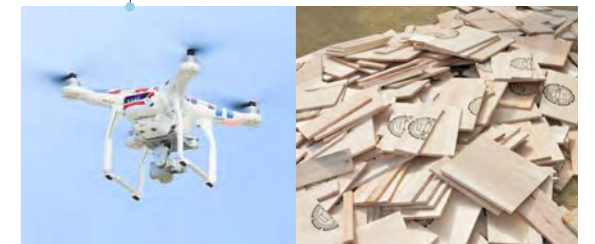
“한국 태권도 만세!” 강사진과 참가자들은 한국 태권도의 밝은 앞날을 위해 한 톨의 밑일이 되겠음을 다짐했다.



“우리는 ‘미녀 군단’이에요.” 전체 운동이 끝난 뒤, 여자 강사진이 힘이 배어나는 멋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태권도다.” ‘국기(國技) 태권도’ 지정 기념 전체 운동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200여 명이 한 몸이 돼 태권도의 웅비를 염원하는 동작을 펼쳤다.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돋보이는 법이야.” 공중 촬영한 드론, 격파된 송판 등은 전체 운동이 얼마나 웅장하게 펼쳐졌는지 보여주는 도구들이었다.

이야기로 보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도장 지원 사업

<하·끝>

첫 번째 글에서 도장 지원 사업 방향과 대표적 사업 몇 가지를 소개했다. 지면을 통해 도장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는 건 매우 제한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글에서는 KTA의 도장 지원 사업 방향의 근거와 가치에 대해 총론적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마도 이 글을 지금 읽고 있거나 향후 읽게 되는 분들의 대다수는 도장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분들일 듯하다. 이 측면에서, 대한태권도협회(KTA)를 비롯해 관련된 태권도인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제안하며 글을 써 보려 한다.



KTA 지도자 전문 교육과정에 참석한 태권도 전공생들(왼쪽)과 이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는 최창신 KTA 회장.

첫 번째 이야기 도장에는 태권도와 땀이 있어야 한다!

태권도 도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범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도장을 개인의 사업장으로만 볼 것인가? 사범은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무술류 중에, 사업 측면에서 태권도장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으로 대단히 성공한 훌륭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동서양 무술과 관련된 사업 모형의 시작은 타 무술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태권도장은 가장 앞선 성공 모형으로 타 무술과 체육 관련 종목에서 부러워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태권도장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과연 지금까지 성공 요인들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

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에 성장과 성공을 거둔 것처럼 어쩌면 너무도 빠른 시간에 우리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수준의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태권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이다. 단순히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지거나 유지되거나 하는 이분법적 논쟁거리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뒤 돌아보고 그 전개 방향을 봤을 때, 우리는 깊은 반성과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기는 반성과 미래에 대한 준비 부재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그저 관성에 따라 달리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다. 무감각이 우리의 위기의식조차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만리장성 위기

는 밖에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연다는 이야기처럼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위기는 우리 내부에서 오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위의 질문에 답해 보자. 물론 필자의 주관적 생각임을 전제로 한다. 도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 기능이 있겠으나, 우선 기술의 전수와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의 보급과 전수, 즉 그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사범일 듯 싶다. 무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련 목적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향후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태권도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의 주요 도구는 태권도이고, 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도장과 지도자라

고 말할 수 있다. 즉 훌륭한 도장과 사범이란 태권도를 잘 가르치고 기술을 넘어 한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것이 도장과 사범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며 목표다. 이런 측면에서, KTA의 도장 지원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태권도장엔 태권도와 땀이 있어야 하고 태권도장은 70세까지 도복 입는 당당한 사범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와 여러 교육 과정을 두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도장 지원 사업 중 지도자 상설 수련장이 운영됐을 때 이야기다. 상설 수련장은 ‘땀 흘리는 지도자,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오후 지도자들이 운동하는 교육이었다. 참석자 중 강남에서 성공한 도장 지도자가 있었다. 유명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이 지도자는 매주 실시되는 수련에 빠짐없이 참가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후 -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 예전에는 지도보다는 차량 운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운전보다는 지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고 했다. 즉 가르칠 게 있으니 지도가 재미있고 수련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지도자의 깨우침, 곧 수련이 선행되어야만 도장에는 태권도와 땀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도장에서 지도자의 우선 업무는 태권도 지도이고 자기 수련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이 우선이다!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 같지만, 도장 지원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KTA의 가치를 구현하고 전달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인맥·학연·지연 등을 배제하고 투명하며 원칙 있게 인재를 양성·발굴할지가 고민이었다. 그 해답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데서 찾았는데 ‘경진대회’ 제도를 이용했다. ‘과연 누가 자신의 평생 노후를 경쟁자 앞에서 이야기할까’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회 대회부터 지금까지 전국 태권도장 경진대회는 최고의 지원 사업이 되었고, 경진대회를 통해 도장의 최신 트렌드와 교육 방향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KTA는 경진대회를 통해 90% 이상의 강사를 선발하고 양성했다. 인재 양성에서 중요한 점은 가치와 철학의



지난해 실시한 KTA 태권도 사범 상설 교육 현장.

공유이다. 한국 최고 도장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이들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철학을 공유하며 개인보다는 동료를 섬기는 일에 겸손히 임했다. KTA 강사진은 수강생보다 일찍 나와 있었고 단 한 명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또 교육 시 참가자를 박수로 맞이하고 마치면 악수로 그들을 격려했다. 강사는 참가자를 교육생이라 보지 않았고 그들을 태권도 동료로 존중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있었고 참가자보다 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사범 교육 참가자를 태권도의 주인으로, 또 관장을 동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뉴 태권도!’

추측컨대 태권도 1세대가 태권도를 구상하면서 아마도 태권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본다. 해방 이후 태권도와 도장의 변화와 성장을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 도장 또는 해외 도장을 봤을 때 초창기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 곧 기술·정신·철학·교육 등이 나름 전달되고 유지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그렇듯 우리는 지금 심각한 수준의 정체성 고갈 현상에 놓여 있다. 그 대표적 현상이 도장의 수련 형태다. 도장에서 태권도가 갖는 비중을 보면 쉽게 엿볼 수 있다. 경기장은 이미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꽃피웠다. 경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는 결국 룰에 의해 변화되니 룰을 통해 태권도 가치를 추구하면 된다. 문제는 도장이다. 도장은 경기장과 같이 도장을 한 방향으로 이끌 만한 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이 위기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수출한

태권도가 미국 도장에서 자리할 수 있었던 건 1세대들이 기술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이웃 중국 도장을 보자. 아니 한국 도장을 보자. 우리 도장에는 어떤 가치가 남아 있는가? 우리 지도자들이 도장 수련을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대체하고 주말에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고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 현상과 물음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대답이 ‘뉴 태권도’다. 그러면 뉴 태권도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발굴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여 보급·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기술 체계, 우리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발굴하고 체계화해서 다시 한국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답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KTA 실전 손기술’, ‘KTA 태권도 코어’, ‘KTA 호신술’ 등 아홉 가지 교재로 출판되었다. 즉, 이미 우리의 기술 체계와 수련 속에 원래 있던 여러 기술과 가치 등을 새롭게 구성·보급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KTA 도장 지원 사업이 5년 정도 지났을 때쯤 지도자들의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 지금은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는 것 같다. 이 공감은 우리 구성원 간 공감이다. 문제는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와 인류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행히 태권도가 국기(國技)가 되었다. 한국이 만들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유일한 한국 문화가 태권도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도장 지원 사업이란 태권도 종주국 협회로서 태권도를 통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에 공헌할 태권도를 만들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구호는 KTA의 모든 지도자 교육을 마칠 때 외치는 마음의 소리다. “내가 변화하면 도장이 변하고, 도장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KTA**



도장 탐방 <2> 일산 김재훈 태권도장

무도 본연의 기본기에 충실한

도제식 수업 ... 성공의 비결

성인 태권도 활성화는 요즘 한국 태권도계의 중요한 화두다. 햇살이 유난히도 따가웠던 지난 5월 중순 어느 주말, 경기도 일산의 김재훈 태권도장(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을 찾았다. 성인부가 가장 왕성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일선 사범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도장이자. 사실 필자는 이번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2013년 가을에도 이번과 비슷한 취재 목적으로 이 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시간은 무심코 흘러 계산해 보니 무려 4년 7개월 만에 다시 찾은 셈이었다. 체육관은 일산의 중심 대로변 대형 상가 건물 5층 그곳에 여전히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2004년 개설한 뒤 늘 같은 자리다. 실내 인테리어도 거의 변함이 없는 듯했다. 체육관 바닥은 독도 근해 깊은 바닷물이 연상될 만큼 짙은 파란색

그대로였다. 도장 리셉션 양옆에는 고(故) 최홍희 전 ITF(국제태권도연맹) 총재의 글씨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왼쪽 '일당천(一當千)'이라고 쓴 글은 1974년 김재훈 총관장이 미국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도장을 개설할 당시 스승 최 전 총재가 선물한 글씨다. 김재훈 도장의 총본부는 미국 동부 보스턴에 있고, 지금은 전 세계 7개국에 40개 도장이 '김재훈'이란 이름을 걸고 운영되고 있다. 일산 도장은 한국의 본관인 셈이다. 체육관은 토요일임에도 성인 수련생들로 붐볐다. 초등학교 수련생 위주의 타 도장과 달리 토요일에도 기본기 수련과 품새 수련 등 2시간의 수업이 열린다고 했다. 주중에 바쁜 성인 수련생을 위한 김재훈 도장만의 주말 수업 시간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화창한 5월, 신록으로 우

거진 산하의 유혹을 마다하고 이날도 100여 명의 성인이 태권도 수련으로 땀을 뻘뻘 흘렸다.

김재훈 도장의 성공 비결 1 '정통 무도 지도'

오성희 일산 도장 사범은 김재훈 총관장의 제자다. 도장 개장 때부터 경력을 책임졌다. 그에게 다짜고짜 성인부가 잘되는 비결부터 물었다. 그는 뭔가를 생각하듯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고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라며 뜻밖의 대답을 들려줬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성인 태권도장이라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도장의 성공 비결이 없다니? 다그치는 필자의 성화에 그는 "정통 태권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되레 필자에게 반문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김재훈 도장은 1950~

1960년대 초창기 태권도 원형대로 수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성인들만 수련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박진감 넘치고 파워풀한 동작이 수련 프로그램에 많이 녹아 있지요." 미국의 명문 MIT 경영학부에 재학하던 김 총관장은 1970년대 초 캐나다로 이민한 최홍희 전 ITF 총재를 찾아가 제자가 됐다. 최 전 총재도 명문대생인 김 총관장을 가까이 제자로 받아들여 총애를 아끼지 않았다. 최 전 총재는 한국 국내 태권도 보급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당시 군에 보급한 태권도는 전투적이고 그래서 강력했다. 최 전 총재가 추구하는 태권도 수련 목표는 '일격필살(一擊必殺)'이었다. 최 전 총재는 1979년 통합된 10개관의 하나인 오도관을 창설했고, 그의 아호 '창헌'으로 이름한 품새는 여전히 김재훈 도장 수련생의 필수 수련 과목이

됐다. 김재훈 도장은 굳이 말하자면 1960~1970년대 오도관의 수련 프로그램을 병행한다고 하면 틀림없다.

김재훈 도장의 성공 비결 2 '도제식 지도 방법'

5월 19일 취재차 찾은 김재훈 일산 도장. 낮 12시 10분이 되자 50여 명의 수련생이 집합했다.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이었다. 발차기와 막기 기술 연마는 여느 도장과 다름없었다. 다른 점은 복싱체육관에서 보듯 다양한 손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글러브만 없다 뿐이지 복싱 타격 기술이 거의 망라된 것처럼 보였다. 정말로 눈여겨볼 점은 지도 방법이었다. 비슷한 급수의 수련생들끼리 4~5개 조로 나뉘는 듯하더니 그중의 상급자가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붉은 띠가

노란 띠를 가르치는 장면도 보였다. 사범의 일사불란한 구령과 지시로 이뤄지는 국내 여느 도장과 달랐다. 놀란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수련법을 두고 토론한다는 점이었다. 종합격투기에 서나 볼 수 있는 '뒤돌아 등주먹치기(Spinning back fist)'를 연습하는 장면에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련생 간 치열한 논쟁마저 일었다. "요즘은 성인 대부분이 학력이 높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 기술에 왜 그런 동작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수련생이 이해한 뒤에야 동작이 이뤄지죠. 다시 말해 운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시켜 준 뒤 동작하도록 해야지 그냥 하면 수련생이 따라 주질 않습니다." 오 사범의 지적처럼 체육관은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설명해 주는 상급자, 이해가 안 된다는 하급자. 곁에서 다시 설명해 주



개인 훈련장인 '스터디 룸'에서 지도를 받는 서윤경 씨(오른쪽).



김재훈 도장은 비슷한 그룹끼리 도제식 수업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는 사범. 체육관의 시끄러움은 다음 시간인 품새 수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본기 수련 시간처럼 품새도 비슷한 급수의 그룹끼리 모여 서로의 장단점을 봐 주며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에도 체육관이 시끄러울 정도로 수련생 간 많은 토론이 뒤따랐다. 이해가 잘되지 않을 때 교수인 사범이 개입하는 수련 방식이었다. 오 사범은 이를 도제식(徒弟式) 수업이라고 했다. 도제식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수련생 곁에 있으면서 수련생이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최고 전문가를 키워 내는 학습법이다. 수련 효과 면에서 훌륭한 뿐 아니라 수련생 간의 신뢰와 친화에도 어느 지도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김재훈 도장의 성공 비결 3 ‘다양한 커리큘럼’

오 사범은 “특별한 게 없어요.”라고 밝혔지만, 김재훈 도장은 여느 국내 도장과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커리큘럼이 있었다. 첫째는 이른바 ‘창현류’ 품새를 함께 가르친다는 점이다. 이 품새는 앞서 언급했듯이 최 전 총재가 만든 품새다. 최 전 총재는 “절대 바꾸지 말고 가르치라.”라고 유연으로 남길 만큼 이 품새에 애착을 기울였다. 입문자는 가장 기초인 천지부터 단군 → 도산 → 원효 → 울곡 → 중군 → 퇴계 → 화랑 순으로 배운 뒤 초단을 따기 위해 총무를 수련해야 한다. 9급부터 1단까지 품새 체계인 셈이다. 품새 이름부터가 우리 역사의 위인을 등장시켜 한국 뉘새가 흥신 풍이다. 초록띠가 수련하는 울

곡부터는 겨루기 수련도 가능하다. 이어 2단으로 승단하기 위해서는 광개, 계백, 포은으로 이름 지어진 세 가지 품새를 수련해야 한다. 이어 3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장, 고당, 의암 품새를 수련해야 한다. 한 단을 승격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고 국가원 품새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국기원의 태극 품새도 함께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원 품단 심사도 받는다. 김 총관장은 태극 품새야말로 어린이 수련생을 위한 최고 품새라고 강조한다. 태극 품새는 1970년대 교육부가 체육 교과 과목으로 선정해 어린이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품새다. 따라서 성인이 배우기엔 다소 단조롭다는 지적이 많다.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품새 수련은 성인부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동작이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창현류 품새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현류 품새가 만들어진 1960년대에는 거의 모든 태권도생은 성인이었다. 창현류가 성인을 위한 품새로는 제격인 셈이다. 김재훈 도장 수련생들은 국가원 품새를 배워 국가원 심사에도 응시하는 한편 창현류 품새도 익혀 자체 승단 심사도 본다. 6년째 수련 중인 한철수 씨(49·일산 동구 중산동)는 곧 3단 심사를 볼 수 있다며 기뻐했다. 4년 전 취재 당시 필자와 만난 적 있던 한 씨는 “품새는 여전히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라며 연신 땀을 흘려 냈다. SK건설 해외사업부장인 한 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는 태권도 수련만 한 것도 없죠.”라며 장차 해외에 도장을 낼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한 씨는 품새 수련이야말로 성인 태권도 수련의 백미라고 믿고 있다.

“승단을 하기 위해 새로운 품새를 연마해야 하는데 성취감이 있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완벽한 동작을 하지 못해 늘 제 자신이 불만스럽습니다. 그 경지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해도 총관장께서 꼭 짚어 부족한 면을 지적할 때면 ‘그동안 무슨 수련을 했는지’ 스스로 한심해 할 때도 있죠.” 한 씨는 주말에도 수련을 그치지 않는 열성으로 최근 3단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다. 이 도장은 수련생의 열정과 성취도를 지켜본 김 총관장의 지명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승단할 수 있다. 김재훈 도장의 두 번째 특이한 커리큘럼은 활발한 손기술 연마다. 확실히 국내 다른 도장보다 손기술 수련 간이 많았다. 마치 복싱 체육관을 방불케 할 만큼 손기술을 다양하게 연마했다. 수련생들은 복싱 체육관에서나 있을지언 타격대에도 연신 펀치를 퍼부었다. 심지어 등주먹 치기도 수련했다. 오 사범은 펀치 수련이 많은 이유로 과거 ‘도장 깨기’에서 기원을 찾았다. 김 총관장이 1974년 보스턴에서 첫 도장을 개설할 당시 다양한 유파의 무도인들과 실전을 벌이면서 타 무술의 강점을 대거 태권도 수련에 흡수했다는 것. 실제 종합격투기를 보면 주먹을 쓰는 빈도가 발차기보다 많고 훨씬 정확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김재훈 도장의 성공 비결 4 ‘우월한 수련 시설’

일산 김재훈 태권도장은 좀 특이한 곳에 있다. 일산의 중심 도로인 중앙로 대형 상가 건물 5층에 자리했다.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도 없다. 대신 건물 지하에는 널찍한 주차장이 있다. 처음

부터 성인반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도장을 방문하면 우선 탁 트인 공간에 감탄한다. 전체 면적 825㎡ 규모로 일반적인 어린이 대상 도장이 100~16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넓다. 수련실 외에 보조 수련실도 있다. 체력 훈련을 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붙인 이름도 ‘스터디 룸’이다. 탈의실과 샤워장에도 밝은 조명을 감안하면 마치 고급 헬스 클럽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인부 수련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개장 이후 처음 몇 년 동안은 60~70명이던 성인 수련생이 9년 만인 2013년에는 100여 명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200명의 성인 수련생으로 붐비고 있다. 이 도장에는 성인부만 있는 게 아니다. 여느 도장처럼 어린이 수련생도 130명에 이르고 있다. 타 도장처럼 줄넘기도 하면서 그 나이 신체 성장 속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선 관장들의 견학 러시

김재훈 도장은 변화를 바라는 일선 젊은 사범들의 견학 코스다. 필자가 인터뷰를 위해 도장을 찾은 날에도 여러 명의 타 도장 사범들이 오전부터 도장을 방문해 수련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인부 활성화를 바라는 사범들의 목마

름을 지켜본 이 도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총관장도 이따금 한국을 방문할 때면 세미나를 개최해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 황태현 전국 태권도장연합회 전무 이사도 이날 김재훈 도장을 방문한 사범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도장을 운영한다는 황 전무는 “대부분 사범들은 성인 프로그램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들이 도장에 몰려온다 해도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전무는 “이 도장 성인 프로그램을 보니 다양한 주먹타격 기술에다 창현류 품새까지 가르쳐 뭔가 풍성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역시 성북구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오부환 관장도 “성인들로 가득한 도장을 보니 우리 도장과 확연히 다른 에너지가 있네요. 주위에서 성인 태권도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사범들이 엄청난 자기 개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성인부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김재훈 도장의 프로그램에 매료돼 수년간 도장을 찾아와 수련하는 사범들도 꽤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남 김해에서 주말마다 일산 도장을 찾아 수련하는 사범도 있었다. 이런 사범들은 오랜 노력 끝에 새로운 자관을 만들어 독립해 나갔다. 일산 도장에서 시작한 한국의 김재




김재훈 도장의 외국인 수련생들(위). 도장 리셉션 모습(아래).

훈 도장은 서울 목동, 제주, 수원, 군포, 김해, 과천 등 일곱 곳으로 늘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활발한 성인부를 운영하고 있다. 취재 결과 김재훈 도장의 경영 비결은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정통 태권도 수련을 고집하되 누구나 즐겁게 수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었다. 국가원 품새와 창현류 품새 등 두 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늘 색다른 수련 목표를 제공하는 점도 활성화의 이유라던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에겐 생소한 수련생 간 도제식 수업도 사범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도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2시간에 걸친 수업을 지켜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성공 비결을 생각해 봤다. 이 도장의 성공 비결은 바로 도제식 수업에 따른 수련생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수련 시간 동안 기술 연마를 위해 토론하면서 조성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수련생들을 오랫동안 도장에 출석토록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수업 후 인터뷰에 응한 한 주부의 말을 통해 이 같은 힌트를 얻었다.

서윤경 씨(48·일산 후곡마을)는 이 도장에서 1년 6개월간 수련했다. 몸이 약했던 서 씨는 요가·수영·골프 등 온갖 운동을 섭렵했다. 그러나 어느 운동도 길게 가지 못했다고 한다. 헬스 클럽에 다녀도 트레이너가 잠깐 관심을 가져 줄 뿐 나머지 시간은 혼자 훈련해야 했다. 하지만 김재훈 도장은 달랐다. 수련생끼리 대화하며 수련하는 방식이 재미있어서다. 아주 내성적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었다. 하급자를 지도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몸도 건강해졌고 튼튼해졌다. 한 단계 한 단계 띠가 올라가는 것이 즐거워졌다. 매달 새로운 수련 목표가 생겨 이에 도전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였다.

사실 성인이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의 대부분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영·골프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기에 무언가 부족하다. 현대인은 누구나 고독하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도시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운 구석이 있다. 태권도 수련에서 함께 토론하며 땀을 흘리는 사이에, 수련생 간에는 최소한 외로움은 사라지게 된다.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사형(師兄)과 사제(師弟)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김재훈 도장의 도제식 수련 방법은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성공의 비결이 된 것은 아닌지... 



거듭된 반전, '태권도 큰 스승'으로 귀결되다

'그랜드 마스터' 김재훈 <상>

2017년 상하이(上海)에서, 김재훈 태권도장은 한마당 행사를 열고 태권도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학사(경영학) →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MBA).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야말로 밟고 싶은 엘리트 코스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세계 으뜸을 닦는 명문 대학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앞날은 장밋빛으로 가득 차리라 쉽게 내다볼 수 있다. 실제로 그랬다. 30대 후반에 글로벌 디지털 산업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 중역(부사장)에까지 올랐으니 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마치 “보편적으로 예상하는 인생 항로는 나에겐 부질없을 뿐”이라고 말해 주려는 듯 뜻밖의 인생길을 펼쳐 보인다.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 이 칭호 앞에서, 대기업 또는 초일류 기업 CEO(최고 경영자)에 거뜬히 올랐으리라는 생각은 속절없이 허물어진다. 그러나... 반전은 또 다른 반전을 품고 있다. 어쩌면 처음 내렸던 전망이 맞았는지 모르겠다. 거대한 ‘태권도 왕국’을 세우고 온 누리를 열정적으로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8개국 40개의 도장, 300여 명의 매니저와 사범, 1만 2,000여 명의 문하생을 거느린 ‘총관장’을 어찌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태권도 기린아’, ‘큰 스승’으로 자리하다

소년은 남달랐다. 애티가 채 가지지 않은 10대 후반에, 사범으로서 태권도 개척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도 멀리 미지의 이국땅, 캐나다에서였다. 고교생으로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태권도를 가르쳤다. 훗날 지구촌 골골살살에 발자취를 남기는 대사범으로 클 수 있는 자질을 일찌감

치 엿보였던 그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의 더께가 쌓인 동안, 그는 맘으로 얼룩진 자신의 세계를 이룩했다. 오늘날 김재훈 태권도장은 드높은 명망을 쌓으며 세계 최고 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태권도 전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 지구촌에 태권도를 전파하려는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아시아·북미·유럽 등지에서 제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당연하기만 하다.

‘열정’, 그리고 ‘헌신’, 오로지 태권도만을 사랑하고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 온 삶을 바친, 오늘날 그를 존재하게 한 화두다. 그는 어린 시절 ‘태권도 기린아’였다. 이순을 훌쩍 넘기고 고회를 눈앞에 둔 그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다. 그는 ‘총관장’으로 불리길 싫어한다. 경영인의 냄새가 엿보이는 듯해서다. 그는 ‘사범’이란 호칭이 좋다. 스승의 기운이 배어있는 듯싶어서다. 김재훈, 그는 정녕 큰 스승임에 틀림없다.

태권도 삶에 투신한 뿌리가 된 세 번의 분수령

김재훈 사범은 49년의 태권도 인생을 밟아 오며 세 번의 분수령을 맞았다. 캐나다 남부에 위치한 매니토바 주도 위니펙에서 태권도 클럽을 창설함이 첫 번째고, 1974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도 보스턴에서 첫 김재훈 태권도장을 개설함이 두 번째며, 1992년 GE 부사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제자 양성에 뛰어들이 세 번째다. 그는 어려서부터 각종 무술을 접할 수 있었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옮겨 다니며 현지의 인기 무술을 단편적으로 배웠다. 그 가운데에서도 파격력이 넘치며 화려한 기술이 돋보이는 태권도에 가장 매료됐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 시절, 그는 태권도가 품는 강한 매력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싶었다. 1969년, 흥안의 고교생은 위니펙에 태권도 클럽을 만들었다. 아직 약관에도 이르지 못한 소년이 위니펙에 태권도를 처음 소개하고 가르쳤으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자신의 현재 능력을 잘 알았다. 관원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자신이 지닌 실력으로는 가르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 토론토에서 도장을 운영하던 박종수 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후술하겠지만, 박 관장은 그의 인생 변곡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인물이다. 연(緣)은 언제 어떻게 맺어질지 신이 알 뿐이랄까.

어쨌든 박 관장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새로 사범이 왔다. 그가 또 하나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후에 글로벌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한 박정태 관장이다. 이로써 그가 만든 태권도 클럽은 전환점을 맞았다. 박 관장은 이 클럽을 바탕으로 위니펙 최초의 태권도장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그는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웠다. 사범이자 수련생이었다.

1971년이 되며 그는 삶의 터전을 옮겼다. 대학에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MIT에 입학하며 보스턴으로 향했다. 그가 태권도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된 곳이다. 반려의 땅에서, ‘보스턴 시대’의 막이 올랐다. 3년여 시간이 흘러갔다. 1974년 7월 15일, 뒷날 보스턴 태권도사 아니 미국 태권도사에 그려진 한 획은 이날 비롯됐다. 김재훈 태권도장의 출범으로, 브루클린 애비뉴에 등지를 튼,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전 세계적 태권도장의 총

본산이 첫선을 보였다. 44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도장은 그곳에 자리해 한결같이 문하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미국에 뿌리내린 태권도의 산실로서 소임을 다하는 무도 도량(道場)이다. 1992년, 그는 경영인의 삶을 완전히 접고 오로지 태권도의 삶에 뛰어들었다. 짧은 시간에 승진을 거듭하며 잘나가던 GE 중역(한국 지사 부사장)이 결단을 내린 파격적 행보였다. GE에서 항공기 및 우주선 관련 엔진 판매를 책임졌던 그는 고국의 항공 산업 성장에도 작게나마 이바지하려 했다.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호를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억 원 상당의 항공기 엔진을 한국의 육·해·공군과 민간 항공사에 공급했다. GE 시절에 배우며 체득했던 경영 기법은 훗날 도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 김재훈 태권도장의 4대 철학이자 원칙 가운데 하나인 분석적 접근(Analytical Approach)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마음속에 담아 뒀던 기법이다. 회사 경영 기술이 도장 운영에 절묘하게 접목된 김재훈

태권도장이 이후 수련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번창의 길로 들어섰음은 물론이다. 그는 GE에 몸담았던,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돌아봤다. “당시 아시아항공이 출범했다. 아마 한국 내 아시아항공의 항공기 엔진 대부분을 내가 팔았을 듯싶다. 그런 만큼 글로벌 본사에선 나를 높게 평가했다.” 그 당시 그의 연봉은 놀랄 만하다. 삼십대인 그의 연봉은 1990년대 초반 한국인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물경 4억 원에 이르렀다. 그래도 그는 태권도를 결코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GE에 근무하는 동안 도장 운영을 제자들에게 맡겼다. 그러나 제자 양성을 전혀 등한시할 수 없었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보스턴으로 날아가 문하생을 가르쳤다. 제자를 기르는 기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GE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입대했다. 4년 동안 군에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한국 공군에 입대해 김재훈 사범이 1980년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독특한 사제 인연, 대도량 태동의 밑거름 되다

김재훈 사범은 세 번의 분수령을 거치며 성장을 거듭했다. 한 번의 전환점을 넘어설 때마다 무술인으로서 성숙해지며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런 그에게 또 다른, 그 이상의 큰 분수령이 있었다. 세계 태권도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더 가며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그가 가장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채 늘 떠올리는 순간이다. 곧, 최홍희 전 ITF(국제태권도연맹) 총재와 만남이다.

태권도의 마력(魔力)에 빠진 듯 했어도 막연히 품었던 태권도를 향한 열정이 삼시간에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취미로 태권도를 즐겼고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로 여겼던 그였다. 이제 태권도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 '태권도의 길을 걸으리라.' 굳게 다짐케 한 그날은 1972년 가을에 불쑥 찾아왔다.

그는 그때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 앞에서 추억으로 떠올리길 극히 조심스러워 한다. 최 총재가 지금 북한이 주도하는 ITF 수장에서 오는 역사적·정치적 시각을 꺼려 해서다. 그렇지만 36년이 지나 『태권도』와 만난 자리서, 그는 그때의 전후 상황 및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당시 느꼈던 기분을 담백하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심정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46년 전으로 되돌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1972년도 힘을 잃고 시나브로 저물어 가던 가을이었다. 그는 박정태 관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밝고 힘찼다. 토론토에 온 최 총재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하니 가 보라는 내용이었다. 가슴이 설렜다. 최 총재라면 책에서나 보던, 나름 태권도인이라 자부하던 그로선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었다. 한편으로는 다소 얼떨떨했다. 최 총재는 1,50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수장 아닌가.

훗날 ITF 부총재에 올랐던, 위니펙 시절 그를 가르쳤던 박종수 관장에게 자문했다. 그리고 며

칠 후 토론토로 향했다. 최 총재는 수제자 격인 박 관장이 있는 토론토로 망명한 상황이었다. 그는 토론토 공항으로 마중 나온 박 관장과 함께 최 총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발길을 옮겼다.

최 총재는 처음 만난 그를 아들 보듯 반갑게 맞았다. “태권도와 공부를 모두 잘하는 인재라고 들었다.”라고 그를 칭찬한 최 총재는 ‘문무 겸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총재 부인은 저녁을 차려 줬고, 그는 맛있게 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최 총재는 태권도를 좀 해보라고 했다. 그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있었다. 자신이 태권도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로선 어쩌면 당연한 자신감이었다. 태권도를 외국에 전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고, 그의 시범을 본 누구나 “잘한다.”라고 감탄하던 시절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쯤 태권도가 얼마나 실전에 강한지 도전해 오던 다른 무도 무술인을 보기 좋게 요리하던 시기기도 했다. MIT에 들어가서 만든 태권도 클럽 회원 수가 100명을 넘었으니 가질 만한 자부심

1990년 한 행사에서, 김재훈 사범(가운데)이 잭 웰치 GE 회장(오른쪽 옆)과 같이했다.



1970년 위니펙에서 태권도 클럽을 만들고 가르치던 시절, 김재훈 사범이 시범을 펼치고 있다.

아니었겠는가. 그때 MIT 전체 학부생이 4,000명이었으니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클럽을 창설한 주역으로서 멋있는 기술을 보이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좁아 특기인 뛰어차기를 구현하기엔 어려운 여건이어서 아쉬움마저 들었다.

그런데 최 총재는 뜻밖의 말을 던졌다. “형을 한번 해 보라.” ‘폼새’나 ‘틀’이라는 용어 대신 ‘형’으로 불리던 때였다. 그는 계백형을 하리라 마음먹고 준비했다. 그런데 최 총재는 초보자가 하는 천지형을 주문했다. 그는 ‘몸을 풀라는 뜻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천지형을 펼쳤다. 몇 동작 하지도 않았는데, 최 총재는 그에게 “허리를 틀고 힘을 넣어서 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온 힘을 다해 다시 했다. 최 총재는 “아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며 손수 천지형 처음 세 동작을 펼쳤다.

“그분은 나보다 체구도 작은 데다 내 눈엔 연세가 아주 많은 분으로 보였다. 그런데도 그분이 보여 준 세 동작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힘과 탄력의 결합이었다. 그분의 몸 자체가 순수한 에너지의 형상인 것처럼 보이는, 힘에 넘치면서도 아름다운 동작이었다. 그 동작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 어디에서인가부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몸이 작아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감동과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일본의 젠불교(Zen Buddhism)에 ‘사토리 [Satori·覺(각): 깨달음]’라는 용어가 있다. 무

엇인가 진실을 느꼈을 때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뤄진다고 들었다. 그 날이 나의 사토리였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껴졌다. 누가 아무리 빨리 또 세계 차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분의 천지형 세 동작을 보고 일순 멍해졌다. ‘나는 태권도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온통 머리를 휩쓸었다. 가장 기초적 동작이 그렇게 힘차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권도에 일생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46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분의 천지형 세 동작이 꼭 어제 일어난 일인 양 눈앞에 아른거린다.”

최 총재는 그 뒤에도 한 시간쯤 이 동작 저 동작 해 보라고 한 뒤 교정해 줬다. 그와 함께 앞으로 지도해 줄 테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배우라고 했다. 그는 무척 고맙고 기뻐했다. 최 총재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도장에서 가르침을 베풀지 않았다. 특별히 선택한 제자를 한 명씩 자신의 집에서 가르쳤다. 그러니 최 총재에게 직접 배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그 뒤 토론토 주변 미시사가 지역으로 이사 간 최 총재 집 지하에 마련된 수련장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지하 수련장에 침대를 놓고 자기도 했다. 그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지하수련 시절이다.

최 총재는 태권도를 향한 참된 마음으로 배움에 정진하는 그를 아끼고 사랑했다. 최 총재가 그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역시 그가 MIT에 재학하던 시

절 일어났던 일이다. 일본에서, 극진 가라테 창시자인 최영의 총재와 최홍희 총재가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그는 최 총재와 함께했다. 최 총재는 최영의 총재에게 그를 소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MIT에 다니는 인재다. 공부는 물론 태권도를 아주 잘하는, 장래성이 무척 밝은 재목이다.”

1974년, 그는 본격적으로 제자 양성의 길에 나섰다. 최 총재의 충고를 받아들여 보스턴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장을 열고 가르침의 길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의 김재훈 태권도장이 태동하게 된 배경엔 멀리 내다본 스승의 선견지명이 존재했다.

그해에 그는 최 총재를 MIT에 초청해 태권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크레스기 강당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이 끝난 뒤, 최 총재는 토론토로 돌아가기 전 그에게 마음속 깊이 아껴 줬던 말을 비로소 토로하며 당부했다.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 보스턴이다. 공부 끝나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정부나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소임을 다하는 그들의 능력이 배양되는 배움터이기도 하다. 이런 배움의 전당인 보스턴에 도장다운 도장을 세울 수 있으면 태권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가 이 도시에 모범이 될 도장을 세워 보라.”

그에게 스승의 권유가 천명처럼 들렸다. 몇 개월 후 보스턴에 태권도장이 탄생했다. 첫 김재훈 태권도장이었다. 300여 명의 사범이 가르치고, 1만 2,000여 명의 문하생이 배우는 ‘김재훈 왕국’의 서막은 이렇게 올라갔다. **KA**



한국, 세계 태권도계가 경탄할 금자탑 쌓는다

2018 월드 그랑프리, 로마에서 막 올려

김태훈

또다시 세계 태권도사에 금빛을 놓는다.
아울러 한국 태권도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는다.
한국 태권 도령과 태권 남자가 올 한 해 사상 최대의 메달 농사를 기약하며 야망에 가득 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태극 도령·남자가 구가할 대풍가가 울려 퍼질 농토는 2018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다.
벌써부터 개선가가 쟁쟁하게 귓가에 맴도는 듯싶다.
힘찬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대한민국 태권도 만세!” 아! 기다려진다, 그날이.

월드 그랑프리, '종가'가 용틀임하는 한마당

월드 그랑프리는 '약속의 땅'이다. 대한민국이 뿜어내는 마력(魔力)이 지구촌 태권 가족의 넋을 사로잡은 터전이다. 2013년 발원한 이래 한국의 용틀임은 놀라웠다. 다섯 살의 연륜이 쌓이는 동안, 한국은 용솟음치는 상승세를 뽐내 왔다. 시작은 초라했으나 갈수록 눈부신 몸

놀림으로 '태권도 종가'의 자존심을 한껏 곧추 세웠다. 5년 전, 세계태권도연맹(WT)은 야심에 차 새로운 샘을 만들었다. 오늘날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과 더불어 태권도 3대 메이저로 자리 매김한 월드 그랑프리다. 첫 잔을 띄운(濺觴·남상) 2013 맨체스터 대회에서, 한국은 쓰라림을 맛봤다. 단 한 번도 금빛 연기를 펼치지 못하고 종합 6위(은 2·동 1)에 그치며 <표 1> 참조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겼다. 세계 으뜸으로 평가받던

한국 태권도의 뜻밖의 몰락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참모습이 어찌 이리하겠는가? 두 번째 잔을 받은 2014년 1차 쑤저우(蘇州) 대회에서, 한국은 사자후를 토했다. 김태훈(남자 -58kg)과 이대훈(-68kg)이 정상에 우뚝 서는 데 <표 2> 참조 힘입어 종합 우승의 포효를 터뜨렸다. 한국이 진가를 드러내며 앞으로 이 대회를 주름잡을 주인공이 누구일지 온 천하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한국, 부침 끝에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무도 스포츠다. 209개국(아시아 43, 오세아니아 19, 유럽 50, 팬 아메리카 45, 아프리카 52)에 이르는 WT 가족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다. 꼭 45년 전인 1973년 5월에 창설된 WT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성장세다.

<표 1> 역대 월드 그랑프리 종합 순위 3걸

대회명	장소	순위	종합			한국				
			나라	금	은	동	순위	금	은	동
2013년 파이널	영국 맨체스터	1	러시아	2	1	1	6	0	2	1
		2	영국	2	1	0				
		3	스페인	2	0	0				
2014년 1차	중국 쑤저우(蘇州)	1	한국	2	2	1	1	2	2	1
		2	중국	2	0	2				
		3	브라질	1	1	0				
2014년 2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1	미국	1	2	0	10	0	1	2
		2	이란	1	1	1				
		3	중국	1	1	0				
2014년 3차	영국 맨체스터	1	이란	2	0	2	3	1	0	2
		2	스페인	2	0	0				
		3	한국	1	0	2				
2014년 파이널	멕시코 케레타로	1	러시아	2	0	1	3	1	1	1
		2	이란	1	1	2				
		3	한국	1	1	1				
2015년 1차	러시아 모스크바	1	한국	3	1	2	1	3	1	2
		2	이란	2	0	1				
		3	터키	1	0	1				
2015년 2차	터키 삼순	1	러시아	2	0	1	5	1	0	1
		2	이란	1	1	2				
		3	중국·영국	1	1	1				
2015년 3차	영국 맨체스터	1	중국	2	0	0	3	1	0	3
		2	영국	1	2	0				
		3	한국	1	0	3				
2015년 파이널	멕시코 멕시코시티	1	중국	2	1	0	2	2	0	0
		2	한국	2	0	0				
		3	프랑스	1	2	0				
2016년 파이널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1	영국	3	0	0	2	2	2	1
		2	한국	2	2	1				
		3	멕시코·중국·아제르바이잔	1	0	0				
2017년 1차	러시아 모스크바	1	한국	3	4	3	1	3	4	3
		2	러시아	2	1	2				
		3	태국	1	1	0				
2017년 2차	모로코 라바트	1	한국	3	1	4	1	3	1	4
		2	영국	2	1	0				
		3	터키	2	0	2				
2017년 3차	영국 런던	1	영국	3	1	1	3	1	1	1
		2	러시아	1	2	2				
		3	한국	1	1	1				
2017년 파이널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1	한국	2	4	0	1	2	4	0
		2	영국	2	0	0				
		3	러시아	1	2	1				
계		순위	나라	종합 순위			메달			
		1	한국	5	2	4	22	19	21	
		2	러시아	3	2	1	9	9	14	
		3	영국	2	5	1	15	6	9	

※ 메달 계 순위는 종합 순위 기준.

<표 2> 역대 월드 그랑프리 한국 성적

대회명	장소	순위	금	은	동	금수상자
2013년 파이널	영국 맨체스터	6	0	2	1	-
2014년 1차	중국 쑤저우(蘇州)	1	2	2	1	김태훈(남 -58kg), 이대훈(남 -68kg)
2014년 2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10	0	1	2	-
2014년 3차	영국 맨체스터	3	1	0	2	이대훈(남 -68kg)
2014년 파이널	멕시코 케레타로	3	1	1	1	차동민(남 +80kg)
2015년 1차	러시아 모스크바	1	3	1	2	김훈(남 -68kg), 김소희(여 -49kg), 오혜리(여 -67kg)
2015년 2차	터키 삼순	5	1	0	1	조철호(남 +80kg)
2015년 3차	영국 맨체스터	3	1	0	3	이대훈(남 -68kg)
2015년 파이널	멕시코 멕시코시티	2	2	0	0	김태훈(남 -58kg), 이대훈(남 -68kg)
2016년 파이널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2	2	2	1	이대훈(남 -68kg), 오혜리(여 -67kg)
2017년 1차	러시아 모스크바	1	3	4	3	김태훈(남 -58kg), 이대훈(남 -68kg), 이아름(여 -57kg)
2017년 2차	모로코 라바트	1	3	1	4	김태훈(남 -58kg), 이대훈(남 -68kg), 김소희(여 -49kg)
2017년 3차	영국 런던	3	1	1	1	인교돈(남 +80kg)
2017년 파이널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1	2	4	0	김태훈(남 -58kg), 이대훈(남 -68kg)

<표 3> 2018 월드 그랑프리 일정

구분	날짜	장소
1차	6월 1~3일	이탈리아 로마
2차	8월 10~12일	러시아 모스크바
3차	9월 19~21일	타이완 타이베이
4차	10월 19~21일	영국 맨체스터
파이널	11월 22~23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1988 서울 대회 때 시범 종목으로 올림픽에 첫 선을 보인 태권도는 12년 뒤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다. 물론 하계올림픽 국제경기연맹연합회(AOIF) 멤버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태권도의 지평은 무척 넓어졌다. 자연스레 각국의 실력은 평균화하는 추세로, 정상권을 거니는 나라의 수도 많아졌다. 곧, 홀로 내달리는 절대 강자는 이제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한국도 초창기 월드 그랑프리에서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야 했다. 종합 패권을 장담하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종합 3위 안에도 끼지 못할까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기까지 했다. 기우가 실제로 일어나 총격을 안긴 대회도 있었다. 2014년 2차 아스타나 대회에서, 한국은 물경 10위(은 1·동 2)로 추락하는 참패를 당했다. 2015년 2차 삼순 대회에서도 5위에 그쳤다. 조철호(남 +80kg)가 금을 찾으나 정상권에 진입하기엔 힘이 모자람을 절감해야 했다. 한국은 지난해 비로소 적통의 자부심을 되찾고



기개를 맘껏 떨쳤다. 파이널 무대까지 네 차례 열린 2017시리즈에서, 한국은 세 차례나 가장 크게 웃었다. 쌍두마차 이대훈과 김태훈이 출전하지 않은 3차 런던 대회(3위. 금 1·은 1·동 1)를 빼고 1차 모스크바(금 3·은 4·동 3), 2차 라바트(금 3·은 1·동 4), 파이널 아비장 대회(금 2·은 4)를 휩쓸었다. 2017년은 분명 한국이 전 세계 태권도인의 가슴속에 뚜렷하게 인상을 남긴 한 해였다. 2017무대에서 보인 풍성한 수확은 한국에 또 다른 결실을 가져다 줬다. 역대 통산 으뜸의 자취를 남긴 나라, 곧 한국이었다. 이 대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네 차례 열렸다. 이 동안 한국은 다섯 차례 우승(2위 2회, 3위 4회)하며 통산 종합 순위에서도 가뿐하게 정상에 올랐다. 첫 대회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하며 기세를 올렸던 러시아(1위 3회, 2위 2회, 3회 1회)와 영국(1위 2회, 2위 5회, 3위 1회)을 가볍게 제쳤다. 당연히 메달 수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한국의 수확량(금 22·은 19·동 21)은 영국(금 15·은 6·동 9)과 러시아(금 9·은 9·동 14)를 제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월드 그랑프리, 갈수록 비중 높아지는 까닭은?

월드 그랑프리는 올림픽(G20·200점) → 세계 선수권(G12·120점)에 이어 세 번째로 랭킹 포인트를 많이 부여받는 큰 무대다. 보통 1년에서 너 차례 펼쳐지는 시리즈 대회는 각각 40점(G4)을, 파이널 무대는 80점(G8)을 각기 배정 받는다. WT는 2010년 랭킹 포인트제를 도입해 각종 국제 대회 비중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다. 각 체급별 랭킹 1~6위에겐 올림픽 자동 진출권을 부여할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꾀한다. 2016년 히우 지(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선, 종전 세계 예선 대회를 아예 없애 제도의 가치를 한결 높였다. 이 맥락에서, 월드 그랑프리는 '올림픽 선발전'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만치 비중이 높아졌다. 세계 선수권은 2년 주기로 열린다. 이에 비해 월드 그랑프리는 매년 보통 파이널까지 네 차례, 또는 올해처럼 다섯 차례 열려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그만큼 많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각 나라마다 월드 그랑프리의 의미를 남

다르게 본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자기 뜻대로 출전할 수 없어서다. WT는 각 체급별로 출전자를 3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31명은 랭킹에 따라(1~31위) 배정하고, 나머지 1명은 개최국에 부여한다. 또한 한 나라 출전 티켓을 최대 두 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내로라하는 정예가 총출동하는 이 대회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올 월드 그랑프리는 모두 다섯 차례 <표 3> 참조 막이 오른다. 1차 로마 대회(6월 1~3일. 이하 5월 30일 현재)가 1막으로 발단을 알리면, 2차 모스크바(8월 10~12일) → 3차 타이베이(9월 19~21일) → 4차 맨체스터(10월 19~21일)를 거쳐 파이널 푸자이라 대회가 대단원을 장식한다.

한국이 평천하를 외치는 배경은?

올 월드 그랑프리에서, 한국은 어떤 과녁을 맞으려 할까? 두말할 나위 없다. 당연히 상봉세를 밀고 나가 다시 한 번 평천하를 이루겠다는 대 야망을 부풀린다. "무로 승부사라면 당연히 우승에 뜻을 두어야 한다."라는 김종기 감독의 말



에서도 이를 잘 엿볼 수 있다. 과녁 한가운데를 적중시키겠다는 김 감독의 호언은 과연 현실로 나타날까? 그렇다. 결코 헛된 꿈이지 않다. 두 가지, 즉 ▲ 탄실한 선수층과 ▲ '미다스의 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훈과 김태훈을 주축으로 한 선수층은 실력과 경험과 패기를 두루 갖추며 절정에 이르렀다. 아김 듀오는 제23회 아시아 겨루기 선수권대회(호치민)마저 포기하고 이번 1차 로마 대회에 출전할 만치 초점을 월드 그랑프리에 맞추고 있다. '우승 제조기'로 불리는 김 감독의 조련 솜씨는 독보적이라 할 만하다. 용장에 더해 승장의 면모까지 보이며 한국의 질주를 이끌고 있다.

이대훈의 광풍은 계속된다

이대훈은 지난해 세계 태권도계를 경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렸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었다. 한마디로 광풍(狂風)으로, 천지에 휘몰아친 바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이대훈은 월드 그랑프리사(史)를 새로 써 가고 있다. 감히 넘보기 힘든 대기록을 잇달아 세우며 왜 그가 당대 최고 월드 스타인지를 스스로 입증 중이다. 지난해 두 부문 - 연속 우승, 최다 우승 - 에서 월드 그랑프리사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전 세계 태권도인의 가슴속에 선명한 인상을 아로새겼다. 이대훈이 작성한 연속 우승 최고 기록은 5회다. 2015년 3차 맨체스터 대회부터 2017년 2차 라바트 대회까지 잇달아 정상을 밟았다. 이대훈은 이 기록을 지난해 여자 최종량급(+67kg)에서 절대 강세를 보인 비안카 워크덴과 함께 지니고 있다. 워크덴은 2016년 파이널부터 2017년 파이널까지 이 대회서 무패 가도를 달렸다. 워크덴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대훈은 과거형이다. 그런데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이 기록이 이대훈 스스로 뜻을 접는 바람에 '5'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대훈은 지난해 총주 전국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3차 런던 대회에 나가지 않았다. 만약 출전했다면 금을 찾을 가능성이 커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그 다음 무대인 파이널 아비장 대회서 금을 수확했기에 더욱 그렇다. 이 기록을 '출전'에 초점을 맞춰 확대한다면 '6'으로 늘어나며 현재 진행형으로 전환



김소희



이아름

된다 건 우리네만의 단순한 바람일지...
 최다 우승 기록은 8회<표 4> 참조이다. 이 부문에서, 이태훈은 독보적 경지를 거닐고 있다. 2014년 1차 쑤저우 대회서 처음 우승한 뒤 적수를 찾기 힘든 빼어난 솜씨를 앞세워 금 수확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이태훈은 가장 먼저 두 자릿수 금 고지에 등정할 것으로 보인다. 2위 제이드 존스(영국·6회)에 두 걸음을, 공동 3위 김태훈(한국)과 워크덴(이상 5회)에 세 걸음을 각각 앞서고 있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것도 2018대회가 끝나기 전에 말이다.
 객관적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태훈은 지난해 세계 무대서 패배를 몰랐다. WT 무주 세계 선수권대회(6승)와 월드 그랑프리 1~2차 및 파이널 대회(12승, 각 4승)를 휩쓸며 전승(18승)했다. 한마디로 '무적의 사나이'였다. 당연히 WT 랭킹에서도 맨 앞을 달린다. 올림픽 랭킹(583.40점)과 세계 랭킹(531.83점)에서 모두 1위<표 5> 참조에 올라 있다. 각각 올림픽 랭킹과 세계 랭킹 2위인 아야우아트 아하프(벨기에·396.09점)와 알렉세이 데니센코(러시아·355.21점)에 200점 가까이 앞선 데서도 쉽게 금 획득이 점쳐진다.

<표 4> 월드 그랑프리 최다 우승 5걸

순위	이름	국가	우승 횟수	체급	대회
1	이태훈	대한민국	8	남 -68kg	2014년 1차, 2014년 3차, 2015년 3차, 2015년 파이널, 2016년 파이널, 2017년 1~2차, 2017년 파이널
2	제이드 존스	영국	6	여 -57kg	2014년 파이널, 2015년 2~3차, 2016년 파이널, 2017년 3차, 2017년 파이널
3	김태훈	대한민국	5	남 -58kg	2014년 1차, 2015년 파이널, 2017년 1~2차, 2017년 파이널
3	비안카 워크덴	영국	5	여 +67kg	2016년 파이널, 2017년 1~3차, 2017년 파이널
4	알렉세이 데니센코	러시아	4	남 -68kg	2013 파이널, 2014년 2차, 2014 파이널, 2015년 2차
4	우징위	중국	4	여 -49kg	2014년 1차, 2015년 2~3차, 2015년 파이널
4	에바 칼보 고메스	스페인	4	여 -57kg	2013년 파이널, 2014년 1~3차

김태훈, 전격으로 지평 확대 노력

김태훈은 이태훈과 더불어 한국 태권도의 양대 산맥이다. 지난해 이태훈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올리며 남자 -58kg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2017년 세계 선수권대회(-54kg)에서 비롯된 김태훈의 금빛 발차기는 그해 12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아비장 대회까지 이어졌다. 18승 무패 가도를 금빛으로 수놓았다. 그야말로 이태훈을 꼭 빼닮은 맹활

약을 펼쳤다.
 김태훈은 이처럼 지난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2014년 1차 쑤저우 대회와 2015년 파이널 멕시코시티 대회 우승에서 보듯 매년 한 차례씩만 금을 땀으나, 2017년엔 세 차례씩이나 금을 수확했다.
 자연스럽게 WT 랭킹도 상승했다. 2017년 8월 월드 그랑프리 1차 모스크바 대회가 열리기 직전 7월 세계 랭킹에서, 김태훈은 -58kg 4위(261.80점)였다. 1위 카를로스 나바로(멕시코

371.97점)에 비해 99.17점이 모자랐다. 같은 시기 1위(487.20점)였던 올림픽 랭킹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올림픽 랭킹에선 오히려 나바로(2위·372.59점)에 98.61점 앞섰다. 그러나 모스크바 대회 우승을 가져오며 WT 랭킹 독주가 시작됐다. 8월 올림픽과 세계 모두 랭킹 1위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수임을 한껏 뽐냈다.
 김태훈은 올해에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랭킹에서, 올림픽(593.68점)은 물론 세계(368.08점)도 석권했다. 세계 랭킹에선, -54kg에서도 1위(225.60점)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등극에 걸림돌이었던 나바로를 올림픽 랭킹에선 3위(323.14점), 세계 랭킹에선 2위(322.43점. 이상 -58kg 기준)로 각각 밀어내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위에서 보듯 2018시즌 김태훈의 향배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 최대 적수는 부상이다. 이 같은 변수만 없으면, 김태훈은 쉽게 희망봉에 다다를 수 있다.
 김태훈의 올 결실에서 지켜볼 부분은 2위를 놓고 존스와 벌일 최다 우승 레이스다. 이 부문 선두 이태훈엔 어렵더라도 한 걸음 차에 불과한 존스엔 언제든지 역전극을 펼칠 수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희(-49kg)-이아름(-57kg)-오혜리(-67kg)로 이뤄진 여자 트리오가 펼칠 몸놀림에도 눈길이 간다. 이 대회에서, 삼총사 모두 금을 찬바 있어 기대를 모은다. 김소희(2015년 1차 모스크바, 2017년 2차 라바트)와 오혜리(2015

년 1차, 2016년 파이널 아비장 대회)는 두 차례 금맛을 봤다. 이아름은 2017년 1차 대회에서 금을 차지했다. WT 랭킹도 이들이 호성적을 내리라 전망케 한다. 오혜리는 올림픽 1위(538.34점)와 세계 2위(362.74점)에 자리하고 있다. 김소희(423.90점, 389.22점)와 이아름(392.53점, 392.53점)은 올림픽과 세계 모두 2위에 올라 있다.
 심재영은 여자 -49kg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한국의 대풍에 힘을 보태려 한다. 2017 세계 선수권대회 -46kg에서 예상을 깨고 일약 우승을 일궈낸 심재영은 그 기세를 올 월드 그랑프리에서 이어 가려 버리고 있다.

'미다스의 손', 올해에 빛어낼 금은?

한국이 2018시즌에서 만개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름진 토양은 사령탑이다. 맹장 김종기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지휘하며 솔하게 승전가를 불렀다.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코치로 국가대표팀과 연을 맺은 김 감독은 2013년 대관을 잡으며 '태권도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2013 푸에블라 세계 선수권(금 6: 남 3·여 3), 2014 인천 아시안 게임(금 6: 남 3·여 3)에서, 한국을 모두 종합 우승으로 이끌었다.
 휴식기를 갖고 지난해 다시 지휘봉을 잡아 무주 세계 선수권(금 5: 남 3·여 2)에서도 종합 우



심재영

<표 5> 월드 그랑프리 한국 국가대표팀 WT 랭킹

성별	체급	이름	소속	올림픽 랭킹	점수	세계 랭킹	대회
남 (7명)	-58kg	김태훈	수원시청	1위	593.68점	1위	368.08점
	-58kg	정윤조	용인시청	22위	133.25점	12위	133.25점
	-68kg	이태훈	대전광역시 체육회	1위	583.40점	1위	531.83점
	-68kg	김석배	삼성 에스원	13위	174.35점	16위	81.08점
	-80kg	김훈	삼성 에스원	10위	212.02점	9위	111.06점
	+80kg	인교돈	한국 가스공사	4위	306.54점	8위	120.34점
	+80kg	조철호	강원도 체육회	21위	134.01점	17위	121.77점
여 (8명)	-49kg	김소희	한국 가스공사	2위	423.90점	2위	389.22점
	-49kg	심재영	고양시청	7위	227.57점	5위	149.07점
	-57kg	이아름	고양시청	2위	392.53점	2위	392.53점
	-57kg	임금별	한국 체육대학교	23위	125.67점	9위	95.60점
	-67kg	오혜리	춘천시청	1위	538.34점	2위	362.74점
	-67kg	김잔디	삼성 에스원	17위	138.11점	13위	144.11점
	+67kg	안세봄	춘천시청	12위	194.15점	8위	194.15점
+67kg	이다빈	한국 체육대학교	14위	179.04점	10위	105.00점	

※ 올림픽 랭킹은 4체급, 세계 랭킹은 8체급 기준임.
 ※ 세계 랭킹은 상위 랭킹(→ 다점수) 체급 기준임.

승의 전과를 올렸다. 2017 월드 그랑프리에서도 주전급을 모두 투입한 1~2차 및 파이널 대회를 휩쓸었다.
 특히 1차 대회에선, 역대 최고 성적(금 3·은 4·동 30)을 일궈 냈다. 그야말로 다른 형용이 필요 없는 연금술사다.
 김 감독은 올 월드 그랑프리 막을 여는 1차 로마 대회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며 또 한 번 천하 평정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온 힘을 다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올리는 올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한다.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결실을 올리고 싶다.”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겨루기 선수권대회 한국 겨루기, 아시안 게임 희망의 불빛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선수단.



강보라

한 국 태권도 남자 겨루기는 역시 아시아 으뜸이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겨루기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남자부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여자는 아쉽게 중국에 밀려 2위에 그쳤다.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 이규석)이 주최하고 베트남태권도연맹(회장 쩡 응옥 데)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50개국에서 출전한 700여 명이 사흘간(일주 기준) 치열한 열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3개월 앞두고 치러졌다. 따라서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금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평가된 무대였다.

한국은 총 2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를 수확했다.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은 각국 대표 선발전에서 뽑힌 선수들과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배대회(프레지던트컵) 입상자에게 주어졌다. 프레지던트컵을 통해 참가한 선수의 성적은 종합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녀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여자부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아시안 게임 대표를 기준으로 할 때 남자부에서 김태훈(58kg급), 조강민(63kg급), 이승환(87kg급) 등 세 명이, 여자부에서 강보라(49kg급), 하민아(53kg급), 이아름(57kg급), 김잔디(67kg급), 이다빈(73kg급) 등 다섯 명이 각각 출전했다. 아시안 게임 대표 열 명 가운데 이

태훈(68kg급)과 이화준(80kg급)을 제외한 8명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했다. 이들만을 놓고 본 성적은 금 4개, 동 4개의 성적이다. 현장에서 이번 대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여자부의 성적이 부진하긴 했어도 실제 아시안 게임 본무대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김태훈 보종수표 확인

고교생 강보라-장준, 국제 무대 성공 데뷔

김태훈은 역시 한국의 보종수표였다. 대회 첫날 출전한 김태훈은 이란의 강적 파르잔 팔라와 패권을 다했다. 파르잔은 2015 헬라빈스크 세계 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14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제패한 이란 태권도의 간판스타다. 김태훈과 파르잔의 대결은 접전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3회전에서, 신은 김태훈에게 미소를 지었다. 파르잔이 넘어지면서 감점으로 이어져, 김태훈이 정상에 올랐다. 둘은 3개월 뒤 아시안 게임에서 다시 한 번 금을 놓고 승부를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여자 태권도 세대교체의 선봉장 강보라는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회 첫판에서, 강보라는 2015 세계 선수권대회와 2014 유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2016 히우 지(리우 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태훈



김종기 감독



이동완 코치

태국의 간판스타 파니파크 텡파타나키트를 만났다. 텡파타나키트를 그동안 상대했던 한국의 선수는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였다. 이 체급 올림픽 랭킹 1위이기도 한 텡파타나키트와 김소희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보라의 대결은 이번 대회 최고의 빅 매치로 꼽히는 한판이었다. 결과는 12:7, 강보라의 완승이었다. 세계 태권도의 여자 49kg급 판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결승은 만만치 않았다. 결승전에서, 이란의 강적 나히드 기아니찬데를 만난 강보라는 경기 종료 40여 초 전까지 7점을 뒤지다가 특유의 원발 내려찍기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역전 기회를 잡았다. 강보라는 마지막에도 역시 오른발 내려찍기를 성공시켜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국제 무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강보라와 함께 고교생 신분으로 출전한 장준도 국제 무대 데뷔전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8강전에서, 장준은 주니어 시절부터 국제 대회에서 겨뤄 왔던 이란의 에브라힘 소우메흐를 제쳤다. 4강에서도 역시 이란의 아르민 세이가라니를 제압한 장준은 태국의 람나롱 사웁위하리를 25:9라는 압도적 점수 차로 앞서갔다. 장준은 결국 사웁위하리가 기권하면서 금을 획득하며 세계 태권도계에 '장준'이라는 이름을 깊이 각인시켰다. 장준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혀 배가된 기쁨을 한껏 누렸다.

국내에서는 수차례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이 체급 강자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번번이 국제 대회 제패에 실패했던 조강민은 첫 해외 무대 금메달의 감격을 누렸다. 아시안 게임 대표기도 한 조강민은 이번 대회 우승을 발판으로 아시안 게

임 우승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조강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풀렸다.

역시 만언니 오혜리, 인간 승리 인교돈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닌 프레지던트컵을 통해 이번 대회 출전 티켓을 딴 하민아(여자 53kg급)와 오혜리(여자 73kg급)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하민아는 아시안 게임에도 역시 출전한다. 이번 한국 여자대표팀 만언니인 오혜리도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보여 줬다.

한국에 마지막 금메달을 안긴 이는 인교돈이다. 인교돈은 수년 동안 한국 헤비급 태권도의 기대주이자 간판으로 손꼽혀 온 선수다. 2014년 림프암 진단을 받고 고비를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월드 그랑프리 3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인간 승리의 선수로도 유명하다. 이번 대회가 쉽지 않은 않았다. 준결승에서 이란의 사에이드 라자비에게 막판 역전승을 펼치며 결승에 진출한 인교돈은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자파로프와 3회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긴장감이 넘친 연장전에서, 인교돈은 화심의 일격을 성공시키며 '인간 승리 인교돈'의 신화를 이어 갔다. 인교돈은 제22회 마닐라 대회에 이어 2연패를 이뤘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모두 최고 성적을 거둬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망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22명의 선수와 함께 김종기 감독을 중심으로 이동완, 이원재, 양소희 코치가 선수들을 이끌었다. 이동완 코치는 최우수 코치상을 받아 더욱 진한 기쁨을 만끽했다. KA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한국 품새, 호치민에서 금자탑 쌓았다

역시 한국엔 아시아 무대가 좁았다. 독보적 경지에 오른 한국의 전력은 아예 추격을 허용치 않았다. 한국이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한 13명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 우승을 달성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왼쪽부터 강완진, 한영훈, 나태주.

왼쪽부터 최동아, 곽여원, 윤지혜.

한국, 출전 선수 전원 금 위업 이루며 2연패

지난 5월 24-25일 베트남 호치민시 푸토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서, 한국은 첫날 강완진(공인 품새 남자 30세 이하 개인전)과 김효민(공인 품새 여자 30세 이하 개인전)을 앞세워 금메달 레이스를 시작했다. 둘째 날에도 금 사냥은 계속됐다. 공인 품새 개인전 부문에서 김은주(여자 40세 이하), 김연부(여자 50세 이하), 김학동(남자 50세 이하), 배용신(남자 60세 이하)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30세 이하부와 30세 초과부로 구성된 남녀 혼성 페어전에서도 김선호와 김효민, 김도경과 김은주 조합이 각각 30세 이하부와 초과부를 석권했다.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 프레대회 자유 품새 단체전 부문에서도 남자(강완진·한영훈·나태주)와 여자(곽여원·최동아·윤지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출전 선수 전원 금메달 수확의 대미를 장식했다. 개인전에 출전한 곽여원과 나태주는 각각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은 공인 품새 남자 40세 이하부의 김도경이 추가한 은메달까지 합쳐 금메달 10개

와 은메달 3개의 성적으로 2016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제1회 대회(2008년)엔 불참했고, 제2회 대회(2012년)에선 1위에, 제3회 대회(2014년)에



곽여원

선 2위에 각각 오른 바 있다. 이번 대회엔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품새가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아시안 게임 전초전으로 여겨졌고, 경기 부문에서도 '아시안 게임 프레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의 자유 품새 부문이 별도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품새의 큰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성적을 미리 가능해 본다는 점에서, 아시아 각국은 이번 대회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준비해 왔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한국은 지난 2월 제주도에서 선발전을 열어 대표를 선발해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선발된 13명의 선수를 조련할 염관우 감독과 전민우·안창범·한상희·조성예 등 최고의 품새 지도자로 코칭스태프를 꾸렸다. 겨루기 지도자로 더 유명한 염 감독은 품새 1호 실업팀인 강화군청 창단을 이끌었으며, 최고 품새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곽여원을 가르치고 있다. 전민우(경희대), 안창범(K 타이거즈) 코치는 이미 최고의 품새 실기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조성예, 한상희 코치는 선수 경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최고의 준비는 최상의 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단체전. 프레대회 단체전은 8강전까지는 공인 품새와 새 품새,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새 품새와 자유 품새로 치러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총 네 개의 금메달 중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남자부 단체전에서, 강완진·한영훈·나태주는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안 게임 전망을 밝혔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번에 참가한 강완진·한영훈과 공인 품새 30세 이하 페어전에서 우승한 김선호가 호흡을 맞춘다. 개인전에 출전한 나태주는 아쉽게 2위에 그쳤다. 여자부 단체전은 고비가 있었다. 준결승에서 4위의 성적으로 결승에 진출하며 난기류에 휩싸였다. 한국은 역전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자유 품새에서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시도한 것이다. 도전은 성공했다. 준결승전에서 한국을 넘어설 기회를 잡았던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은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아시안 게임엔 이번에 참가한 곽여원·최동아와 박재은(가천대)이 호흡을 맞춘다. 개인전에선 곽여원이 은메달에 머물렀다. 남녀 개인전만 놓고 보면 아쉬울 수 있는 성적이다. 그렇지만 실제 아시안 게임 결과를 비교하면 이리다. 나태주와 곽여원 모두 최고 기량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 승부를 가를 자유 품새에서는 변수가 있다는 점, 아직 한국의 개인전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아시안 게임 개인전 결과를 가능하게 어렵게 한다.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대회 참가 쿼터 제한을 풀어서, 한국은 개인전 대표선발전을 6월 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에서 치른다.

영광을 잇고 아시안 게임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터

최고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한국 품새 국가대표팀은 말 그대로 잔치집 분위기였다. 염관우 감독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 참가한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가지고 귀국한다는 건 전무한 일로서 앞으로도 힘든 기록이 아닐까 싶다. 18일간 합숙 훈련만을 가지고 낸 이 좋은 성적을 지도자와 선수 모두와 함께 자축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품새 국가대표팀은 강화도 고인돌체육관에서 17박 18일의 합숙 훈련을 가진 바 있다. 염 감독은 "품새의 경기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미 확실한 지원 시스템

을 지닌 겨루기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라고 밝혔다. 품새 대표팀이 겨루기 대표팀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선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번 대표팀 선수 중 최고령자인 배용신(51)은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합숙 훈련을 준비하며 아들 뻔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모든 선수가 가족적 분위기로 훈련했다. 그러한 좋은 분위기가 전원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딸까지 응원을 왔던 만연니 김연부(47) 역시 "스무살 차이가 넘게 나는 어린 남자 선수들과도 스스로 없이 어울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같이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동적이었다."라며 눈시울까지 붉혔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였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가 가지는 긴장감은 여

전하다는 평가다. 정작 본무대 격인 아시안 게임에선 이번 대회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태성 아시아태권도연맹 품새 교육위원장은 "새 품새와 자유 품새가 아시안 게임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에선 그러한 예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대회에서, 일부 국가는 지닌 힘을 다 보여 주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가 예선이라고 할 때, 본선인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감춰 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시아 품새 강국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력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경기장에서 돌기도 했다. 아시안 게임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는 점, 새 품새와 자유 품새가 정식으로 도입됐다는 점 등이 이번 대회가 다른 여느 대회들에 비해 더 중요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KA**



최동아



한영훈

2018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겨루기 국가대표 선발전 뜨거웠던 '태극 도복' 쟁탈전, 파란은 없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한국 태권도 겨루기 국가대표팀이 결정됐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지난 4월 30일~5월 1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아시안 게임 겨루기 국가대표 선발전을 열고 남녀 각 5체급씩 총 10명의 태극 도복·남자를 선발했다. 예상대로 한국 태권도 쌍두마차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과 김태훈(수원시청)은 이름값을 하며 국가대표로 뽑혀 아시안 게임 연속 우승에 도전케 됐다.



조강민

남자부 : '훈 브라더스', 상반된 모습 보이며 태극 도복 주인공 돼

남자 68kg급의 이대훈은 8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실격으로 체력을 비축한 후 4강전, 결승전, 최종 결승전에서 많게는 15점 가까이 상대를 압도하며 가뿐하게 태극 도복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고교 3학년이던 2010년에 남자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된 이대훈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63kg급)을 차지했다. 4년 후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역시 같은 체급 대표로 출전해 2연속 금을 쳤다.

이대훈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대표로 선발되면서 아시안 게임 3연패 기록에 도전한다. 앞선 두 번의 아시안 게임과 차이가 있다면 체급을 하나 올렸다는 점이다. 한국은 가장 믿는 선수로 꼽히는 이대훈이 출전하게 됨에 따라 남자 68kg급에 대한 걱정은 덜었다. 굳이 걱정을 찾는다면 '포스트 이대훈'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도다.

이대훈과 함께 '훈 브라더스'로 불리는 김태훈도 인도네시아 땅을 밟게 됐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이대훈과 차이가 있었다. 이대훈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압도적 실력 차로 선발된 데 비해, 김태훈은 무섭게 성장하는 어린 후배들의 거센 도전에 다소 벅찬 기색을 드러냈다.

가장 돋보이는 도전자는 홍성고 장준이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준은 이미 2학년 때부터 세계 최강 김태훈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경기력을 선보인 바 있다. 태권도 관계자들은 장준의 몸놀림에 들뜨며 한껏 기대감을 부풀렸었다.

그 기대는 이번 선발전에서도 어긋나지 않았다. 준결승전에서 만난 김태훈과 장준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장준의 감점으로 김태훈이 일단 숨을 돌렸다. 김태훈은 결승전에서 역

시 고교생인 배준서를 제치고 최종 결승에 선착했다. 결승전에서 진 배준서를 패자 결승전에서 이기고 올라온 이는 역시 예상대로 장준이었다. 최종 결승 1차전에서, 김태훈은 장준에게 일격을 허용했다. 경기 종료 3초를 앞두고 역전을 허용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태극 도복을 놓고 최종 대결을 펼쳤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결은 명승부였다. 앞선 경기에서처럼 김태훈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는데, 장준이 다시 얼굴 내려찍기를 성공시키며 12:12 동점을 만들었다. 다시 연장전에 돌입한 두 사람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좀처럼 서로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승부의 저울추는 경기 종료 직전 기울었다. 장준의 돌려차기 공격이 감점으로 처리되며 박빙의 승부는 승패가 갈렸다. 김태훈은 인천 아시안 게임 54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어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세대교체 바람은 남자 80kg급에서도 기대됐다. 돌풍을 일으키리라 기대됐던 후보는 한국체대 1학년 남궁환이었다. 남궁환은 지난해 고교생 신분으로 WT(세계태권도연맹) 그랜드슬램에 출전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준결승전에서, 2016 히우 지(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이기는 파란을 일으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경기 스타일이 저돌적이어서 한국 태권도 관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남궁환의 돌풍은 이화준(성

남시청)에게 가로막혔다. 승자 결승전에서, 이화준은 남궁환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제압했다. 이화준은 최종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남궁환의 저돌적 공격을 막아내고 국가대표로 뽑혔다.

63kg급에선, 한국체대 조강민이 패자 결승전 관문을 뚫고 올라온 경희대 김태용을 33:31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80kg 이상급에선, 한국가스공사 이승환이 같은 팀 동료 인교돈을 제치고 한국 헤비급 태권도를 대표하게 됐다. 이승환은 5월 호치민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이미 선발된 바 있다.

여자부 : 강보라, 각광 한 몸에 받아

가장 화제를 모았던 선수는 49kg급의 강보라였다. 지난 2월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아직 고교(성주여고) 2년생인 강보라는 한국 여자 경량급의 간판이자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를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승리하며 태극 남자에 뽑히는 이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보라는 비교적 크지 않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밀어붙이는 특유의 저돌적 공격력을 선보이며 파죽지세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강보라를 막아선 상대는 2017 무주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태극 동료인 심재영이었다. 그러나 상대를 실 틈 없이 밀어붙이는 강보라의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심재영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심재영은 결승전과 최종 결승전 등 두 번씩이나 강보라 저지에 나섰으나, 부상으로 아쉽게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

53kg급에선, 2015 첼라빈스크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하민아(삼성 에스원)가 우승을 차지했다. 하민아는 한국체대의 임금별과 한국가스공사의 김민정을 잇달아 물리치고 최종 결승전에 올랐다. 최종 결승전에서, 하민아는 패자 결승전을 통과한 김민정을 다시 꺾고 아시안 게임 금에 도전하게 됐다.

57kg급에서는 이아름이 아시안 게임 2연패에 도전한다. 인천 아시안 게임과 무주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아름은 최종 결승전에서 성은 다르나 이름은 같은 김아름(영천시청)을 12:30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67kg급에선, 삼성 에스원의 김잔디가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혜리를 재결승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고 웃었다. 여자 헤비급인 67kg 이상급에선, 한국체대 이다빈이 강적 명미나를 승자 결승전과 최종 결승전에서 연파하며 국가대표 타이틀을 지켰다. 이다빈도 2014 인천 대회에 이어 아시안 게임 2연패에 도전한다. **KTA**



이아름

2018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 금빛으로 한여름 밤 수놓을 품새 태극 도령·낭자, 누가 뽑혔나?



아시안 게임 남녀 단체전 출전 대표로 선발된 광여원·최동아·한영훈·강완진·박재은·김선호(왼쪽부터).

오는 8월 중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경연장을 뜨겁게 달굴 영광의 한국 국가대표가 선발됐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가평군 한석봉체육관에서 2018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열고 남녀 각 3명씩 모두 6명을 가려냈다. 저마다 자카르타-팔렘방의 한여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주인공이 되겠다는 야망을 부풀리고 지닌 숨씨를 한껏 뽐낸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예선부터 결선까지 공인 품새·새 품새·자유 품새 경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시안 게임 출범 열여덟 번째를 맞은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태권도 문호를 넓혀 품새 종목 첫 도입했다. 이로써 아시안 게임에 태극 도복을 입고 금에 도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누가 그 주인공에 될지 한결 관심이 쏠렸다. 물

론 그만큼 불꽃을 튀기는 각축전이 잇달아 펼쳐져 한석봉체육관은 열기에 휩싸였다. 참가 선수는 남자부 63명, 여자부 41명으로 모두 104명이었다. 지난해 KTA 승인 대회 및 주최 대회 입상자와 국가대표 선발전(아시아 선수권·유니버시아드) 입상자들에게만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내로라하는 선수들만 얼굴을 내밀 수 있었다.

KTA는 심판 채점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발차기 난이도가 약한 공인 품새 중 태백과 십진 품새를 제외하고, 예선부터 결선까지 공인 품새·새 품새·자유 품새를 모두 하는 경기 방식을 택했다. 배점은 새 품새 40%, 자유 품새 30%, 공인 품새 30%. 선발전에 앞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정태성 KTA 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시안 게임 예선·본선·결선에 모두 새

품새가 포함되어 있다. 예선에서만 실시되는 공인 품새는 그만큼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새 품새 배점을 왜 40%로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새 품새는 비각 2, 나르샤, 힘차기, 새별 중 추첨을 통해 확정하고, 이전 경기에서 경연한 새 품새는 다음 경기 추첨에서 제외했다. 자유 품새는 채점 기준에 맞춰 하도록 했다.

오전 9시 30분. 드디어 선발전이 시작됐다. 경기장 안팎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수도 지도자도 아시안 게임 첫 품새 금메달에 도전할 티켓을 기필코 차지하려는 부담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 듯했다.

남녀 각 2개 조로 나누어 컷오프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남자부는 조별 16명씩 총 32명, 여자부는 조별 10명씩 총 2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각 조가 통합된 본선에선, 남녀 상위 각 4명씩만 결선에 진출하는 살얼음판 경기가 이어졌다.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체력이 강한 선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흘러나왔다.

한영훈과 광여원, 발군의 기량 뽐내며 남녀 1위 올라

저녁 6시 30분, 결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마지막 승부에 들어갔다. 기존 판도를 지키려는 자와 새 영역을 개척하려는 자의 치열한 겨룸은 갈수록 흥미를 자아냈다. 남자부는 다소 파란이 일었다. 반면 여자부는 전망을 벗어나지 않았다. 남자부에선, 새 품새와 자유 품새에서 압도적 기량을 발휘한 한영훈(가천대)이 1위에 올랐다. 공인 품새로만 채점하는 기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한영훈은 고교 시절부터 같고 닳아 온 시범 경연 솜씨를 바탕으로 새 얼굴로 떠올랐다. 한영훈은 새 품새와 자유 품새에서 경쟁 선수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정상을 밟았다.

2위는 김선호(용인대)가 차지했다. 남자부 2조 예선에서 3위를 하고 본선에서 2위로 결선에 오른 김선호는 공인 품새에서 8.67점을 받아 합계 8.410점으로 2위를 했다.

3위는 지난해 8월 타이베이(臺北)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강완진(경희대)에게 돌아갔다. 2조 예선에서 전체 4위를, 본선에서 3위를 각각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한 강완진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경기하는 나태주(K-타이거즈)의 점수에 따



최동아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뒤 임신자 경희대 교수가 격려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 아시안 게임 참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경기 결과, 강완진은 나태주보다 0.003점 앞서 가까스로 3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선, 예상대로 광여원(강화군청)이 1위를 거머쥐었다. 용인대 시절부터 시범과 품새에서 두각을 나타낸 광여원은 이번 선발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예선을 전체 1위로 가볍게 통과한 광여원은 본선에서도 조 1위로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선, 베테랑답게 공인 품새 평원에서 8.10점, 새 품새 새별에서 남녀 통틀어 최고 점수인 8.94점을 획득했다. 이어 펼쳐진 자유 품새에서도 여자부 결선 진출자 중 가장 높은 7.23점을 얻어 합계 8.175점으로 우승했다. 광여원은 공인 품새뿐만 아니라 새 품새와 자유 품새도 월등히 잘해 당분간 품새 최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깨고 올 초 여고를 졸업한 최동아(경희대)는 2위를 품에 안았다. 2조 예선서 2위로 본선에, 본선서 3위로 결선에 각각 진출한 최동아는 공인 품새에서 전체 6위로 밀려나 국가대표 꿈이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어진 새 품새에서 8.77점, 자유 품새에서 7.14점을 받아 합계 8.020점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박재은(가천대)에게 돌아갔다. 결선 공인 품새에서 8.50점을 받은 박재은은 강점인 새 품새에서 8.57점을, 자유 품새에서 6.67점을 각각 받아 합계 7.979점으로 아시안 게임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KTA는 남녀 각 3명의 선수를 아시안 게임 남녀 단체전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태권도 품새 세부 종목 쿼터가 2종목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남녀 개인전을 포기한 것이다.

OCA, 품새 쿼터 확대... 누가 새 희망을 부풀리까?

그런데 선발전이 끝난 뒤 희소식이 날아왔다. OCA가 이번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통해 품새 세부 종목 쿼터를 개최국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에 4종목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TA는 5월 3일 2018년도 제2차 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녀 개인전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다시 선발하기로 했다. 지난 선발전 1위자가 개인전에 중복 출전하거나 혹은 4위자가 단체전에 출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개인전과 단체전은 경기 방법이 달라 선발전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남녀 개인전은 준결승전 이전까지 공인 품새 두 가지,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공인 품새 한 가지, 새 품새(비각 2·나르샤·힘차리·새별)를 각각 해야 한다.

오는 6월 7일 한석봉체육관에서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품새 종목 남녀 개인전 출전 티켓을 누가 거머쥘지 주목된다. **KTA**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은 무술 종목의 경연장?



2017 삼보 세계 선수권대회 남자 82kg급에서, 한국의 고서현이 우승을 차지한 뒤 포효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이 난데없는 무술 종목의 경연장이 됐다. AG 정식 종목 채택에서 변화의 거센 바람이 부는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AG의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 흥미롭다. 최근 2018 AG 정식 종목을 통보받은 국내 체육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2014 인천 AG 정식 종목에 견줘 보면 경천동지할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메달 텃밭 종목이 대거 줄어들고 보도 못한 종목들이 대거 정식 종목으로 진입했다. 변화의 핵심은 '마샬 아트(Martial Arts)'다. 이번 AG 조직위원회가 머리를 굴리고 굴러 만들어 낸 일종의 꿈수다. 겉으로는 마샬 아트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세부 종목으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무술을 무더기로 집어넣는 편법을 썼다. 조직위원회는 마샬 아트라는 기본 종목 카테고리 안에 펜카 실랏·크라쉬·삼보·주짓수를 편입시켰고 여기에 기존의 우수까지 보태 총 다섯 개 고유 무술을 '마샬 아트'라는 이름으로 AG 정식 종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기존 AG 종목인 가라테와 올림픽 종목인 유도과 태권도까지 포함하면 무려 여덟 개 무술 종목이 AG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AG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한 마샬 아츠는 모두 49개의 금메달을 다투게 됨으로써 수영(5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메달 종목으로 떠올랐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도 난감하기 그지없다. 한국이 AG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사격·볼링 등의 메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국내에 소개도 제대로 안된 무술 종목이 대거 AG 정식 종목에 가세하면서, 자칫 스포츠 외교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사물과 현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AG을 읽어 보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향후 AG의 판도와 전망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스포츠 3룡(龍)'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AG이 열리게 되면 주최국에 유리한 새로운 종목이 정식 종목에 포함되는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샬 아트'의 새 종목은?

AG에 '마샬 아트'라는 새 이름으로 가세하는 무술은 펜카 실랏을 비롯해 크라쉬·삼보·주짓수·삼보 등 모두 네 개다. 이름도 생소한 펜카 실랏은 주최국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높은 무술이다.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 무술로 꼽힌다. 펜카 실랏이란 말은 '예술적으로 방어한다'는 뜻이다. 1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펜카 실랏은 실전성이 돋보이는 무술이다. 웅크린 호랑이와 춤을 추는 독수리가 싸우는 듯한 펜카 실랏은 불필요한 동작보다 간소하면서도 강력한 공격과 급소를 공략하는 실전성이 특징이다. 이번 AG에서도 예술 분야와 대련 분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된다. 예술 분야는 1인 시연(통갈), 2인 시연(간다), 3인 시연(레구)으로 나뉜다. 1인 시연은 맨손·검술·봉술을 하는 것이고, 2인 시연은 영화에서 나오는 액션 신 같은 동작을 두 명이서 합을 맞추게 된다. 3인 시연은 세 명이 똑같은 동작을 통해 합을 맞추는 퍼포먼스다. 대련 분야는 얼굴 가면을 제외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를 차고 지르고 잡아 넘기는 것으로 차등 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다. 여섯 개의 금메달이 걸린 주짓수는 MMA(종합 격투기)의 대중화로 많이 알려진 무술이다. 일본의 유도가 브라질로 건너가 꺾기와 조르기 등 그라운드 기술로 특화된 게 바로 주짓수다. 브라질로 이주한 일본의 유도가(家) 마에다 미츠요가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익힌 격투 기술과 유도의 원형인 유술을 그레이시 가문에 전수한 게 오늘날의 주짓수로 자리 잡았다. 상대의 항복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을 받아내는 파괴력과 실전성에선 단연 돋보이는 무술이다. 크라쉬(Kurash) 역시 생소한 종목이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무술 크라쉬는 3,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크라쉬는 '경쟁하다', '싸우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빠른 경기 운영으로 지루함이 없는 게 특징으로 일본의 유도과 비슷하다.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이란과 카자흐스탄 등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상위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1:1 겨루기 방식으로, 14m×14m의 정사각형 매트에서 진행된다. 득점 방식은 기술을 걸어 상대를 메쳤을 때 매트에 닿는 신체 부위에 따라 찰라(CHALA)·욘보쉬(YONBOSH)·칼롤(KHALOL)로 득점이 각각 나뉜다. 손을 사용한 하체 공격에 제한이 있고, 누르기·조르기·꺾기 등 그라운드 기술이 없는 게 유도와는 다른 점이다. 이번 대회엔 남자 네 개, 여자 세 개 등 총 일곱 개 금메달이 걸려 있다. 삼보(Sambo)는 러시아어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호신술'이라는 뜻을 지닌 격투 스포츠다. 유도와 레슬링 그리고 복싱을 합쳐 놓은 듯한 종합 무술로서 최근 중주국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안 게임 종목 선정 방식과 트렌드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국제 스포츠 기구인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OCA 헌장에 정식 종목(Official Program) 선정 절차와 방법을 명시해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시아 스포츠의 편차가 너무 클뿐더러 주최국의 이점을 살려 주지 않으면 앞으로 AG 개최 자체가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OCA 헌장 71조엔 AG 정식 종목 선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AG 정식 종목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밖에 다섯 개의 로컬 스포츠와 조직위원회가 추천하는 두 개의 종목이 포함될 수 있다. 로컬 종목과 추천 종목은 모두 OCA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스포츠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 아시아 스포츠 판도는 한국·중국·일본의 3개국 편중 현상이 너무나 심해 AG에서

<표> 2014, 2018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비교표

연번	종목	이벤트수			금수상자
		2014(인천)	2018(자카르타)	증감	
1	카바디	2	2		
2	카라테	13	12	-1	
3	마살 아츠	10	0	1	신규(우유 펜락 실랏, 주짓수, 삼보, 크라쉬 5개 종목 확대 개편)
4	근대5종	4(1)	2	-2	
5	패러글라이딩		6	+6	신규
6	롤러스포츠		6	+6	신규
7	조정	14(2)	15	+1	
8	럭비	2	2		
9	세일링	14(4)	10	-4	
10	세팍타크로	6	6		
11	사격	44(8)	20	-24	
12	스포츠 클라이밍		6	+6	신규
13	스쿼시	4	4		
14	수영	53	55	+2	
15	탁구	7	5	-2	
16	태권도	16(6)	14	-2	
17	테니스/정구	14(1/7)	10	-4	
18	철인3종	3	3		
19	배구	4(1)	4		
20	역도	15	15		
21	레슬링	20(3)	18	-2	
22	사이클	18(3)	22	+4	
23	승마	6(4)	6		
24	펜싱	12(8)	12		
25	축구	2(1)	2		
26	골프	4(1)	4		
27	체조	18(1)	18		
28	핸드볼	2(1)	2		
29	하키	2(1)	2		
30	제트스키		4	+4	신규
31	유도	16(5)	15	-1	
32	양궁	8(5)	8		
33	육상	47	48	+1	
34	배드민턴	7(1)	7		
35	야구/소프트볼	2(1)	2		
36	농구	2(2)	4	+2	
37	볼링	12(7)	6	-6	
38	복싱	13(2)	10	-3	
39	브리지		6	+6	신규
40	카누/카약	16(1)	21	+5	
41	크리켓	2		-2	제외
계		439(79)	463	+24(+77,-53)	

※ () 2014 금메달수

나머지 나라들의 들러리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AG은 최대한 주최국의 이점을 살리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 결과로, 주최국에 유리한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종목의 정식 종목 채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AG 정식 종목의 면면은 이 같은 트렌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참조. 인천 AG에서 44개의 금메달이 걸렸던 사격은 단체전이 모두 빠지면서 20개 종목으로 줄어들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AG 메달밭인 볼링 또한 12개에서 6개 종목으로 반이나 줄었다. 복싱도 3체급이나 없어졌다. 주최국 인도네시아가 강한 종목도 포함됐다. 마살 아츠에서 16개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려 있는 펜락 실랏은 인도네시아가 최강국이다. 해양 관광 대국답게 패러글라이딩(6개)과 제트스키(4개)등도 신규 종목으로 진입시켰고, 강점을 보이는 마인드 스포츠 브리지(6개)도 정식 종목에 포함했다.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하는 태권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할 때가 왔다. 주최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바로 정식 종목이다. 아시아 정통 무술 종목이 너 나 할 것 없이 AG 정식 종목에 채택됐다는 사실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에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큰 사건이다. AG이 종합 경기 대회인 만큼 종목별 인기와 흥미는 향후 아시아 스포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AG에서 무려 여덟 개의 무술 종목이 정식 종목에 채택된 적이 없다. 한 무대에서 여덟 개의 무술이 저마다의 자존심을 걸고 판을 벌인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스포츠로서 흥미와 무술의 실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종목별 희비쌍곡선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올림픽 역사가 짧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태권도로서 가라테라는 무서운 경쟁자 외에 나머지 무술 종목들의 힘찬 진군을 예의 주시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권도는 그 동안 편파 판정과 흥미 반감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 없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 결과 태권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진보를 거뒀으나, 아직 올림픽 무대에서 안정된 뿌리

를 내리지는 못했다는 게 객관적 평가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의 무술 종목이 총망라된 명실공히 무도 스포츠의 경연장인 만큼 태권도의 냉정한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대한체육회의 외교 전략 ... 정식 종목 선정의 막전 막후

체육계 일부에선 대한체육회의 외교력 부재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번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선정에서 남다른 고민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체육회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초 양궁과 태권도 세부 종목이 크게 준 것을 확인한 뒤 두 종목을 늘리는 전략에 올인했다. 조직위원회는 태권도를 종전 16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줄이려 했지만 한국의 강력한 항의로 절충점을 찾았다. 태권도는 품새 종목이 추가되면서 최종 14개 종목으로 확정됐다. 양궁 역시 당초 콤파운드 종목(3개)이 빠져 있던 것을 모두 살려내면서 종전처럼 8개 종목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은 “일부 종목이 이번 AG 종목 선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AG이 지금처럼 한국-중국-일본의 ‘삼국지 리그’로 계속 가다 보면 큰일이다. 앞으로 누가 AG을 개최하려고 할 것인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며 AG 종목 선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시안 게임의 새 트렌드

아시안 게임 개최지의 다변화는 어찌 보면 아시아 스포츠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아시아 스포츠는 월드 클래스급인 한국-중국-일본 등 극동 3개국의 편중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아시아 스포츠의 성공 열쇠인 셈이다. 따라서 OCA도 AG 개최지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자연스럽게 로컬 스포츠의 정식 종목 채택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스포츠 다양성은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스포츠는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 콘텐트다. 스포츠가 시대와 함께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G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의 바람은 과연 한국의 스포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화와 트렌드는 그냥 넘겨 버려서는 곤란하다. 맥락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그 의미를 파고들어야 진정한 발전의 열매를 딸 수 있다. **김민**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여자 태권도 46kg급 결승에서, 한국의 김소희(왼쪽)가 대만의 린원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소희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아시안 게임 변화의 바람, 비인기 종목 활성화 발판으로 삼아야

펜락 실랏-크라쉬 등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 게임(AG) 정식 종목에 포함되면서, 대한체육회도 덩달아 바빠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AG에 힘닿는 대로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만만찮다. AG에 출전하기 위해선 자국 NOC(국가 올림픽위원회)에 가맹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체육회는 이번 AG에 앞서 가맹단체 지위의 문호를 대폭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체육회로부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크게 정회원 단체(60개), 준회원 단체(4개), 인정 단체(5개) 등 세 개의 등급이 있다. AG에 출전하기 위해선 해당 종목이 체육회가 요구하는 세 가지 등급 가운데 하나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가능하다. 이번 AG 정식 종목 가운데 아직 체육회로부터 종목별 등급 심의를 받지 못한 종목이 수도룩하다. 그들이 이번 AG에 출전하려면 우선은 체육회의 종목별 등급 심의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다.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대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번 AG에서, 체육회는 선수단 파견을 위해 종전 비가맹단체들에 대한 문호를 적극 개방할 뜻을 내비쳤다.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은 “향후 이사회에서 종목별 등급 심의를 통해 비가맹단체들에 대거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가맹단체가 곧바로 정회원 단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AG에 출전하려는 비가맹단체는 인정 단체 지위를 얻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규 종목이나 저변이 얇은 비인기 종목의 체육회 가맹은 상당히 큰 이점이 있는 축복이다. 국고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다 비로소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발전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신규 종목이 AG 정식 종목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강제 종목들이 다소 피해를 보긴 했다. 그러나 체육계 전반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선 오히려 긍정적 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비인기 신규 종목의 활성화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특정 종목 편중화에 따른 한국 체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비인기 신규 종목의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과 동기 부여는 이번 AG이 선물한 또 다른 축복이다.

남북 태권도 교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남북 정상 간 1차 회담 후 발표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은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2018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과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자.”라고 밝혀 그동안 남북 화해의 마중물 구실을 톡톡히 해 온 체육 교류가 한층 활성화할 기반이 마련됐다. 남북은 올해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 성화 공동 봉송 등으로 생각했던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태권도도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북한 시범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남북 합동 시범을 펼치는 등 남북 화해 무드에 일조했다. 비동계 올림픽 종목 가운데 평창 문화 행사를 빛낸 종목으로 태권도가 유일했다. 그만큼 남북 체육 교류사에서 태권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얘기다. 북한 태권도만 남한에서 시범 공연을 펼친 건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둔 4월 초에는 남쪽 태권도 시범단이 예술단 방북길에 동행하며 평양에서 두 차례 시범 공연을 펼친 바 있다.

바티칸 남북 합동 공연 무산… 평양 탁구 대회 초청장도 안 와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남북한 태권도의 역사적 바티칸 합동 시범 공연이 북한 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남북 태권도는 5월 30일 오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태권도 시범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다. 남북의 하나 된 모습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는 “맥스스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계로, ITF(국제태권도연맹)는 바티칸 시범 공연을

할 수 없다.”라는 간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25일쯤에는 첫 정상 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회담의 주도권을 잡느라 강력한 성명전과 여론전을 펼치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북·미 대치 국면에서, 북한 태권도가 바티칸 공연을 강행할 수 없으리란 처지는 이해된다. 스포츠는 어차피 정치와 외교 등 상급 단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비슷한 시기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무산된 건 비단 태권도뿐만 아니었다. 대한탁구협회는 이달(6월)에 펼쳐지는 평양 오픈대회 첫 출전을 기대하며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 대회에 아시아인 게임 국가대표팀을 파견해 훈련을 겸한 남북 교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5월 초 세계 선수권대회 8강전부터 남북은 여자 단일팀을 성사시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초청장이 당연히 올 것으로 기대했다. 탁구는 1991년 지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남북 여자 단일팀이 중국을 꺾고 우승하면서 단일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종목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스포츠가 갖는 대중성과 확장성 때문이다. 1945년 이래 분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생긴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과 북은 하나라는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는 스포츠만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역대 태권도 교류사의 교훈
남북 태권도는 1980년 대 이래 수차례 통합 논의와 더불어 교류에 앞장서 왔다. 첫 통합 논의의 시작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의해서였다. 1980년 모스크바 IOC 총회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WT(세계태권도연맹·당시 WTF) 태권도가 IOC 승인 종목이 되자, 북한 주도의 ITF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IOC는 양 기구 통합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난 30년간의 수차례 통합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 사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ITF는 양자간 동등한 처지에서 통합을 원하는 반면, WTF는 흡수 통합 또는 국제적 무사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WT는 1994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발돋움하면서 ITF와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WT는 ITF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 WT 룰에 따라 경기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자세다. 이 같은 현실론을 반영해 WT는 통합의 개념을 넘어 ‘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두 단체가 합쳐 새로운 태권도를 만들어 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남북 태권도는 여러 차례 상호 방문해 시범 및 합동 공연을 펼쳤으나 통합된 경기 규칙으로 경기를 펼친 적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합 고집 NO, 상대 대회 선수 파견 YES
지금까지 남북 태권도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이었다. 1974년 최홍희의 캐나다 망명 이후 북한으로 이식돼 태동된 ITF와 WT는 상호 이질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북 태권도가 2003년 이후 상호 방문하며 교류함으로써 서로가 이해하는 폭은 상당히 넓혀졌다. 다만 통합을 위해 서로의 룰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축구와 럭비처럼 이질적이진 않으나, 30년 이상 제각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통합은 남북 통일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을 고집하지 말고 대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편 대회에 선수를 파견하면 어떨까? 남쪽의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가 상대편 국제연맹에 우선 가입한 뒤 상대방이 개최하는 국제 대회에 선수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 단일팀이 성



2월 북한 시범단 방한 당시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 모습.

사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WT와 아시아태권도연맹 비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는 ITF 계열 도장이 상당히 진출해 있어 경기 룰이 생소한 것도 아니다. 특히 ITF 계열은 창설자 최홍희가 만든 창현류 풍채를 여전히 수련 프로그램으로 간직하고 있어, 국내 일선 도장이 콘텐츠로 참고할 여지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WT와 ITF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합격투기 시장을 보면 UFC를 비롯해 흥행 단체가 여러 개다. 복싱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점은 남북이 태권도를 매개로 자주 교류해 통일에 이바지한다면, 태권도의 구실은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남북 교류 주체는 WT가 아닌 대한태권도 협회가 돼야
최근 남북 태권도 교류는 WT와 ITF 간 교류였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 출전에 IOC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두 단체가 태권도 교류의 당사자가 됐다. 남북 정상을 앞둔 4월 초 평양 태권도 시범 공연단에도 WT 시범단이 출전했다. 하지만 남북 태권도 교류라는 명분에서 보면 이는 걸맞지 않다. WT와 ITF는 국제 경기 단체로 남과 북의 태권도를 대변할 수 없다. 남북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조선태권도위원회란 민간 단체가 엄연히 존재한다. 과거 2000년대 초 이뤄진 남북 태권도 교류의 협상 당사자는 WT와 ITF가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와 조선태권도위원회였다. 물론 남북 관계의 특성상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으나, 남측의 협상 주체는 엄연히 대한태권도협회였다. 비록 이번 아시안 게임에 북한 태권도는 출전하지 않지만, 상대방 대회에 교차 출전 등으로 새로운 남북 태권도 교류의 패러다임을 고민할 때다. **KFA**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방한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10cm두께 송판 격파 모습.

태권도, 세계 기네스 도전 ... 국기 지정 자부심 뽐내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세계 기네스에 도전한 8,212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태극1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광, 영원하리라! 자존심으로 가득 찬 축복의 함성은 한반도를 넘어 널리 세계로 퍼져 나갔다. 뜻깊은 무대요, 염원을 담은 행사였다. 지난 4월 21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한국 태권도의 웅비를 뽐내는 행사가 펼쳐졌다. ‘태권도, 평화의 함성’ 세계 기네스 도전이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세계태권도연맹·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태권도진흥재단·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열린 무대였다.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가라테의 세계 기네스 등재 기록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도전이었다. 그만큼 한 마음 한뜻으로 나선 야망의 도전은 뜻했던 결실을 맺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한 몸처럼 같은 동작을 실시한 새 지평을 열었으니 어찌 대단한 기록이라 아니할 수 있으랴. 태권도가 세계 기네스의 한쪽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등재되는 순간이었다. 모두 환희의 함성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한국 태권도 만세.”

8,212명의 함성, 세계에 울려 퍼지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00여 명의 태권도

인이 도전의 길에 나섰다. 이동섭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각 기관 단체 태권도 관계자가 도복을 입고 함께 참여해 더욱 의의를 깊게 했다. 본격적 도전에 앞서 식전 행사로, 이 총재가 대리석을 격파하며 서막을 열었다. 이어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국기 상공을 수놓았다. 본격적으로 8,366명의 태권도인이 도복을 입고 태극 1장을 수행하며 기네스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규정으로는 모든 인원이 10분간 태극



1장을 틀림없이 반복 수행하는 것이었고, 각 구역 감독관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체크했다. 도전은 진지했고, 심사는 공정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동작 하나하나에 힘을 쏟고 다 함께 구령을 넣어 가며 기록 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내뿜었다. 모두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에 도전의 성패가 달렸음을 의식하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감동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 속에서 마침내 8,212명의 도전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태극 1장을 수행해 기록 도전에 성공했다. 기네스 감독관이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숨죽이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모든 참가자는 함께 열싸안고 기뻐하며 성공을 자축했다. 154명의 이탈자가 발생할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네스 기록 등재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태권도인의 하나 된 마음이 이번 행사의 가장 빛났던 아름다움이었다.

태권도 전공생으로 구성된 스튜어트
‘태권도, 평화의 함성’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 행사를 위해 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태권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은 중립적 처지에서 기네스 행사의 심판관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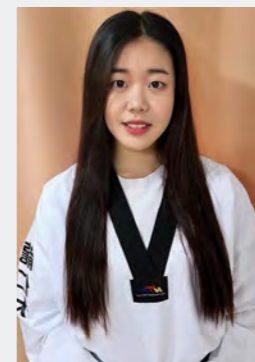
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스튜어트(심판관)로 활동했다. 이들은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국회의사당 세미나실에 모여 심판의 소임 및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이날만큼은 학생이 아닌 중립적 처지의 기네스 심판관으로 거듭났다.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행사 참가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스튜어트들도 오랜 시간 자신들이 맡은 각자 구역의 자리를 지키며 행사를 진행했다. 조금의 힘든 내색 없이 심판으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기네스 도전 성공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열심히 소임을 다했다. 이를 통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무도인의 자세와 심판

로서 모범적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일반 학생이 아닌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세계적 행사의 심판관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자신이 전공하는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깊어졌을 것이다. 아울러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 공식 지정된 이후 이뤄진 행사라, 이번 무대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을 듯싶다. 앞으로도 수많은 태권도 행사에 대학생 전공자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싶다. 이들이 자신의 전공인 태권도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뿐더러 자부심을 느낄 때에, 한국 태권도가 성장을 거듭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기대한다. **KA**

“정말 감동이었어요!” -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이은별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이렇게 큰 태권도 행사에 참여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네스 도전 행사가 열리게 된 취지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가라테가 수립한 기록을 깨고 아울러 다시 한 번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가 ‘태권도, 평화의 함성’ 심판관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주셔서 바로부터 받아 공저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도복을 입은 8,000여 명의 태권도인이 모인 국회의사당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태권도인이 도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여 태극 1장을 연습하는 모습은 저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힙합이 하는 품새 정도로만 태극 1장을 바라봤는데, 그날의 태극 1장은 그 어떤 품새보다도 멋있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보다 날씨가 유난히 더워 일사병으로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한마음 하나만으로 똘똘히 뭉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태권도의 기네스 등재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태권도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도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총 8,212명이 통과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같은 동작을 실시한 기네스 기록으로 등재됐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시민은 박수와 함성을 쏟아 냈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 또한 감동에 북받쳐 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이란 작은 땅에서 태권도에 의해, 태권도를 위해, 태권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큰 불꽃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불꽃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며, 장차 전 세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알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마침내 숙원이 이뤄지려나? 태권도가 국기(國技)로堂堂히 대접받고 그에 걸맞은 체계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권도는 하늘이 내린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 추진이堂堂히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태권도가 법률상 국기로 지정된 것도 또 하나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소프트

파워로 대표되는 문화 시대에, 태권도의 가치가 높이 평가받고 앞으로 이를 체계적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빅 피쳐’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국정 과제로 채택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는 새로운 문화 영토의 확장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좁은 국토에 부존 자원 또한 빈약한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이끌기 위해선 문화적 영토 확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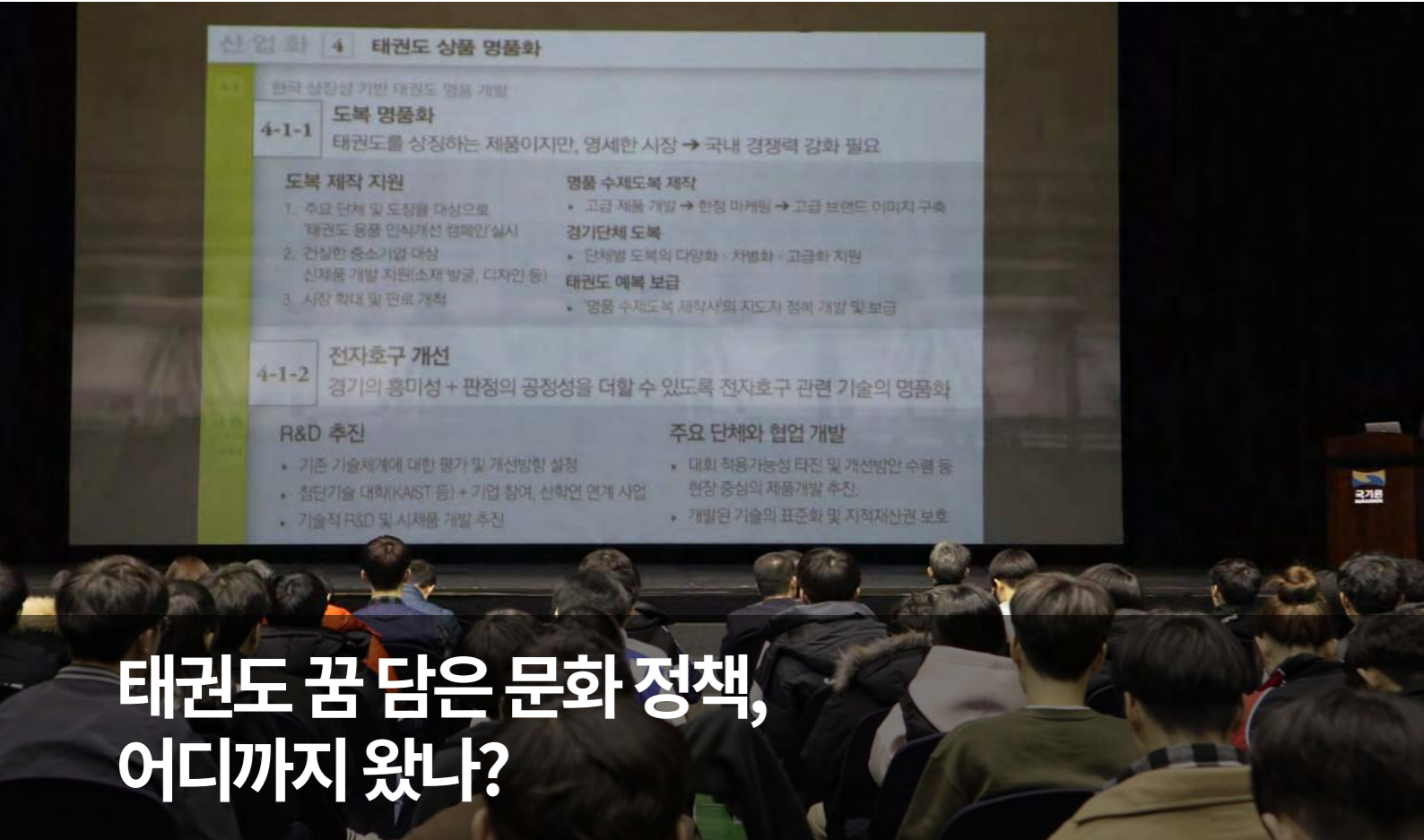
한류 원조인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 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태권도가 국정 과제에 선정됐다는 사실은 태권도계로선 뿌듯한 자부심을 뛰어넘는 일대 사건이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함량 미달의 정책이 세상에 나온다면 그건 불행의 극치다. 불행은 늘 그렇듯 소동 부재에서 싹튼다. 태권도의 국정 과제가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책적 과제로 묶여지고 있는지를 이 기회에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정책의 탄실함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생명이다. 아무리 우수한 전문가 집단이 내놓는 해법이라도 그제 현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다. 현실과 이론의 변증법적 통일, 국정 과제에 포함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 정책이 정부가 호언한 명품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선 반드시 곱씹어 볼 대목이다.

태권도 꿈을 담은 문화 정책



‘태권도, 평화의 함성’ 세계 기네스 도전 행사.



태권도 꿈 담은 문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정책안을 만들어 일선 태권도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를 수차례 열었다. 지난 3월 22일 국기원에서 열린 공청회 모습.

정부가 아침 차게 기획 중인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정책의 밑그림 그리기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맡았다. 지난해 9월 외부 용역으로 발주한 연구엔 정관호 모노플레이인 연구소장을 비롯해 이창후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연구원, 고경진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세 개의 추진 방향이 도출됐고, 열 개의 핵심 과제가 탄생했다.<표> 참조. 연구진이 도출한 3대 추진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 그리고 세부 사업 과제는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 현장과의 피드백과 전문가들의 지적과 조언을 통해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3대 추진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를 여과 없이 소개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통해 대안을 살펴볼도록 하자. 다만 뼈대가 된 3대 추진 방향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싶다. 정책이 탄탄한 뼈대 위에 구축되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명확한 비전 제시를 통해 세 가지 뼈대를 세

웠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인 태권도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자긍심을 높이고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을 위해 세 가지 층위의 연구에 나섰다. 태권도의 가치(Value)와 체계(System) 및 환경(Infra)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명품 콘텐츠의 육성과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연구의 세 가지 층위인 가치·체계·환경에 집중했고, 이게 바로 3대 추진 방향으로 연결됐다. 태권도의 가치는 곧 정체성이라는 큰 줄기로 매듭지워졌다. 체계는 태권도의 새로운 생태계로서의 산업화라는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 화두인 환경은 태권도를 둘러싼 지금의 환경이 국내를 벗어난 세계화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핵심 과제도 추렸다. 큰 줄기인 3대 추진 방향 속에 핵심 과제는 열 개로 정했다. ▲태권도 가치 발견 ▲명품 교육 시스템 구현 ▲태권도 상징성 강화(이상 정체성 부문) ▲태권도 상품 명품화 ▲관람형 콘텐츠 육성 ▲산업 진흥 기반 조성 ▲미래 시장 선점(이상 산업화 부문) ▲글로벌 리더십 강화 ▲태권도 문화 확산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이상 세계화 부문) 등이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의 10대 핵심 과제다.

정체성 부문

태권도의 정체성은 태권도의 내재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뿌리가 탄탄하지 못하면 늘 위태롭기 마련이다. 그동안 태권도는 정체성이라는 근원적 가치에서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다. 태권도의 정체성은 그 태동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모른다. 민족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가 근대 스포츠로 자리 잡을 당시 가라테의 형(型)을 참고했을 수도 있다는 역사적 개연성은 태권도를 정통성 시비에 휩싸이게 한 빌미가 됐다. 그러나 태권도는 가라테와는 다른 무술로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엄연한 한국 전통 무술이다. 다만 한 뿌리의 태권도가 분화한 게 옥에 티다. 한국 주도의 세계태권

<표> 태권도 10대 명품 콘텐츠 세부 사업 과제(안)

3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	산업화 부문	정체성 부문	세 세계화 부문	
			10대 명품 콘텐츠 세부 사업 과제(안)	10대 명품 콘텐츠 세부 사업 과제(안)
3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	1. 태권도 가치 재발견	1-1 태권도학 연구체계 개선	1-1-1 연구·평가 방법론	1-1-2 태권도학 연구추진
		1-2 원류 태권도의 가치 재조명	1-2-1 원류태권도 가치 재정립	1-2-2 원류태권도 수련단 운영
		1-3 태권도 연구기능 강화	1-2-3 원류태권도 브랜드화	
	2. 명품 교육 시스템 구현	2-1 지도자 육성 시스템 고도화	2-1-1 지도자 교육시스템 개선	2-1-2 분야별 지도자 육성시스템
		2-2 명품 도장 프로그램 개발	2-2-1 도장콘텐츠 육성 프로그램	2-2-2 명품 도장 인증제
	3. 태권도 상징성 강화	3-1 태권도 자산의 상징화	3-1-1 무형자산의 상징성 강화	3-1-2 유형자산의 상징성 강화
		3-2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4. 태권도 상품 명품화	4-1 한국 상징성 기반 명품 개발	4-1-1 도복 명품화	4-1-2 전자호구 개선
		4-2 태권도 마케팅 지원 시스템	4-2-1 마케팅 지원 기구 설립	4-2-2 태권도 마케팅 지원
	5. 관람형 콘텐츠 육성	5-1 태권도 프로화 기반 조성	5-1-1 관람형 경기 시범사업	5-1-2 태권도 미디어 환경 개선
5-2 전문 공연 콘텐츠 발굴		5-2-1 태권도 공연 콘텐츠 개발	5-2-2 국립태권도시범단 운영	
6. 산업진흥 기반 조성	6-1 태권도 네트워크 플랫폼	6-2-1 태권도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6-2-2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	
	6-2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6-2-3 태권도 산업협동조합 결성		
7. 미래시장 선점 (4차 산업)	7-1 차세대 기술 융·복합	7-1-1 태권도 미래 환경 연구	7-1-2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	
	7-2 글로벌 태권도 시장 선점	7-2-1 시장주도를 위한 환경조성	7-2-2 선도제품 지원	
8. 글로벌 리더십 강화	8-1 태권도 리더십 포럼	8-2-1 국제기구의 태권도 위상강화	8-2-2 국제경기연맹 자원환경 조성	
	8-2 태권도 국제기구 위상 강화	8-2-3 세계태권도연맹 유지		
9. 태권도 문화 확산	9-1 태권도 문화축제 활성화	9-1-1 자생적 문화축제 콘텐츠 육성	9-1-2 글로벌 태권도 문화축제 개최	
	9-2 문화원 연계 국외 거점 조성	9-2-1 문화원 연계 태권도 문화사업	9-2-2 문화중심형 태권도 도장 육성	
10. 국제교류 협력 증진	10-1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10-1-1 차세대 인재 육성시스템	10-1-2 국제네트워크 구축	
	10-2 태권도 ODA 지원체제 개선	10-2-1 태권도 ODA 프로그램 개발·운영	10-2-2 태권도 국제 대학원 대학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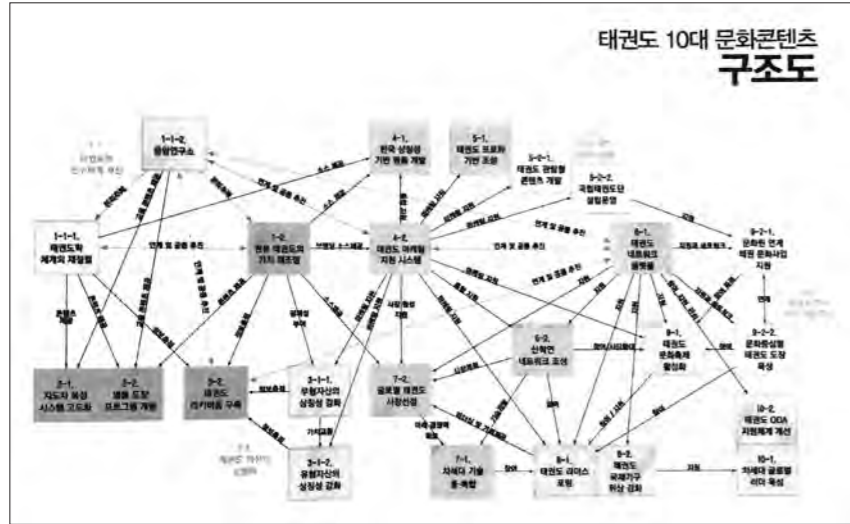
도연맹(WT)과 최홍희가 만든 국제태권도연맹(ITF) 사이의 이질성이 부각되면서 정체성에 흠집을 냈던 게 사실이다. ITF와 WT 간의 용어, 품새, 기술, 경기 규정 등 이질화는 향후 태권도의 정체성을 가다듬는 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역시 빈약하다. 태권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는 1980년대 만들어진 국기원의 '국기 태권도 교본'이 전부며, 그것 또한 외형의 설명에만 그치고 있어서 태권도의 원리에 대한 연구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다. 경기 태권도와 무도 태권도는 다르다. 무술은 실전성이 근본이다. 태권도가 경기 태권도에 치중하면서 실전성이 크게 약화됐고, 최근의 태권도가 성인이 아니라 아동을 중심으로 수련자가 퍼져 나간 게 정체성 약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기 태권도'라는 이미지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태권도 수련 인구는 늘었다. 그렇지만 태권도 도장 대부분이 아동 시장을 중심으로 팽창했다는 점은 향후 태권도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WT 중심의 국내 태권도는 상대적으로 ITF에 비해 실전성이 약화했다는 인식의 확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국내 태권도가 아동 중심의 도장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인층의 참여 부재는 실전적 무예로서 역량을 상실하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은 귀담을 만다.

산업화 부문

스포츠의 산업화는 시대적 화두다. 스포츠가 인간의 행복 증진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한 만큼 경기력에만 매몰되던 시대는 지났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총아로 자리 잡은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도 융·복합 산업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태권도 역시 이제 수련생 1억 명이 넘는 큰 종목으로 성장했다. 수많은 수련생을 기반으로 삼아 이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묶어내는 태권도의 산업화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면 꽃피우기가 힘들다. 태권도가 산업화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장 정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태권도 시



장은 일단 그 정보가 미흡하다. 태권도의 산업화를 위해선 시장 정보 및 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국내에선 국기원 단종 소지자 데이터 정도를 제외하면 관련 정보가 취약하다. 전 세계 태권도 시장은 약 6조 원 규모며, 이 가운데 내수가 1조 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국내 태권도 산업은 중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영세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도장 중심의 시장 구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 산업에서 도장이 전체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구조의 탄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권도의 중심 산업이 도장과 용품에만 국한돼 있는 탓에, 확장력이 처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다.

태권도의 양적 도약에 매달렸던 제1차 성장기였다면, 질적 변화가 필요한 제2차 성장기는 태권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태권도계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가 태권도의 글로벌화에는 동참했어도 정작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태권도를 둘러싼 이 같은 환경은 잦은 단체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국내외 시장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한국의 태권도 산업은 영세한 시장 체계로 전략해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 태권도 용품 시장도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신기술 연구나 품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어졌다. 자연스레 태권도 용품 시장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인 기업이 선점하고 주도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의 산업화는 태권도 산업 생

태계를 떠받칠 수 있는 가치 사슬(Value Chain) 구축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가치 사슬이란 고객인 태권도인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 태권도의 산업화에선 가치 사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화 부문

태권도는 분명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1억 명이 넘는 수련 인구를 자랑하는 국제 스포츠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갇힌 태권도의 민낯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태권도는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얻어 내야 할 가치 획득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받는다. 태권도의 오너십과 로열티 등 실질적 기대 수익을 얻어 내지 못했다. 해외 진출 1세대 태권도 사범 대부분이 은퇴한 점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미 2세대를 지나 3세대까지 세대교체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서 현지 국민으로 바뀌는 추세다. 2세대까지 태권도는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경기 종목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적 실력 차가 없어지면서 중주국의 위상과 지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태권도의 평준화에 따라 굳이 한국인 스승 밑에서 태권도를 배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태권도의 올림픽 퇴출 위기도 세계화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본의 가라테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태권도는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가라테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마저 정식 종목에 선정된다면, 향후 태권도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다. 파리가 가라테의 강세 지역인 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가라테의 2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유사 종목인 태권도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태권도의 올림픽 퇴출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권도의 세계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적 핵심 사안이다. 최근 태권도 중주국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한국의 주도권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세계 태권도계에서 탈한국화 및 국기원 단종 독립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환경 변화의 대표적 움직임이다.

한국인이 주도해 온 WT도 집행위원의 절반이 외국인이며, 향후 회장으로 비한국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태권도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비한국인 총재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청맹과니의 좁은 식견에 다름 아니다. 만약 비한국인이 WT 총재에 오르면, 현재 정부가 그리고 있는 태권도의 '빅 피처'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게 뻔하다. 태권도의 진정한 세계화는 중주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외연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만 태권도가 문화 콘텐츠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태권도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태권도의 세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그동안 한국 태권도를 옥죄었던 두 가지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태권도 경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동안 태권도는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추문에 시달렸다. 태권도 주요 인사들이 횡령, 배임, 승부 조작, 성범죄 등 각종 범법 행위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게 사실이다. 해외에서도 태권도 지도자들과 연맹이 유사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빌미가 됐고, 태권도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KA**



태권도 국정 과제 정책안의 문제점과 대안

태권도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태권도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태권도의 양적 그리고 외형적 성장이 스포츠 태권도의 글로벌화에 의해 충족됐다면, 제2의 태권도 성장은 반드시 질적 변화를 수반해야 하며 그건 문화와 결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와 문화의 결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태권도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했다. 태권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

방법도 신선했다. 개별적 정책 과제 개발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과제를 찾아낸 것도 그동안 태권도 연구와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라 매우 흥미로웠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추세와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연구 또한 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고 이번 연구가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공청회와 실무 TF에서 제기된 날카로운 비판과 따듯한 조언은 태권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귀담아 들 게 많았다. 현실과 이론의 간극을 좁히는 치

열한 노력, 그게 바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할 태권도 국정 과제 정책의 성공 열쇠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태권도계의 위낙 방대한 문제점들을 백과사전식으로 끄집어낸 건 일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 문제는 제1차 TF 실무회의에서 지적됐다. 당시 류병관 용인대 태권도대학원장은 “매우 방대한 내용의 정책적 과제들을 혼란스럽게 나열했다. 각각의 주제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선별하는 게 필요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은 추상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실서 드러난 생동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결론을 도출했으면 추상성 높은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없다. 이번 연구는 현실에 기반했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구상한 당위성이 정책으로 표출된 측면이 강했다. 이번 연구가 구체성이 결여되고 추상성이 도드라졌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결정적 이유다.

따라서 수정 보완될 최종안에선 현실을 기반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취사선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현장성과 구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개발의 시각과 정책 대상의 치명적 오류

정책 개발이 공급자 처지에서 이뤄졌다는 치명적 약점도 노출됐다. 태권도를 소비하는 처지에서 이뤄진 정책 개발과 공급자 시각에서 이뤄진 정책은 정책의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선 큰 차이가 난다. 이번 연구가 공급자 시각에서 개발됐다는 점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한국의 정책 개발이 공급자 시각에서 제안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급자 시각에서 제안된 정책은 정책 효과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정책이란 무릇 소비자 처지에서 이뤄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자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번 연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동희 문체부 국제체육과 사무관은 “정책이란 무릇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하는데, 이번 연구는 태권도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 눈높이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태권도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은 균형 잡힌 정책이 되기 힘들다. 이 문제는 가장 뼈아픈 지적으로 향후 수정·보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손질해야 할 부분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전문 체육 태권도에 편중된 연구

태권도 문화 콘텐츠 정책 연구는 결국 생활 체육 태권도와 전문 체육 태권도가 합쳐진 새로운 생태계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이번에는 전문 태권도에 편중된 연구가 주를 이뤘다. 새로운 태권도 생태계를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생활 체육 태권도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귀담을 만하다. 전병국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이번 정책 연구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생활 체육 태권도와 전문 체육 태권도의 두 트랙이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 체육 태권도에 경도된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짚었다. 전 체육협력관은 특히 새로운 태권도 생태계에서 전국민이 태권도를 즐기는 생애 주기별 태권도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험과 통찰력이 엿보이는 정책적 아이디어로 큰 호평을 받았다.

태권도 중앙연구소, 또 다른 옥상옥?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태권도의 학문적 연구도 정책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태권도 연구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경기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태권도의 본질인 철학, 기법, 수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향후 태권도의 정체성 확보라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콘텐츠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총괄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로 묶어 내는 컨트롤 타워로 태권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주장에는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현재 국내에는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많다.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엄격히 말해서는 자율적 국제연맹(IF)이지만 세계태권도연맹까지 무려 4개 단체가 존재한다. 그 기능과 위상이 제각기 다르지만, 때로는 중첩된

기능으로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태권도 중앙연구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명품 도장 육성만이 답일까?

태권도의 활성화와 산업화를 성인 태권도 도장의 육성에서만 찾아야 할까?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해법에서 찾아선 안 된다는 게 체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물론 현재 태권도 도장 운영이 태권도인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탓도 있겠지만, 이 같은 접근은 태권도의 균형 잡힌 정책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태권도의 활성화는 일단 저변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한국 스포츠의 전통을 고려하는 게 옳다. 태권도의 저변 확장은 학교 스포츠에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학교 스포츠에 태권도를 도입시켜 저변을 넓히고, 이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방식에선 도장 육성 쪽으로 방향타를 트는 게 합리적이다.

이번 연구에선 학교 스포츠에 태권도를 편입시키기보다는 명품 도장을 육성해 도장 지도자를 학교로 파견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태권도인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학원 스포츠와 도장 육성의 두 트랙을 절묘하게 활용하는 묘수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도장을 운영하는 태권도인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올림픽 종목 유지의 두 가지 숙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다. 2016 리우 올림픽까지 올림픽 5회 연속 정식 종목에 채택된 태권도지만 아직도 맘을 놓을 수가 없다. 태권도가 올림픽 영구 종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흥미로운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태권도에 최적화한 미디어 기술 개발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태권도는 그동안 미디어 기술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퇴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관람형 태권도의 촬영 장비 개선과 그래픽 등 영상 처리 방법, 방송용 영상 편집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미디어 친화적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경기력을 위해서는 다이나믹한 경기 룰로 변신해야 한다. 최근 태권도는

태권도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끊임없는 개혁으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는 큰 변화를 단행했다. 과감한 경기 룰 변경은 합격점을 받았고, 팬도 재미있는 경기에 크게 호응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태권도가 미디어 친화적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선 결국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스폰서십이 절실한 이유다. 이번 연구에선 태권도의 안정적 올림픽 종목 잔류라는 중요한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올림픽 종목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미디어 친화 정책의 선결 과제인 자원 확보라는 정책 대안 역시 빠져 있다. 태권도의 글로벌 스폰서십의 확보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 틀을 깨는 과감한 도전

태권도를 산업화하는 현대적 시도는 태권도에 문화의 옷을 입혀 파급력이 큰 콘텐츠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태권도 동작과 기예를 논버벌 퍼포먼스로 보여 주는 방식은 한계를 노출했다. 기존 공연은 기능적 태권도 자세나 기예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태권도 문화 콘텐츠는 더욱 다채로워져야 할 것 같다. 기예의 태권도보다 정교하게 짜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오페라·마당극·영화 등으로 장르 변경을 시도해 볼직하다. ‘태양의 서커스’

는 9,500억 원 매출에 매년 5,000여 명의 일자를 창출하는 캐나다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다. 태권도는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는 무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이다.

그러나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선 태권도의 기능과 동작에 집착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권도 동작에 집착하기보다는 틀을 깨는 과감한 장르 도전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권도의 융·복합 사업은 태권도의 새로운 장르 도전과 무관하지 않다. 정보통신 기술(ICT) 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해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사물 인터넷(IoT), 인공 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융·복합 사업의 특성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지면서, 태권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도 가능하다. 태권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 정책 대안으로 부족함이 없다. 다만 이러한 첨단 기술을 총망라한 태권도의 융·복합 산업은 태권도의 넓어진 저변과 상징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지레 겁먹어서는 큰 열매를 딸 수 없다. 하얀 도화지에 채워야 할 건 그림이 아니라 꿈이다. 그래야만 태권도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KA**





남교부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에서, 변명균(한성고등학교·왼쪽)이 최문수(인평 자동차고등학교)를 돌려차기로 공격하고 있다.

제20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남녀 중·고 대회

박진감 넘친 멋진 승부, 20주년 의미 더욱 빛내

광주 오월 항쟁의 정신을 태권도인의 기개로 계승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학생과 시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창설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어느덧 약관의 나이를 맞이했다. 스무 해(해수 기준) 동안 참가한 선수들이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 데 힘입어, 이 대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태권도 대회이자 ‘오월 정신’을 기리는 대회로 성장했다. 20회를 맞아 의미를 더한 이번 대회에는 중·고교 총 1,978명(남중부 744명, 여중부 289명, 남고부 649명, 여고부 296명)이 출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광역시 빛고을체육관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전체중·봉의중, 울 3관왕 기염 토해

치열한 각축전 끝에 대전 체육중학교와 강원 봉의중학교가 각각 남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 체육중과 봉의중은 울 제주 평화기와 중고연맹 회장기에 이어 3개 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세를 뽐냈다. 대전 체육중은 이 대회 우수 선수로 뽑힌 신관철(라이트 웰터급)을 비롯해 김종명(밴텀급)과 배상렬(라이트 헤비급)이 금메달을 획득해 올 시즌 초강세를 이어 갔다. 대회 셋째 날까지 전북 체육중학교에 은메달 수에서 뒤져 수성이 어려울 듯했던 대전 체육중은 마지막 날 배상렬이 금을 추가해 역전 우승했다. 라이트 헤비급 결승전에서, 배상렬은 김영훈(문성중학교)

을 맞아 1회전서 10:2로 앞서 쉽게 경기를 풀어 가는 듯싶었다. 그러나 몸통 돌려차기 등 김영훈의 끈질긴 반격에 휘말려 3회전 종료 20여 초 전엔 오른발 몸돌려차기까지 허용하며 19:23까지 추격당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배상렬은 몸통 공격으로 추가점을 올려 28:19로 승리하며 팀에 멋진 역전 우승극을 선사했다. 마지막까지 대전 체육중과 자웅을 겨룬 전북 체육중이 준우승(금 2·은 1)을, 광양 중동중학교가 3위(금 1·동 1)를 각각 차지했다. 신관중학교와 원일중학교가 각각 감투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박순우 대전 체육중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여중부에선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봉의

중이 활짝 웃었다. 봉의중은 송가희가 페더급에서, 이도현이 라이트 미들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캐내고, 김예지가 밴텀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도현은 이 대회 개인전 3연패의 개가를 올리며 우수 선수상까지 휩쓸었다. 신관중이 2위(금 1·은 2)에, 지난해 우승팀 흥해중학교가 3위(금 1·은 1·동 1)에 각각 올랐다. 윤성하 봉의중 코치는 지도자상을 안았다.

남녀 고등부, 총성 없는 전쟁 치러

말 그대로 불꽃 튀는 각축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10체급 금메달이 열 개 학교에 돌아가는 등 고등부 수준이 평준

화됐다. 특정 학교에 금메달 쏠림 현상이 없어져 종합 우승을 위한 치열한 접전이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라고 평가했다. 한 치도 물러섬 없는 백병전에서, 한성고등학교와 대전 체육고등학교가 각기 광주 5·18 시장기를 가슴에 품었다.

한성고는 대회 우수 선수로 선정된 변명균을 앞세워 18년 만에 종합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에서, 변명균은 최문수(인평 자동차고등학교)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2회전 중반까지 9:9로 팽팽하던 경기는 3회전 중반에 승부가 갈렸다. 변명균은 정확한 몸통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시키며 점수 차를 벌려 나갔다. 변명균은 점수를 만회하려고 서두르는 최문수의 머리를 공략해 승부에 쐐기를 박고 최종 스코어 30:16으로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한성고는 이밖에도 이정일(핀급)이 은을, 조승규(웰터급)와 안범섭(미들급)이 각각 동을 수확해 종합 우승(금 1·은 1·동 2)을 차지했다.

막판까지 한성고와 접전을 펼친 충남 체육고가 동메달 수에서 밀려 종합 준우승에 머물렀다. 종합 3위엔 다사고등학교(금 1·동 1)가 이름을 올렸다. 안중고등학교와 경상공업고등학교가 각기 감투상과 장려상을 안았다. 윤창욱 한성고 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날까지 우승 향방이 안갯속에 휩쓸렸던 여고부에선, 대전 체육고가 한나연·박예은의 활약에 힘입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여고부 경량급 최강자로 평가받는 한나연은 추다인(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을 접전 끝에 6:5로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뒤 김나연(공주 영명고등학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15:6으로 쾌승하며 금을 땀다. 한나연은 우수 선수에 뽑혀 기쁨이 배가됐다. 플라이급 결승전에서, 몸통 공격을 앞세운 박예은은 금가는(평내고등학교)를 12:2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대전 체육고는 이밖에 나채림(라이트급)이 은을, 신하영(밴텀급)과 김혜원(페더급)이 동을 각기 더해 정상에서 승전(금 2·은 1·동 3)을 올렸다. 대전 체육고를 턱밀까지 바짝 추격했던 서울 체육고는 동메달 수에서 뒤져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김유진(페더급)과 장유진(라이트 미들급)이 금을, 홍지우(웰터급)가 은을 각각 획득했으나, 동이 없었다. 강원 체육고등학교는 서울 체육고와 금·은 메달 수가 같았지만 체급 다수에서 밀려 3위에 머물렀다.

효정고등학교와 울산 스포츠과학고 각각 감투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진만 대전 체육고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 던진 공연, 의미를 더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과 창설 2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에선, 뜻깊은 행사와 공연이 펼쳐져 다시 한 번 웃음을 여미게 했다. 먼저 대회 개막 하루 전인 5월 10일엔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KTA 임원과 상임 심판, 일부 참가 선수들이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오월 광주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태권도인의 기개로 계승해 나갈 것이라는 마음을 다졌다.”라고 밝혔다.

이튿날인 11일 오전 10시 빛고을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대회 개회식에선, 광주시태권도협회와 조선대 태권도학과의 협업 공연 ‘고추잠자리의 꿈’이 펼쳐져 체육관을 찾은 관중은 물

론 광주 시민에게 눈물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단란한 한 가족이 광주 민주화항쟁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는 계엄군 중대장으로 진압 작전에 나서고, 어머니는 민주화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괴로워하며 시위에 나서고, 여동생은 가족을 애타게 찾다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스토리를 담았다.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 70여 명,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 어린 무용수들이 열연하며 아울러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특히 어린 소녀의 죽음을 그리며 서예가 김기상 씨가 대형 화선지에 일필휘지로 ‘평화와 화합’을 써 내려가는 장면에서, 공연은 절정을 이뤘다.

공연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공연은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줬다. 한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아픈 역사를 평화와 화합의 이름으로 재조명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태권도 공연을 통해 선보여 광주 태권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KTA**



개회식에선, ‘고추잠자리의 꿈’이 특별 공연으로 펼쳐졌다.



5월 10일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맨 앞줄 오른쪽부터)을 비롯해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KTA 임원과 상임 심판, 일부 참가 선수들이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충남, 소년체전 47년 역사 첫 정상 올라 ... 대전, 준우승

남자 중학부 -69kg급 결승전에서, 충남 김민겸(청)이 경북 홍현우(홍)를 맞아 왼발 돌려차기로 득점하고 있다.



충남 충남도가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7년 역사에 첫 등정의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충주체육관에서 열린 소년체전 태권도 종목 경기에서, 충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고 정상에서 환호했다.

충남은 대회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며 선두로 뒤흔쳐나갔다. 이날 남자 초등부 -34kg급 임기준(덕명초)과 -46kg급 박태찬(천안 신용초), 남자 중학부 -65kg급 김지원(금천중)이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여자 초등부 -42kg급 김나경(덕명초)과 남자 중등부 -73kg급 현길수(천안 성정중)가 동메달을 보태 단숨에 시도 순위 선두로 나섰다.

임기준은 16강전에서 강원의 김건호를 16:3으로, 8강전에서 인천의 양원준을 31:12로, 준결승전에서 대전의 조재호를 11:4로 각각 꺾었다. 결승 상대는 서울의 김도현이었다. 경기 초반 팽팽한 접전을 이어 가던 임기준은 중반 이후 특유의 빠른 몸놀림을 활용해 몸통 공격을 연이어 적중시키면서 9:5로 충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박태찬은 16강전에서 대구의 박찬진에게 31:2(점수 차 승)로, 8강전에서 강원의 이호재에게 47:26(점수 차 승)으로, 준결승전에서 충북의 김홍민에게 21:9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무서운 공격력을 뽐냈다. 박태찬의 공격력은 결승전에서도 발휘됐다. 광주의 나정후를 맞아 박태찬은 앞치락뒤치락 공방을 주고받았다. 두

선수 모두 20점이 넘는 유효 득점을 올리는 치열한 각축전이었다. 결국 박태찬은 경기 종료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켜 25:23으로 2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김지원은 첫 경기인 16강전에서 세종의 장우석을 12:6으로, 8강전에서는 대구의 정명찬을 27:7(점수 차 승)로, 준결승전에서 인천의 정지우를 14:12로 각각 따돌렸다. 결승전에서, 김지원은 경남의 황제원을 맞아 10:10 동점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장전 끝낸 포인트 라운드에서 돌려차기로 선취점을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이틀째, 충남은 남자 중학부 -45kg급 안향식(천안 성정중)과 -69kg급 김민겸(당진중)

이 금메달을 추가하고, 남자 초등부 +58kg급 박춘석(추부초)이 은메달과 -38kg급 강태인(천안 신용초)이 각각 동메달을 보태 종합 우승 가시권에 들어섰다.

안향식은 16강전에서 광주의 서지훈을 9:1로, 8강전에서 세종의 서원상을 12:4로, 준결승전에서 부산의 한상윤을 4:2로 각기 눌렀다. 결승 상대는 울산의 임대원으로, 안향식은 오른발 돌려차기와 밀어차기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이용해 임대원을 압박했다. 안향식은 경기 중반 유효 공격을 연이어 적중시키면서 10:6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안았다.

김민겸은 16강전에서 경남의 하승빈에게 15:5로, 8강전에서 인천의 김현민에게 24:3(점수 차 승)으로, 준결승전에서 전북의 이윤희에게 10:8로 각각 승리했다. 결승전에서, 김민겸은 경북의 홍현우를 상대로 24:10의 10점 차로 여유 있게 승리하면서 충남에 마지막 금메달을 안겼다.

대회 마지막 날, 충남은 추가 금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여자 초등부 -50kg급 김난희(천안 신용초)가 은메달을 따내고, 남자 중등부 +77kg급 박도현(예산중)과 여자 중등부 -48kg급 표하원(천안 성정중)이 각기 동메달을 보태 종합

우승을 확정했다.

종합 준우승은 대전광역시에 돌아갔다.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거둬들인 대전은 금메달 한 개 차이로 아쉽게 종합 우승 타이틀을 충남에 내줬다.

대전은 마지막 날 뒷심을 발휘했다. 대회 이틀째까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중·상위권에 머물던 대전은 마지막 날 여자 초등부 -39kg급 이지희(대전 서원초)와 남자 중등부 -49kg급 김종명(대전체중), -61kg급 신광철(대전체중)이 금메달 세 개를 몰아치며 순식간에 종합 2위로 뛰어올랐다.

충남·대전이 좋은 결실 올린 배경은?

만년 중·하위권에 머물던 충남과 대전이 이번 충주 소년체전에서 종합 우승과 준우승의 좋은 성적은 낸 배경엔 과거에 비해 증가한 각종 지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우수 선수 지원금, 입상에 따른 포상금과 장학금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도자와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제공됨으로써 동기 부여가 명확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역 대회에 전국 대회와 동일한 조건의 전자 호구, 전자 헤드기어를 도입하고 경기 운

▶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시도별 메달 집계

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충남	5	2	5
대전	4	3	4
강원	4	2	5
경기	4	7	-
울산	3	6	5
서울	3	4	5
전북	3	1	3
광주	2	3	2
경북	2	2	7
부산	2	2	-
전남	1	3	5
경남	1	3	1
인천	1	1	5
충북	-	2	5
제주	-	2	4
대구	-	1	4
세종	-	-	1

영 방식도 전국 대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면서 선수가 전국 무대에서도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 충남 선수단을 이끈 김영근 총감독은 “투자한 만큼 성적이 나온 것 같다.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줬다. 학교 체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 태권도 경기력도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도내 대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 전자 호구와 전자 헤드기어를 도입해 운영했다. 또 대표 선수 선발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원을 늘려 도내 우수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이적하는 걸 방지했다. 특히 시군 지회와 임원이 (충남)협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수 발굴과 육성에 힘을 쏟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승인을 분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소년체전 전통의 강호 강원도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종합 3위에 머물렀다. 전년도 종합 우승팀인 서울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6위에, 준우승팀 경기도는 금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4위에 각기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남자 초등부 -50kg급 1위에 오른 경기도의 김태현(안양초)이, 여자 초등부 -33kg급 1위 서울 조희재(서울 신림초)가, 남자 중등부 -73kg급 1위 울산 서건우(동평중)가, 여자 중등부 -58kg급 1위 광주 김민경(천곡중)이 각각 선정됐다. **KA**



남자 중학부 -45kg 결승전에서, 충남 안향식(홍)이 울산 임대원(청)을 앞발 밀어차기로 공격하고 있다.



소년체전 47년 역사상 태권도 첫 종합 우승을 차지한 충청남도 선수단이 기쁨을 나누며 기념 촬영을 했다.

태권도 경계인, 포르투갈 정선용 사범

“ITF = 북한”이라는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지난 4월 21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열렸던 태권도 기네스 도전 행사에 참가했던 정선용 사범.

20 17년 8월 25일 서울 강남의 삼성호텔. 국기원 주최로 ‘태권도, 남북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다. 남북 태권도 교류, 태권도 단체의 구실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주어진 질문 시간, 한 노신사가 손을 들고 질문에 나섰다. 포르투갈에서 40년 넘게 태권도를 보급해 온 정선용 사범이었다. 상기된 듯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은 정 사범은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담을 밝혔다.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대립해 온 태권도 이야기였다. 그런데 말을 꺼낸 지 몇 분 되지 않아 그의 몸은 옆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응급 상황! 다행히 주변의 태권도 관계자들 중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심폐 소생술과 인공 호흡으로 절박한 위기를 넘겼고, 곧 이어 출동한 119구급대는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이날 오전에 병원까지 다녀온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태권도 교

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고, 흥분된 마음에 쓰러질 정도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왜 경계에서 고민해야 했을까? 태권도가 WT와 ITF로 나뉘기 이전, 정선용 사범은 ITF를 창설한 최홍희 총재(이하 당시 기준)가 주도한 월남 십자성 태권도 교관단 일원으로 1969년 월남에 파견돼 태권도를 지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 후 그는 1971년 ITF 파견 사범 자격으로 홍콩에서 3년간 태권도를 보급한 후, 1974년 포르투갈 무술위원회 초청으로 그곳에 건너가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다. 인접한 스페인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한인 태권도 사범이 진출한 점과 비교할 때, 그는 포르투갈 한인 사범으로 실질적으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에 태권도 사범 진출이 드물었던 것은 이 나라의 사회주의적 정책과 관련이 있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무술 도장에 대한

세금 및 규제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포르투갈에서는 개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지역 체육센터 등에서 클럽 형태로 태권도를 가르쳤다. 그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리스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가 포르투갈로 건너가기 1년 전인 1973년,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주도로 WTF가 창설됐다. ITF가 창설된 지 7년 후다. 이때부터 태권도는 WTF와 ITF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은 조직뿐만 아니라 기술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 태권도가 분열됨에 따라, 태권도 사범들도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군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음을 빗댄던 최 총재는 반박정희, 반한국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해외 태권도 사범들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WTF냐, ITF냐? 그도 이러한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른 사범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한국이 주도하는



정선용 사범이 한국에서 발간한 창현류 품새 교본.

WTF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을 포르투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한 인물이 바로 스승이나 닮았는 최 총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WTF를 선택했다. 최 총재를 선택한다는 건 고국과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세계가 서방과 동구권으로 나뉘어져 있던 냉전 시대였을뿐더러 남북한의 대립 또한 날카로웠던 시절이었다. 그는 WTF를 선택했지만, 일부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 총재의 애제자나 닮았는 정선용은 빨갱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다. 그 서러움이 삼성호텔 세미나장에서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수난을 겪은 태권도 사범이 그 혼자만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치열한 갈등의 경계선에서 직접 고민해야 했던 사범은 그리 많지 않다. WT와 국기원이 주도하는 주류 태권도계에서는 지워진 태권도의 역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시절이 바뀌어 남북 태권도의 화합과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감회가 없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WT와 ITF의 경계선에 있는 태권도인이다. 태권도가 통합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그는 WTF를 선택했지만, 일부 제자는 ITF에 남았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태권도는 WT뿐 아니라 ITF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 그는 최 총재가 인정한 ITF 해외 파견 사범이면서 국기원 공인 9단이다. 양쪽 모두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범 또한 찾기 어렵다. 그는 WT 품새뿐만 아니라 ITF 틀, 정확히 ITF 틀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기 이전의 최 총재의 아호를 딴 ‘창현류’ 태권도를 같이 가르친다. 창현류 태권도는 그와 비슷한 세대의 태권도인이라면 모두 배웠던 당시의 ‘품새’다. ITF 품새, 즉 틀에 ‘사인웨이브’라는 독특한 스타일이 추가되면서 변형되기 이전 모습이다. 사인웨이브를 제외한 동작은 창현류와 ITF 틀이 다르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현류 품새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의 태권도 품새만으로는 성인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태권도 전문가는 WT와 국기원의 공인 품새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라타는 물론이고 ITF에 비해서도 부족하다고 인정하기도 한다. WTF와 ITF의 교류 속에서 상징적 인물 지난해 여름 세미나장에서 쓰러지면서 많은 태권도인의 걱정을 샀던 정선용 사범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 그는 이제는 “그때 세미나장이 아니라 길에서 쓰러졌더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웃을 정도다. 그는 한국과 포르투갈을 1년에 한두 차례씩 오간다. 날이 추운 겨울에는 포르투갈에서 보내고,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는 가끔씩 한국을 다녀간다. 올 봄에도 한국을 찾았던 그는 마침 지난 4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열렸던 태권도 8,000명 기네스북 도전 행사에도 참가해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고국 방문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숙원이던 한 가지 목표를 이뤘다. 창현류 틀 교본을

한국어로 펴낸 「태권도 형-틀(한영미디어)」이 그것이다. 이미 포르투갈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며 만들었지만 한국어판은 없었는데, 이번에 번역해서 새롭게 출판하면서 국내에 ITF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창현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책에는 천지, 단군, 도산, 원효, 율곡, 중근, 퇴계, 화랑, 충무 등 한국의 역사와 위인들에서 따온 ITF의 유급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말한다. “ITF가 북한 태권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ITF는 1966년 3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태권도 세계화를 처음 시작한 기구도 바로 ITF고, 그 사범들 중 많은 사람이 WT에 소속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ITF는 결코 북한 태권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원로 중에는 ITF의 원형인 창현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창현류는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ITF에 대한 관심과 함께 ITF 원형인 창현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인은 생각보다 많다. 이번 방문 기간에도 국내의 몇몇 대학에서는 그를 초청해서 창현류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직접 지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우리 태권도였던 창현류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인 미겔 정은 현재 리스본에 있는 그의 도장에서 실질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사범이기도 하다. 태권도는 전 세계 어떠한 무술과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최근 WT와 북한이 주도하는 ITF가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18년 5월 현재, 남한과 북한은 사상 유래가 없는 남북한 관계의 훈풍을 맞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격의 없이 만나고 있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 가고 있다. 태권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까? WT와 ITF로 나뉘어 있는 태권도에도 역사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선용 사범은 이러한 변화에서 상징적 인물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KFA**



서울시태권도협회 주 수입원인 승품·단 심사 모습.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격랑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도약을 위한 휘파람을 불다

창설과 질곡의 발자취

1961년 KTA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가 창설되면서, 각 지방에 시도협회가 생겼다. 하지만 서울엔 태권도를 대표하는 협회가 1970년대 후반까지 없었다. 서울시체육회가 각 경기 단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1979년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면서 바뀌었다. 박 회장은 서울시체육회 산하에도 각 경기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주장은 1980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창설되는 토대가 됐다. 초대 회장은 엄윤규 KTA 상근 부회장이었다. 엄 회장은 1980년 KTA가 선발하던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 선수를 서울시협회가 직접 선발해 전국체전에 출전시키도록 했다. 1980~1990년대 중반, 서울시협회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태권도가 대중화됐고 경제 성장과 발맞춰 서울 각 구에 태권도장이 급속히 늘어났다. 서울시협회 집행부의 정치적 역량도 커졌다. 그러나 부정 비리와 집행부 내부의 파벌 싸움이 서울시협회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목소리가 커진 각 구지부는 심사 집행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곳곳에서 권력 독점과 조직 사유화를 반대하는 개혁과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이런 요구와 2016년 국내 체육계에 불어닥친 '스포츠 4대악 척결'이 맞물리면서, 서울시협회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해 6월 서울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 단체 지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시협회 전·현직 임직원 9명이 태권도 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되자,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11조와 회원 종목 단체 규정 제36조 "승부

조작과 단체 운영 관련 범죄 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관리 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의거해 서울시체육회에 관리 단체 지정을 요청했다. 이로써 서울시협회는 발족 36년 만에 집행부가 해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관리 단체 11개월 만에 마감... 최진규 회장 시대 개막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시협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선거인단 확대와 직선제 등 선거 방식을 놓고 각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드디어 5월 24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13대 서울시협회 회장 선거가 열렸다. 총 148명의 선거인단 중 14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기호 5번 최진규 후보가 58표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가볍게 제치고 당선됐다. 최 회장은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성북구지부 회장직을 세 차례 역임했다. 이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선거 운동 기간에 '민초 관장'을 내세우며 구지부 심사권 보장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회장은 당선 직후 "과거 서울시협회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협회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태권도의 뿌리는 도장이다. 민초 관장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관리 단체 기간에 주요 수입원인 심사권을 집행하지 못해 재정이 악화됐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1억여 원에 달해 수개월 임금 체불에 시달렸다. 서울시체육회의 임원 인준도 예상보다 더뎠고, 서울시협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했다. 이처럼 정상화로 가는 길은 멀었으나, 최 회장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국기원과 승품·단 심사 위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심사 수익 적립금을 KTA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가 일었다. 일부 회원이 주 수입원이 심사비인데 최 회장이 공약을 어기고 측근을 중용해 임원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임원비와 관련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자신의 소신을 설명했다. "회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도 있다. 예전에 비하면 임원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예를 들어 부회장이 4명인데, 그분들이 월정액으로 받아 가는 게 없다. 일한 만큼 '일비'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비가 많이 지급된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도 어쨌든 상식선에서 임원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심사 적립금 되찾아 협회 운영 정상화 토대 마련

서울시협회 집행부와 회원들은 바닥난 재정을 회복하고 사무국과 기술위원회 조직을 정상화 하려고 관리 단체 시절 KTA가 대항해 적립해 놓은 심사비를 되받아오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KTA는 관리 단체 지정을 근거로 2016년 8월부터 서울시협회가 집행하던 심사 권한을 회수해 1년 5개월 동안 집행해 왔다. 2018년 2월, 60여 명의 서울시협회 임원과 회원은 KTA를 방문해 KTA가 직접 심사를 집행하고 남은 심사 수익금 13억여 원을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마침내 지난 5월 18일 열린 KTA 1차 이사회는 서울시협회가 선(先)조치를 이행할 경우 심사 관리위원회 비용과 임대비 등 잔여 금액을 정산 공제한 후 '특별 지원금' 형태로 약 13억 원을 서울시협회에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협회는 심사 적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자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어 KTA에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된 금액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협회가 책임을 진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협회는 특별 지원금 형태로 심사 적립금을 받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최 회장은 5월 23일 "곧 열리는 이사회에서 가결이 되면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회처럼 똑같이 의결 행위를 한 후 공증을 거쳐서 KTA에 제출하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라고 밝혔다.

도장지원특별위원회 출범 등 대내외 활동과 사업 추진

올 4월 30일, 새 집행부는 서울 지역 태권도장을 지원하기 위한 도장지원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날 최 회장은 1개월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 5월 충주 소년 체전을 찾은 최진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가운데)과 집행부 임직원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공식 출범한 도장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일선 회원 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별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각 위원들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높여 공동 위원 체제로 도장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날 1차 회의에선, 서울시 회원 도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서울 지역 도장 현황, 지도자의 인식, 지원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시협회는 올해 2,000만 원으로 도장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지만, 내년엔 예산 규모도 늘리고 전문가 위주로 역량 있는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김태안 사무국장은 “(올해도) 전

문성 있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시기에 서울시협회는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혜원)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2018 김운용컵 국제 오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두 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손을 맞잡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회 홍보와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간의 지원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구지부 지원과 활성화 방안

최진규 회장은 성북구 구지부 수장 출신이다. 따라서 구지부의 어려운 실정과 활성화의 필요

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5월 회장으로 출마할 당시 구지부 심사에 개입하고 않고 구지부에 심사권을 돌려주겠다고 공약한 것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왔다. 최 회장은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도 구지부 간담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협회가 정상화되면 구지부에 특별 행정 보조금을 빨리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또 구지부 회장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과 관련해 “서울시협회가 구지부 회장 선거에 관여하면, 구지부 회장에 선출된 분들이 당연히 대의원이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 와서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한다. 절대로 구지부 회장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KTA**

INTERVIEW

최진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회원들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만난 최진규 회장은 “회원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서울시협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제13대 수장으로 선출된 지 1년이 된 소감에 대해선 “만감이 교차한다. 바쁘게 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는지 몰랐다. 서울시협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현재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집무실엔 그가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알림판 형식으로 걸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회원과 함께 개혁위원회 설치 △ 행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시행 △ 구지부 심사 무개입 △ 회원 복지 정책 실현 △ 각종 대회 육성 발전 △ 구지부 회장 선거 관여 안 함 △ 회장과 임원은 봉사 등이다.

회장직을 수행한 지 1년이 됐다. 소회가 궁금하다.
“만감이 교차한다. 정신없이 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1년 동안 협회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서운해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모두 귀담아들었다. 회원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기초를 다졌으니까 잘하려고 노력하겠다.”

주력 사업인 회원 등록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회원 등록제는 수련생이 일선 태권도장에 등록하는 순간 회원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타 무술이 국가원 심사에 응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련생이 도장에 입관한 후 응심하는 기간이 타 무술보다 너무 짧아 태권도 기량을 향상시키고 장기 수련생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 제도는 서울시협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협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시협회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면 국기원과 KTA가 지원해 줬으면 한다.”

공약 중에 구지부에 심사권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구지부에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행정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구지부에 심사권을 돌려주는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회원이 1,300여 명이다. 회원을 위한 복지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협회 살림살이가 충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회원을 위한 복지 추진이 가능하다. 복지 정책은 한 번 만들고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기본적 틀을 준비하고 있다.”

KTA로부터 심사 적립금을 특별 지원금 형태로 약 13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서울시협회가 이를 위한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KTA의 주문 사항이다. KTA 이사회에서 서울시협회가 법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미 서울시협회 이사회를 소집해 놓았다.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사회처럼 똑같이 의결 행위를 한 후 공증을 거쳐서 KTA에 제출하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특별 지원금 형태로 돌려받은 13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현재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기 때문에 직원 급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구지부에 줄 특별 행정 보조금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리 단체 영향으로 남아 있는 채무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서울시협회는 아직 정상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화로 가는 길에서 구지부 회장들이 인내해 줬다. 현재 구지부 살림이 많이 열악하다고 들었다. 앞으로 간담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구지부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장 임기가 3년 남았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회장직을 수행하려는 지 밝혔으면 한다.

“행정과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무국 구조를 직원과 마찰 없이 공유하면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확충돼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에 100주년 되는 전국 체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협회는 서울에서 태권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 한혜진 무카스 미디어 편집장 사진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제공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미래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전념

지난 4월 말 중고연맹 회장기 대회 개회식에서, 최창신 KTA 회장(앞줄 가운데)과 이철주 중고연맹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태권도 중추국 대한민국은 한때 각종 국제 대회 우승을 독식했다. 풍부한 선수 공급과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 덕이었다. 그 전성시대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서서히 저물고 있다. 후발 주자인 이란을 시작으로 중국·태국·멕시코·미국·러시아·터키·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국을 위협한다. 심지어 특정 체급은 한국을 뛰어넘었을 지경이다.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선수가 국제 대회에 출전하면 ‘야유’를 받았고, 외국 선수단으로부터는 집중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잘 뛰어도 야유는 없다. 한 대표팀 지도자는 “야유가 그림자.”라고 할 정도다. 이제는

잘하면 격려의 박수를 받는다. 더는 한국이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다. 태권도는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그렇지만 한국의 메달 독식을 막기 위해 남녀 4체급 중 최대 절반만 출전하게 했다. 그런데 2016 히우 지(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부터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전 체급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세계 대회 우승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렵다.”, “나가면 메달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다.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과 김태훈(수원시청) 등 세계적 간판선수가 버티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 대회에서 한국은 위기의 연속이다. 경쟁국이 유소년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단계적으

로 체계를 갖춰 우수 선수를 발굴해 육성한 결과다. **위기의 한국 태권도? 비 온 뒤 땅 굳는다!** 한국 태권도가 2020 도쿄 올림픽을 비롯해 그 뒤에 증가다운 강국의 위치를 지키려면 청소년 육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이하 중고연맹·회장 이철주)의 소임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4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막을 내린 2018 WT(세계태권도연맹)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남녀 동반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1999 제1회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부터 절대 강세를 보였던 한국이 남녀 모두 우승을 놓

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는 막강 실력을 과시한 이란에 우승을 내줬고, 여자는 종합 3위에 그쳤다. 우리 청소년이 못해서라기보다 상대국 선수들의 실력이 더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 보인다. 그들은 신장과 체력과 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섰다. 시시각각 바뀌는 룰에 빠르게 적응하는 외국 선수들에 비해 제자리걸음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로서는 경쟁이 쉽지 않아 보였다. 외국팀 성장 비결은 신장과 체격도 좋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를 소수 정예로 집중 육성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게 한 데 있다. 반면 한국은 선수층이 두껍다 보니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 기술이 경험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점과 맞닿는 대목이다. 다행인 점은 이 위기를 중고연맹도 예의 주시하며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 신경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위기를 맞은 상

황이지만, 닛 놓고 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깊이 깨닫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꿈나무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중고연맹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튀니지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유스 올림픽에 이어 이 대회에 나갈 선수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시차를 두고 함께 파견했다. 일찌감치 유스 올림픽 선발전이 끝난 선수단도 마지막까지 남도록 했다. 적지 않은 체재비가 들지만 선수들에게 더 많은 국제 경기를 보여 주고, 추억이 될 선수들이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세대원 중고연맹 실무 이사는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으레 정상을 밟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대로 도전하는 처지가 됐다. 외국 선수들은 신체 조건만 좋은 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매우 뛰어나다. 이제는 배워야 한다. 선수뿐만 아

니라 지도자와 연맹 스태프도 함께 공부하고 느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실무 이사는 아울러 “많은 예산이 든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안 할 수 없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청소년 상비군 제도와 훈련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뿐더러 한국을 찾는 외국 선수단과 잦은 합동 훈련을 치를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국가대표와 같이 훈련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철주 회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우리 중고연맹은 위기는 있으나 더욱 단단하게 재성장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중고연맹이 키운 선수들, 2020 도쿄 올림픽서 활약 기대대
한국 태권도가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았긴 해도, 희망은 있다. 중고연맹 등록 선수가 이미 차세대 한국 간판스타의 주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철주 중고연맹 회장(왼쪽)이 2018 WT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때 고등부에서 국가대표가 탄생하면 “고교생이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고교생 국가대표가 등장했다.” 등 큰 이슈가 됐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교생 이변’이나 ‘고교생 돌풍’의 수식어가 필요 없다. 실력과 경쟁력으로 당당히 대학과 실업 선배를 상대로 최강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올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다. 2018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결과, 남녀 16체급 중 고등부에서 4체급의 태극 마크를 확보했다. 남자는 -58kg급 장준(홍성고), 여자는 -46kg급 이예지(홍해공고), -49kg급 강보라(성주여고), -57kg급 김민선(서울체고) 등이 선발돼 지난 5월 말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특히 이 중에 장준과 강보라는 주목해야 할 선수다. 차세대 남녀 경량급 대표 주자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58kg급 김태훈(수원시청)과 -49kg

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를 위협하거나 넘어섰기 때문이다. 강보라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2016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소희를 압도하며 첫 성인부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그 기세로 오는 8월에 열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까지 선발돼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준은 전 세계 태권도 별들만 초청되는 2017-2018 우시(無錫) 그랜드슬램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결승에까지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마지막 한판에서, 이 체급 랭킹 1위 김태훈과 맞서 경험 부족으로 지긴 했어도 값진 은메달을 수확하며 차세대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두 기대주는 현재 기대만큼 폭풍 성장 중이다. 호치민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 선수권대회(WT G4 등급)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보라는 16강전에서 올림픽 랭킹 1위 태국

의 장신 페니팍 옹파타나키트를 꺾은 상승세를 살려 성인 무대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장준 역시 강호 선수를 잇달아 제압하며 우승했다. 강보라의 친동생 강미르(성주여중) 역시 차세대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9일 튀니지 Hammamet에서 열린 2018 WT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여자 42kg급에 출전해 전 경기를 20점 차이 상 ‘점수차 승’으로 이기며 우승했다. 이 대회 여자 MVP에 선정됐을 정도다. 강미르는 앞서 유스 올림픽 세계 선발전에서 준우승해 오는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에 출전한다. 한편, 현재 한국 태권도 간판스타인 이대훈, 김태훈, 이아름(고양시청)도 고교 시절부터 괄목할 만한 기량을 펼치며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 

INTERVIEW

이철주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태권도 산실 동성고 감독 및 체육 교사 출신

차세대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을 책임지는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은 경기인 출신 이철주 회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너와 나,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훌륭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 시절 무패 신화 등 15년 동안 선수로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던 그는 은퇴 후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태권도 명문고인 동성고등학교 체육 교사와 태권도부 감독을 31년간 역임했다. 덕분에 태권도 현장을 이해하는 데 밝다. 그는 선수와 지도자 질적 성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2012년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과 없이 무사히 4년 임기를 마친 후 2016년에도 재직 지원을 앞세운 두 명의 후보와 벌인 경쟁에서 권익 신장과 질적 성장 등 내실화로 재선에 성공해 2020년까지 회장직을 수행케 됐다. 그는 2016 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자호구 성능시험 감시위원회 구성, 대회장 보조 워밍업장, TV 설치, 도핑 교육, 마우스피스 소독기 설치, 대회 개최 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일정 조정, 인적 자원 해외 교류 추진 등 현장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도 선수의 건강을 위해 위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치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우스피스 착용이 의무화



돼 있는데,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우스피스 자외선 소독기를 경기장에 설치했다. 하루에 수차례 경기를 거듭하면서 가장 깨끗해야 할 입에 소독이 안 된 마우스피스를 착용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최우선으로 소독기를 도입했다. 이어 올 4월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중고 태권도연맹회장배 품새대회부터는 소독 발판을 도입했다. 이는 품새 선수들이 맨발로 경기장 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비위생적 상태에서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장 자체가 오염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경기장 입구에서 물티슈로 닦고 이후 2차로 발 소독 매트를 사용케 했다. 단기적 실력 향상보다는 경기인과 지도자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기력 향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유망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뒤에서 끊임없이 지원하려 한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들 이에 걸맞게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고연맹이 한국 태권도의 튼튼한 바닥이 되어 높은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유망주를 많이 발굴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태권도 수련은 등산과 비슷하다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이지만, 곧 희열이 된다
5월의 할라산 뒷세오름길
오른쪽 봉우리가 할라산 정상 남벽이다

태권도 수련의 최종 종착역은 인격의 완성

●● 평화를 염원하는 길이 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이다. 김포시 대명항에서 출발해 고양시, 파주시를 거쳐 연천군 역고드름까지 장장 191km에 달하는 코스다.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끼고 돌며, 황희 정승과 울곡 선생의 유적지도 만난다. 한강, 임진강 너머 북한도 보인다. 12코스로 된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강원도와 경계지인 연천군 신탄리역 인근 역고드름에서 멈추지만, 강원도가 이어받아 13코스를 만들고 있다. 영하 17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겨울, 그 길을 걸으면서도 마냥 행복했었다. 어떤 길은 신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로부터 예수의 12사도 중 한명인 야곱의 시신이 안치된 스페인 북서부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무려 800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무려 11세기 동안 이 길을 오간 순례자들로 인해 산티아고 순례길은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여정이 됐다. 평화누리길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길이다. 한자로는 로(路), 영어로는 로드(road) 짬 된다. 동서양 문화 및 경제교류에 한 몫 했던 실크로드, 로마제국이 로마와 유럽 전역을 연

결한 길, 칭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에 구축한 역참 시스템도 이같은 현실 속 길이다. 하지만 길에는 다른 의미의 길도 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무술이나 기예 따위를 행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다. 이것에는 길 도(道) 자를 붙여야 할 것 같다. 길이 추상화, 관념화되면 철학이 된다. 태권도(跆拳道)가 바로 이곳에 있다. 태권도 수련은 깊은 바다와 같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도 끝이 없는 하늘과 같다. 시작은 있되 끝은 없다. 그 끝의 경지는 고매한 철학이 돼 인격으로 완성된다. 태권도 수련도 이것과 같다. **KIA**

봄바람 꽃바람과 함께 수련하는 즐거움을 마다하라

“꽃바람이 들었습니다

꽃잎처럼 가벼워져서 걸어요

(...)

봄이 나를 데리고 바람처럼 돌아다니요

나는, 새가 되어 날아요

꽃잎이 되어, 바람이 되어

(...)

-김용택 '봄봄봄 그리고 봄'

● 푸른 5월, 서울 한강에도 꽃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다. 서울 정훈태권도장 수련생들이 한강으로 ‘나들이 수련’을 하러 나왔다. 수련생들도 꽃바람이 되어 한강을 날고 싶었으리라. 모처럼 실내 도장을 벗어나 봄바람과 꽃바람을 만끽하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정훈태권도장 수련생들. 그중에서 군계일학(群鷄一鶴)은 김도은 수련생(초등 4학년2품). 발차기는 언제 봐도 날렵하고 멋있다. 수련은 인격기술·학문 따위를 닦는 것을 말한다. 무도적 측면에서 수련의 핵심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흔히 수련은 수행(修行)과 수양(修養)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불교에선 ‘심신일여(心身一如)’라고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각 도장에서 모서수련(冒暑修鍊)과 모한수련(冒寒修鍊)을 했다. 가장 무더운 날(한여름)과 가장 추운 날(한겨울)을 택해 산이나 강으로 나가 태권도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닦았다. 요즘 운동선수들이 주로 하는 하계 강화 훈련과 동계 강화 훈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수련과 훈련은 그 의미가 다르다. 무도는 반복적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고, 훈련은 트레이닝을 통해 경기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 속에 단련이 있다. 단련은 금속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육과 체육의 방법으로 전용되어 신체의 일부분을 강하게 무기화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손, 주먹, 발 등 그 밖의 신체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굳은살이 생기도록 하여 파괴력을 강화한 후 속도나 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류병관 용인대 태권도학과 교수는 “전통적 수련법에서 신체 발달과 정신 수련 모두가 단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었다. 이것은 결국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이원적 모습이 아니라 몸이 곧 마음 이요 마음이 곧 몸이며, 수련의 실체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와 세계태권도연맹(WTF) 창설

태권도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첫 발걸음은 1972년 12월 8일 국기원 건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한 김운용 회장은 태권도 세계화, 국기화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태권도의 뿌리인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태권도 보급을 맡고, 협회 중앙도장개념으로 출범한 국기원은 협회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태권도의 세계적 상징으로서 제국을 다하도록 역할 분담을 했다. 중앙도장이라 명명한 것은 난립된 각 관의 통합명칭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이 인정한 '국기 태권도'를 세계화하려는 의지가 이미 담겨 있는 셈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엄격한 승단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사범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에 중점을 뒀다. 태권도 품새, 경기 규칙, 호구, 도복 등을 새로 개발해 전 세계에 내놓으면서 세계 태권도의 산실 역할을 했다. 세계화, 현대화를 위해 취해야 할 다음 수순은 마땅히 국제기구인 세계연맹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각국에 태권도를 전파해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태권도협회를 진입시키는 일이 주된 구실이었다. 가라테, 우슈 등 유사 동양 무도와 비교해 세계화에 한발 뒤진 태권도였지만 이들 3개 단체가 삼위일체가 되면 태권도의 현대화,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국기원이 건립된 뒤 태권도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국기원 개원식을 내빈들만 초청해 맛있게 하는 것 보다 세계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대한태권도협회 내에서 개진됐다. 세계 대회를 치르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한 데 모으기도 쉬울 뿐 더러 여세를 몰아 일사천리로 국제기구를 결성할 수 있게 되는 전략상 잇점도 있었다. 국기원 준공식에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사범이 파견돼 있는 40여 개국 외국팀을 초청해 세계태권도선수

권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엄운규의 회고. “나와 이종우는 김운용 회장이 마련해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일본을 경유해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활동중인 한인 사범들을 찾아가 세계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를 유도했다. 그때 한인 사범들에게 한 말은 대회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는 한국이 부담하고 한국 체재비는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3년 5월 25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문교부와 문화공보부가 후원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6개국 20개팀 161명의 선수

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개막됐다. 서독에서 서윤남, 프랑스 이관영, 필리핀 홍성천, 멕시코 문대원, 미국 민경호 등 한인 사범들이 팀을 이끌고 참가했다. 대회는 오픈 대회로 열려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다 많은 국가의 팀을 출전시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따라 해외 사범이 많이 진출했던 미국은 중부, 동부, 서부지역에서 한 팀씩 3팀이 출전했다. 첫 대회라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 미처 국제화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 경기 규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주먹으로 허용 부위가 아닌 얼굴을 가격하는 선수도 있었다. 호구

를 처음 착용해본 선수도 나올 정도였다. 오후 2시 열린 개막식은 성조기를 치켜든 미국 중부팀 코치를 선두로 각국 선수단이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며 시작됐다. 엄운규 협회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대회장인 김운용 협회장의 역사적인 개회사가 있었다. 개회사에서 김 회장은 “열망하던 세계선수권대회를 태권도 중주국 한국의 국기원에서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니만큼 준비나 진행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나 우리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우리 스스로가 룰을 만들어 세계의 스포츠로 승화시켜 국제대회를 연다는 데에 깊은 의의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택식 서울시장과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태권도 정신으로 각국간의 이해와 우정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는 요지의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의 김정태 선수가 선수들을 대표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선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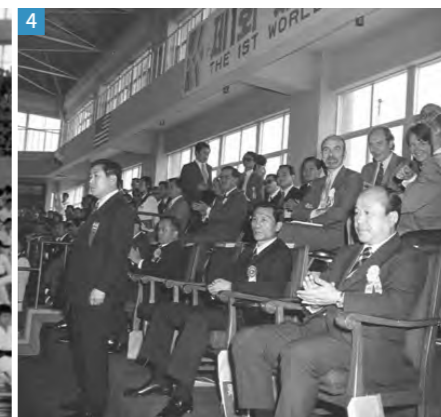
대회가 열린 3일 동안 역사적인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몰려든 관중으로 국기원은 초만원이 됐다. 최대 수용인원 3,000석이 모두 관중들이 메워져 입장을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1회 대회는 한국이 단체전과 개인전 경-중량급 우승을 모조리 휩쓸어 중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대회 마지막 날 단체전에서 한국은 미국 동부팀을 3대 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개인전 경량급 이기형은 서독 사베로를, 중량급 김정태는 미국 동부팀 워렌을 각각 판정으로 꺾고 1회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해외 선수의 경우 기량면에서 한국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유한 경우도 있어 향후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의 순탄치 않을 전망

을 예고했다. 이처럼 태권도 세계화의 첫발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고 손조름게 마무리됐다. 이 대회는 1976년 박대통령컵정찰 국제축구대회나 197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보다 앞서 한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계대회로 한국 스포츠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또 태권도의 세계화 추진에 역사적 시발점이 됐고 향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향한 주춧돌이 됐다. 김운용 회장은 대회를 마친 뒤 가진 본 『태권도』 지와의 인터뷰에서 1회 세계선수권대회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벽안의 태권도 가족이 중주국에 와서 새로운 신비감과 기술의 무한성을 재인식했다는 평범한 사실보다도 과거 무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태권도를 세계의 스포츠로 발전시키는 정치작업을 끝내고 이제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창설, 지구촌 스포츠로

세계태권도연맹 창설은 국제기구로서 세계의 다른 종목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이미 국제무대에는 가라테, 우슈 등 유사 무술들이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고, 1966년 서울에서 창설된 국제태권도연맹(ITF)도 1972년 창설자 최홍희의 캐나다 이민으로 해외 활동이 활발했다. 1회 세계대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1973년 5월 28일 국기원에서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을 포함한 17개국 35명의 대표가 참석해 WTF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문교부는 단중 남빛 및 매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ITF를 1973년 4월 17일자로 해체 조치하면서 WTF 창설에 힘을 실어줬다. ITF는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와 불화가 잦았고, 국제 스포츠

- 1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알리는 대형 아치가 서울 시내에 세워졌다.
- 2 국기원에서 열린 제1회 대회 개막식.
- 3 제1회 대회 개막을 축하하는 어린이 시범단원들.
- 4 제1회 대회 개막식 귀빈석. 왼쪽 서 있는 이가 김운용 회장.
- 5 초창기 국기원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회 모습.



포츠기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데다 점차 최홍희 총재의 사조직화된다는 점이 끊임 없이 지적돼 왔었다.

창립 총회 참가국은 한국, 프랑스, 우간다, 콜롬비아, 서독,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필리핀, 홍콩, 자유중국(대만), 크메르, 미국, 아이보리코스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7개국이다. 총회는 김운용 회장을 4년 임기의 초대 총재로 선출하고 세계선수권대회를 매 2년마다 열기로 했다. 집행부 주요 인사로는 사무총장 이종우, 기술위원장 현우영이었다. 세계연맹은 이후 부총재에 로렌드 데마르크(미국), 레오 바그너(서독) 등을 선임해 부총재 3명과 사무총장 1명, 실행위원 14명으로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당시를 회고한 엄운규의 구술. “제가 세계연맹 부총재가 됐고, 이종우씨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지. 저희들의 역할은 기술적인 문제, 그것을 전 세계에 보급시키는 것과 중주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어. 2년에 한 번 총회를 하는데 우리들이 앞장 서 가지고 중주국이 주도권을 지키기 않으면 안됐어. 조금만 소홀하면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세계연맹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곤 했지. 이런 비화는 아무도 몰라.” 당시 통과된 주요 연맹 규약을 보면 태권도가 고유한 한국문화의 소산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사무국은 서울에 두되 총재가 사무국 소재국과 국적이 다른 자로 선출된 경우 5분 4의 결의를 얻어 사무국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공용어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5개국어로 하고 태권도 기술상의 문제인 경우 한국어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회원국은 모든 회의에서 자국어로 발언할 수 있되 통역은 원칙적으로 공용 5개국어로 했다.

▶ 제1회 세계 선수권대회 참가국 및 인솔 한인 사범

국가	이름	국가	이름	국가	이름
독일	서윤남	자유중국	노효영	멕시코	문대원
우간다	김남식	말레이시아	양우엽	크메르	최정혁, 김시중
프랑스	이관영	오스트리아	이경명	싱가포르	이성수
필리핀	홍성천	아이보리코스트	김영태	콜롬비아	-
홍콩	-	브루나이	-		
미국 (동부, 중부, 서부) 3개 팀	민경호, 전인문, 재황, 강영구, 김일희, 김대현				

규약은 놀랍게도 향후 올림픽 종목 채택을 감안한 규정도 삽입했다. 아마추어, 프로 경기를 적극 장려하고 창자 올림픽 종목이 됐을 때 아마추어, 프로를 완전 구분한다는 조항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올림픽에 프로선수들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가정한 조항이지만 WTF 창설 당시 이미 올림픽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WTF 창설은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ITF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다. 나아가 국제스포츠로서 태권도 세계화를 추진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시 말해 WTF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협회는 향후 해외 지부 설치와 사범 파견, 단종 문제와 기술 통일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일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김운용 회장은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 개최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힘으로써 국제 스포츠계로 본격 진출할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태권도, 본격적인 국제화 시동

태권도는 1973년 세계연맹창설을 계기로 세계화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김운용 협회장

이 국기원장과 세계연맹총재를 겸하면서 태권도계의 일사불란한 행정과 명령체계를 구축했다. 1975년 태권도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은 태권도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세계 스포츠는 올림픽을 관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각 종목 국제연맹의 통합기구인 GAISF,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총체인 ANOC가 주도하고 있다. 종목별 국제연맹이 인정을 받으려면 GAISF에 가입하는 게 첫 단계였다. 당시 국제화에 앞서가던 가라데, 유수가 GAISF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태권도는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인을 받음과 동시에 향후 올림픽 종목 진입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떼었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대회 개최 및 세계연맹 창설 공식은 이후 각 대륙별 연맹체 구축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1976년 제1회 유럽선수권대회 개최와 유럽연맹 창설에 이어 1978년 아시아연맹 창설, 1979년 제1회 아프리카선수권대회 개최와 아프리카 연맹 창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쇄적인 대륙별 대회와 연맹 창설은 세계화란 큰 그림을 그린 뒤 이를 묵묵히 실천해온 김운용 회장의 행정력과 엄운규, 이종우 등 원로 태권도인들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KA



6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단체전 시상식 장면. 오른쪽 시상자는 김운용 회장. 7 제1회 대회 개인전 시상식 장면.

1960년대 초 사용한 ‘방구대타(防具對打)’ 호구

1960년대 초 태권도가 겨루기 중심으로 경기화가 시작될 무렵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몸통보호대(호구)가 등장했다. 1962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수들은 각자가 직접 제작한 호구를 가지고 참가했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 최초의 호구이다.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경기방식인 직접 타격이 가능하게 됐다. 선수들도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껏 타격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몸통보호대는 1962년 10월 대구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범 종목에서 사용됐다. 당시 대나무 조각을 얇게 다듬어 광목에 솜으로 감싸서 꿰맸는데, 선수들이 타격을 하다가 손과 발을 다치기도 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호구는 일본 검도의 영향을 받은 호구였다. 1961년 5월 12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전주팀(지도관)과 일본



공수도팀이 친선대회를 할 때 선수들이 이 호구를 착용하고 경기를 했다(사진). 전주 지도관 출신인 유병룡 원로는 “초창기에는 얼굴에는 야구를 할 때 쓰는 마스크를 쓰고, 손

가락 끝을 자른 얇은 장갑을 끼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검도할 때 입던 호구를 입기도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방구대타’ 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일본 파견 첫 공식 국가대표 선수들

1963년 12월, 대한태수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 전신) 임원들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이 정장을 입고 김포공항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선수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국가대표 선수단이라는 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일본 도쿄 중앙대학교 공수도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의 우리 선수단 모습에서 금석지감(今昔之感)이 느껴진다. 선수들은 좁은 넥타이, 그리고 짧은 머리와 엄숙한 표정들과 그 당시 협회에서 열심히 일했

던 임원들의 젊은 모습이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당시 대한태수도협회는 1962년 제정된 경기 규칙을 바탕으로 1963년 2월 국민회당에서 ‘1963년도 한국우수선수선발 제1차전’을 개최하고, 그 해 6월 일본원정파견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해 12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들은 경량급 -56kg급 이용준(3단)·김용태(3단), 중량급 -65kg급 김일식(3단)·이승완(5단)·이문성(2단)·황대진(2단), 중량급 +65kg 최창근(3단)·조점선(4단)·안대섭(2단)·최영렬(1단)이었다. 협회는 그중 6명을 원정 대표선수로 파견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승완 원로(대표팀 주장), 안대섭 재미 한인사범, 최영렬 전 경희대 교수(당시 고등학교 3년생으로 최연소 대표선수), 이용준, 김용태, 조점선 선수가 보인다. 뒷줄 왼쪽부터 이금홍 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주무), 노병직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감독) 등이 서 있다. KA





페루의 잉카 유적 마추픽추.

태권도 불모지 페루의 태권도 개척자로 헌신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 챔피언 이기형

2004년 1월 9일, 국내 태권도계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페루의 이기형 사범이 강도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이였다. 그의 나이 불과 53세였다. 그는 1973년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에서 우승한 뒤 페루로 건너가 20여 년간 태권도 보급에 힘써 왔다. 그는 리마 시내의 한 은행에서 돈을 찾고 귀가하던 중 돈을 노리고 쫓아온 강도 네 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강도가 쏜 총탄에 맞았다. 고인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페루에 정착해 도장을 개관한 뒤 페루 대통령 경호원과 군경을 지도하는 태권도 교관으로 활약했다. 또 한국과 페루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결식에선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알레한드로 볼레도 대통령의 부인이 조문할 정도로 페루에서 그의 영향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인 고인이 '태권도 종가'에서 국가대표로 성장해 세계를 제패하고 잉카 제국 페루에 태권도를 보급·발전시키기까지 인생 여정을 살펴봤다.

노력 끝에 오른 세계 챔피언, 그러나...

이기형 사범은 어린 시절 당시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 경찰청 상무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그때부터 국가대표와 태권도 해외 개척의 목표를 세웠던 그는 다른 수련생들에 비해 두서너 배 더 많은 시간 수련을 했다. 김정록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은 “이기형은 엄청난 노력파였다. 전국체전을 위해 합숙을 실시할 때도 모든 훈련이 끝난 뒤 항상 두 시간 이상 개인 훈련을 했다.”라고 술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고, 1973년 5월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에서 우승했다. 당시 세계 선수권



1973년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량급에서 우승한 이기형(맨 오른쪽).

대회는 지금처럼 8체급이 아니라 경량급과 중량급, 이렇게 두 체급으로만 나뉘어져 있었다. 그는 개인전에 이어 한국의 단체전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사범은 이듬해인 1974년 제1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라이트급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그해 대한체육회 태권도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각종 국내의 대회를 휩쓸었다. 그러던 중 그는 군대에 입대했고, 육군 대표로 활약하던 중 군인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고 제대했다. 이후 재기를 노렸지만 더는 선수 생명을 이어 가는데 실패했다.

좌절을 뿌리치며 페루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는 태권도와 맺은 연을 끊을 수 없었다. 태권도 해외 개척의 꿈을 이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가대표 시범단과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77년 가정을 이뤘다. 주례는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였다. 때마침 스페인에서 초청장이 왔다. 그러나 그는 그 초청을 거절했다. 이미 선배들이 진출해 잘 닦아 놓은 나라가 아니라 불모지에 들어가 태권도를 개척하겠다는 도전 정신이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를 남미의 콜롬비아로 향하게 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선배와 단 둘이 오로지 태권도 개척이란 도전 정신으로 낯선 땅을 밟았다.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결국 동행했던 선배는 포기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근 국가인 페루로 건너갔다. 그때 마침 사돈이 페루 육군 참모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참이라 페루에 마음이 끌려서였다. 생면부지의 나라 페루에 도착한 그는 그야말로 막막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외곽에 허름한 방 하나를 얻었는데, 태권도 개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련할 장소가 필요했다. 주변의 공원을 운동 장소로 정해 놓고 매일 아침 운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그 공원으로 운동을 나오던 동네 청년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서로 말이 안 통했던 두 청년은 영어와 보디랭귀지 등 소통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말을 이어 갔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세자르 올리베라라는 페루 공군 장군의 아들이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던가. 그에게 청년은 행운으로 다가왔다. 그에게 태권도 해외 개척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 청년은 장군인 아버지에게 그에 대해 설명했고, 장군은 그에게 당장 공군에서 일하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장군에게 반드시 공군과 함께 일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미라 플로레스라는 지역에 위치한 젠부칸이라는 종합 무술도장과 계약을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젠부칸 종합 무술도장과 계약에 성공했다. 도장 측에서도 태권도 세계 챔피언과 계약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 사범은 그 계약서를 들고 취업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잠시 입국했다가 절차를 마치고 다시 페루로 향했다. 1981년 6월 5일이었다. 그는 다시 페루로 향하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한국의 국기이자 얼인 태권도를 반드시 페루에 성공적으로 전파 시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세계 챔피언 기형 리, 페루의 유명 인사가 되다

이기형 사범이 페루에 도착하니, 체육관 측에서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페루 최대 일간지인 『엘 코메르시오』는 그의 가족이 입국하는 사진을 싣기도 했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쿵푸와 가라테 사범들이 잡아 준 송판을 썼다. 또 겨루기 시범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 장면이 TV에 방송되고 각종 신문도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그의 젠부칸 사범 시절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했다. 태권도는 순식간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쿵푸와 유도 등 타 무술을 배우던 수련생들이 잇달아 태권도로 옮겨 왔다. 그러나 곧 타 무술 사범들의 도전에 부딪혔다. 제일 먼저 같은 체육관의 유도 사범 오시로가 태권도 수업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가라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가라테와 일전을 겨룰 수밖에 없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범은 먼저 페루에 진출해 있

생전의 이기형 사범.



던 인근 가라테 사범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처음에는 도전해 오는 가라테 사범들을 상대로 대결을 벌였다. 그렇지만 뒤엔 그가 가라테 도장을 찾아다니면서 결투를 벌였고, 결국 페루에 태권도 깃발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가라테의 도전을 받은 것은 비단 이 사범뿐만은 아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는 사범들의 도전 정신과 투쟁의 역사다. 태권도보다 먼저 현지에서 진출해 있던 가라테 등 타 무술의 도전을 받았으나, 그들을 꺾고 뿌리내렸다.

그 또한 같은 처지였다. 결투에서 패한다면 수련생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겹도록 오랫동안 싸움을 벌여야 했다. 어느 정도 현지 동양 무술계를 평정한 그는 페루 전국에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힘썼다. 공원, 학교, 방송국, 경찰서, 군대 등 장소와 거리를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그는 가라테 시범단이 벽돌 두 장을 깨면 네 장을 부수고, 그들이 손으로 벽돌 다섯 장을 깨면 이마로 여섯 장을 박살 냈다. 가라테가 앞치기로 송판 5장을 깨면 옆치기와 공중 회전 돌려차기로 더 많은 송판을 산산조각 냈다.

특히 그는 옆치기가 일품이었다. 그의 화려한 발기술에 페루의 무술인들은 열광했다. 그의 발기술과 격파 위력에 감동한 가라테와 쿵푸 사범들조차도 신분을 속이고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그를 찾았을 정도였다. 그중에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버스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왕복하는 수련생도 적지 않았다.



2013년 고(故) 이기형 사범의 부인 조석순 씨가 태권도 진흥재단을 방문해 태권도원 상징지구 건립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페루 전역으로 퍼져 나간 태권도는 페루 국민에게 꽤 인기 있는 무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태권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그도 더불어 유명인이 돼 있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지역의 브라스 밴드가 등장했다. 게다가 사회자가 메가폰을 잡고 “세계 태권도 챔피언 기형 리 사범이 왔다.”라고 소개하면, 구름떼 같은 관중이 그의 시범을 보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다.

심사나 시범을 선보이기 위해 지방을 방문하면, 그의 제자들은 도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양손에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들고 흔들어 환영했다. 물론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특유의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잘 넘겼다.

우연한 인연으로 맺은 공군과 한 약속도 지켰다. 1981년 11월에는 공군사령부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이듬해 초부터 공군본부에서 태권도를 가르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군사관학교 전 생도를 상대로 새벽 5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을 지도했는데, 곧 이어 공군하사관 생도까지 태권도를 배우게 됐다.

페루 태권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다

이기형 사범의 태권도에 향한 애정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태권도장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페루에 정착해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모은 돈으로 리마 인근 아비에르 프라도길에 500㎡의 땅을 구입해 도장을 세웠다. 1층은 태권도장, 2층은 헬스 클럽, 3층 일부는 에어로빅장, 그리고 3층의 앞부분과 4층은 가족이 살 공간으로 지었다. 이 도장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전문 태권도인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페루 전 지역에 도장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그는 목표했던 페루에서 태권도 보급과 저변 확대에 성공을 거뒀다.

그는 국제심판과 페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며 자신의 성가를 이어 갔다. 1987년 8월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제10회 팬암 게임에서, 그는 국제심판을 봤다. 2급 국제심판 자격을 갖춘 뒤인 1987년 12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심판을 봤다. 1988년 12월 페루에서 제6회 팬암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페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금메달 2개, 은메달



한국의 태권도인들이 부인의 안내로 이기형 사범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이기형 사범이 건립한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 중인 현지 수련생들. 체육관 정면에 고 이기형 사범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이기형 사범이 페루 리마에 건립한 자신의 태권도장. 1층 태권도장, 2층 헬스 클럽, 3층 에어로빅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1개, 동메달 3개로 단체 3위에 입상하는 급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페루태권도협회 기술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후 페루 태권도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열리는 국제심판 교육과 각종 대회에 선수단을 이끌고 다니며 페루 태권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는 페루에 정착한 이후 전부칸 무술도장, 공군사관학교, 대통령 경호실 등 다치는 대로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지도해 왔다. 그러는 사이 그는 페루 태권도인뿐만 아니라 한인회의 지도층 인사가 됐다. 그에 비례해 그의 책임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2000년에 첫 실시된 선거에서 당연히 페루태권도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상대 후보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이 개입해서야 점거 사태는 마무리됐다. 그런 뒤 그는 페루 국적을 취득

했다. 이중 국적자였던 후지모리 페루 전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으로 피신한 일이 한참 동안 논쟁이 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듯싶다.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페루 체육청으로부터 공식 페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승인받았다.

이 사범은 페루 국적을 취득한 후 “심정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조국 대한민국과 태권도 위상을 높이고 저변 확대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게 된 나라의 단체장으로서 책임감이 느끼게 됐다.”라고 미묘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장에 당선된 그는 페루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회원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쳤다. 타계하기 불과 1년 전인 2003년엔 필자가 근무하는 『태권도신문』에 찾아와 세계 선수권대회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와 필자의 인연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성실·노력’의 인생, 불의의 흉탄에 맞아 끝나

이기형 사범은 ‘성실’과 ‘노력’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실천했다. 그 결과, 페루 태권도 수준은 급속도로 향상됐다. 그는 “사람이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과 노력이 없으면 옳은 길을 갈 수 없다. 좋은 친구에게는 진실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길지 않은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조국애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보내는 길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내가 살고 있는 페루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페루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내가 받은 많은 사랑을 이제 모두에게 나누는 일에 힘쓰며 살고 싶다.”라고 미래를 설계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 태권도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고인은 길지 않은 인생에서 페루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실현했음뿐더러 많은 영광도 안았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의 가족은 “고인이 비록 불의의 사고로 하늘 나라로 일찍 갔지만,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다. 고인은 생전에 ‘체력이 허락하는 날까지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면서 페루에 뼈를 묻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라고 밝혔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은 고인을 페루 ‘평화의 동산’이라는, 경관이 뛰어나고 아늑한 곳에 안장했다. 고인이 경영했던 페루의 태권도장은 아들이 운영하며 대를 물려 태권도 사랑을 이어 가고 있다. **KT**

2004년 치러진 이기형 사범 영결식.





“몸이 나의 주인”

몸을 간난아이처럼 되돌리는 도인술,
혈기도

왜 전통 무예를 알아야 하는가

몸이 부딪친다. 기(氣)를 담백 품은 손끝과 발끝이 허공을 춤춘다. 무질서하게 내지르던 주먹과 발질은 점차 정교해졌다. 싸움질이 무술이 됐다. 무술의 몸짓은 냉혹하다. 수직과 수평이다. 맞서서 이긴 자는 수직이고, 진 자는 수평이다. 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생과 사를 갈랐다. 수직에는 지구의 중력에 맞서는 체력과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과 지혜가 필요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무술을 했다. 어렵게 확보한 식량을 지키기 위해, 거친 자연 환경을 피할 안락한 주거 공간을 지키기 위해, 그런 주거 공간이 가능한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 잘 싸우기 위해,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무술이 발전했다. 마치 현대 사회에 컴퓨터가 발전하듯, 아날로그 시대엔 무술의 발전이 필요했다.

기마민족의 후예로 수많은 외침의 혹독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나름대로 무술이 있었다. 고구려 조의선인부터 전설적인 무인의 역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백범 김구 선생도 택견의 고수였다고 한다. 무술의 단련이 없이 일본 헌병을 맨손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용기와 완력이 생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민족의 무술 역사는 아직은 단편적이다. 한번 꼽아보자. 우리 무술이 뭔지.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분명 무인들의 몸짓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몸짓인지 문자로 설명하지 못한다. 택견이 있다. 조선시대 민속화에 그 몸짓이 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씨름. 그것도 민속화에 있다. 하지만 씨름을 무술로 꼽긴 뭔가 부족하다. 수박도. 기천문, 국술, 선무도 등등 한민족 전통무술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록은 없다. 1790년 정조대 실학자 이덕무 등이 만든 '무예도보통지'는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지은 '기효신서'를 본뜬 병사들의 훈련도감이다. 한민족 전통의 몸짓이라기보다는 병사들을 조련하는 교련서이다. 태권도 역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태권도라는 명칭은 195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왜 우리민족의 무술엔 정통성 있는 기록이 없을까? 조선시대는 문신 우대정책을 펴 무인들이 홀대를 받았다. 당연히 무술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에 소홀했다. 벼슬을 싫어하는 무술의 고수들은 산속에 들어갔다. 신분이 낮은 무술 고수들은 남사당패 등 사회 밑바닥으로 내쳐지



는 신세가 됐다. 일제 강점기에 항일 의병투쟁을 하며 앞장선 이들은 대부분 무술의 고수였다. 대부분 희생당했다. 그나마 산속으로 들어간 무술 고수들은 한국전쟁 중 공중 폭격 등으로 산림이 황폐화되며 산속에서 나와야 했다. 현재 한민족의 전통무술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 주된 이유이다.

현재 대부분 한민족 전통무술을 표방하는 무술은 창작이나 모방무술이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창작물도 시간이 흐르면 전통의 문화가 된다. 또한 기록이 없다고 전통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 한민족 고유 몸짓이 있고, 무술도 있다. 한민족 전통무예를 엿볼 수 있는 무술과 건강술 등을 살펴보는 것은 태권도가 발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작업이다. 이우 무술의 몸짓과 호흡법 등을 살펴보면 태권도의 부족한 면을 메울 수 있고, 더 발전된 모습의 태권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 전통 신선술, 혈기도

그 첫 번째로 혈기도(穴氣道)를 소개한다. 혈기도는 우혈 허장수 선생이 30년전부터 속세에 소 개한 한민족 전통 신선술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타계한 우혈 선생은 80이 넘는 나이에도 놀라운 유연함과 강한 체력으로 제자들을 지도했다. 우혈 선생이 가르친 혈기도의 대부분은 단전호흡과 유연성 등 내공을 키우는 것이었고, 외공은 발차기만 가르쳤다. 다양한 외공을 지도하지 않은 이유는 외공을 익힐 수 있는 몸을 갖춘 자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1)우혈 선생은 누구?

우혈 선생은 경남 김해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태권도와 복싱

을 주로 익혔다.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한 때 서울시 대표로 전국체전 복싱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경량급이었지만 주먹이 강해 대부분 KO로 승리를 거둬 당시 프로복싱 프로모터들로부터 프로선수 데뷔를 권유받기도 했다. 각종 무예를 수련하면서도 일찍부터 도(道)에 목말라 했다고 한다. “과연 도가 있을까, 신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9세(1965년)에 설악산 내설악 장수대 근처에서 천우(天宇) 스승을 만났다고 한다.

도인을 찾아 헤매던 그에게 수색대 장교가 “저 골짜기에 가면 자네가 찾는 이가 있을지 몰라.”라고 귀띔했다. 과연 큰 바위 아래 조그만 천막이 드리워진 암자가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한 노인이 왔다. 한눈에 보기에 도 신선 같았다.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노인은 냉정했다. “돌아가거나, 젊은이. 여기는 자네가 살 곳이 아니네.” 그러곤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무릎 꿇은 채로 밤을 새웠다. 아침에 천막에서 나온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훌쩍 떠났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틀을 버텼다.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은 물 한 사발을 주면서 암자 안으로 청년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여기서는 어떤 질문도 하면 안 되네. 말을 하는 순간 자네는 산을 내려가야 한다네.” 이른바 ‘무문부답’(無問不答)이 조건이었다. 실제 청년은 7년간 입을 닫고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실천과 경험만이 득도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소설같이 만난 노인은 당시 90세인 천우(1875~1982) 선생이었다. 12살에 출가했던 천우 선생은 금강산에서 한 신선을 만나 선도에 입문한 이후 처음으로 우혈을 제자를 받아들였다. 그 뒤 17년간 그 깊은 산속에서 우혈은 스승으로부터 각종 도인술을 익혔다. 무술과 건강술, 의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천우 선생은 가르침을 주고 암자에서 정좌한 채 107세에 등선(登山)

했다. 우혈은 설악산에서 내려와 3년간 다시 전국의 산을 다니며 신선을 찾았으나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1985년부터 서울에 수련장을 만들어 제자를 키우다가 지난해 타계했다. 우혈 선생은 신선의 도를 쉽고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신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둑이나 두고 세월을 죽이는 한가한 노인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2)혈기도의 수련체계

혈기도 수행의 목표는 간단하다. 몸을 갓난아이 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갓난아이 몸은 매우 부드럽다. 몸속의 혼탁한 기운을 토해내고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갓난아이 몸처럼 유연해진다고 했다. 몸을 젊게 만들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혈기도 행공은 토(吐)호흡, 예비행공, 기초행공, 본행공 네 단계로 구분된다. 호흡이 가장 어려운 행공이다. 행공 하나하나에 동작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 수천 년 동안 산에서 신선들이,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기운이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 가면서 수백 번, 수천 번 교정해서 만든 것이다.

토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은 몸속의 탁기 배출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토호흡은 저 깊은 대장, 소장에서 나오는 것 같이 깊이 내쉬는 것이다. 많은 선도 수련에서 하는 숨을 참는 지식호흡을 혈기도에서는 피한다. 자연스러운 기의 흐름을 억지로 끊고 산소 결핍을 불러와 오장육부를 서서히 굳어지게 하며 노화를 촉진하여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지식호흡을 하면 처음에는 몸 안에 축적된 양기를 강제로 촉발시켜 온 몸에 열이 나고 강한 신진대사 기운을 느껴 몸이 상당히 강해지는 것은 착각에 빠질 수 있으나, 강제로 몸의 기혈순환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결과 속이 틀려 안으로 골병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토호흡은 반가부좌 상태에서 눈은 속눈썹이 보일 듯 뜨고, 천천히 숨을 내뿜는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인다. 아랫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없이 축 퍼져야 한다. 상체를 일으킬 때에는 척추로 올리지 말고 부풀어진 단전의 힘을 백회로 밀면서 올라온다.

상체를 앞으로 내리면서 가슴을 쪽 펴서 등가죽을 단전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몸 전체의 기운, 좌폐, 우폐, 기관지, 오장육부의 모든 사기와

객기, 탁기를 내보낸다. 저 깊은 대장, 소장에서 부터 짜 내듯이 내뿜는다. 건성으로 입으로 “후~” 하고 내뿜으면 뇌가 생각해서 좌폐와 우폐와 기관지에 있는 것만 내뿜는 것에 불과하다. 예비행공은 11개의 동작으로 돼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행공을 보자.

‘천(天)~’ 구령에 들어선다. 대우주의 기운이 코를 통해 단전으로 내려가고, 있던 기운은 단전에서 위로 올라간다. 기운이 올라가면서 폐와 갈비가 벌어져 제자리로 가게하고, 팔로 가서 팔을 제자리 잡게 하고, 손끝으로 간다. 뇌와 흉추인 가슴, 우폐, 좌폐, 심장, 기관지를 열어준다. 가슴을 쪽 펴고 단전의 기운을 천천히 끌어올린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운이 다섯 손가락 끝으로 다가야 한다.

뻗었던 손가락 끝에 있는 에너지와 대우주 에너지가 합하여 같이 있다가 ‘자~’ 하면 탈기가 되어 몸에 아무 기운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팔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 아무런 저항도 없어야 한다. 손끝 하나하나의 근육과 신경이 다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탈기가 되어야 한다.

기초행공은 온 몸의 주요 관절을 이완시키고 탈기시키는 행공이다. 그 가운데 다리를 90도 벌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과 두 다리를 가위처럼 벌리기와 일자 벌리기 등이 중요한 동작이다.


그 가운데 가위 벌리기를 보자. 두 다리를 90도 벌린 뒤 몸을 틀어 다리를 편다. 기운이 앞다리로 가서 앞 다리가 뒷다리를 끌고 가야 한다. 뒷다리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탈기한 채, 단전의 기운으로 앞다리를 따라 가지만 하면 된다. 가위 벌리기는 서혜(사타구니)부가 바닥에 붙어야 한다. 서혜부가 닿도록 조금씩 노력하면 결국 닿게 된다. 이 행공이 제대로 되면 100살이 되어도 똑바로 걸을 수 있다.

본 행공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허리굽혀 펴기

다. 혈기도 동작의 꽃으로 불리운다. 허리 굽혀펴기는 골반, 대퇴부, 척추를 제자리로 가게 하는 행공이다. 뼈에 기를 넣는 행공으로 생명의 원천인 척수를 맑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행공이다. 허리가 곧게 펴지고 대퇴, 골반이 바로 선다.

양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서, 머리를 두 다리 사이로 왕복하는 동작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다. 몸은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 새로운 기운을 얻는다. 몸이 제대로 풀린 상태라면 허리 굽히기를 극에 이를 정도로 해도 괜찮다. 이 행공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릎을 펴는 것이다. 그래야 용천혈에서 생긴 기운을 미골로, 백회로 보낼 수 있다. 두발의 앞쪽을 약간 안쪽으로 모아 평행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고관절이 열리게 된다. 몸의 기동인 하체를 단단히 하고 상체는 힘을 빼서 몸에서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행공해야 한다.

우혈 선생은 “몸이 나의 주인이다. 나이 먹으면 정신은 육체에 더부살이 한다”며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체의 건강함이 없이 건강한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특히 다른 동물과는 달리 두발로 걷는 직립하는 동물인 인간은 걷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의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 폐를 끼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잘 걸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머리와 몸, 무엇이 더 중요할까. 대부분은 머리(마음, 정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머리는 몸에 얹혀 있는 것이다. 머리는 결코 몸의 주인이 아니다. 몸이 정신의 주인이다. 머리가 나인가? 몸이 나인가? 몸이 나다. 나의 상(像, 몸의 꼴)이 나다. 모든 것을 머리가 결정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몸이 결정한다.” 현재의 나의 몸이 나의 역사라는 것이다. 



가위벌리기 행공. 제대로 되면 100세에도 바로 걸을 수 있다.



김운용의 다섯 가지 예언(?)과 마지막 선물

생전 마지막 공식 행사인 진천선수촌 개촌식에 참석한 김운용.

그는 빅맨이자 대인이었다.

윤곡(允谷) 김운용(金雲龍). 20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지난해(2017년) 김운용 회장과 그의 조우(遭遇)는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가 대한체육회장이던 1990년대 중반에 가끔 만난 적은 있지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당시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 스포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던 빅맨(Big Man)이었다. 평범한 체육기자였던 필자로서는 업무적인 대화가 고작이었고 사사로운 이야기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때였다.

그런 차에 그가 2015년 대한체육회 선전 스포츠영웅에 헌액 되고 지난해에 그의 평전을 집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매번 2~3시간씩 8차례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이마저도 부족해 더 많은 시간을 전화로 통화했다. 물론 그 시간이 그의 큰 인생을 전부 기술하기는 짧은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결코 짧지 않은 않았다. 그의 평전을 쓰는 동안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그가 국내외에서 이룬 업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어느 체육계 인사보다 많고 높았지만 이에 덩달아 갖가지 좋지 않은 소문도 꼬리를 물고 따라 다녔기 때문이다. 이를 그의 평전에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는지가 나름대로의 고민이었다. 결국 고심 끝에 평전을

쓰는 중간에 원고를 보여 주고 그가 원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두 차례에 걸쳐 그의 감수를 받았다. 평전에 나오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록했는지를 봐 달라는 것이 명목이었다. 그러면 자신에게 나쁘게 기술한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필자의 이 생각은 처음부터 핀트가 어긋났다. 그는 “나도 잊고 있던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많이 조사했더군요.”라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할 수 있다면’이란 전제를 달면서 “부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부탁(?)은 다름이 아니었다. 화보에 부인, 아들, 딸, 사위 등 가족 아홉 명이 모두 모인 2000년에 찍은 가족사진을 실어 달라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찍은 사진은 이것이 유일하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17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시간이 없었다는 생각이 얼핏 들면서 그의 화려한 업적과는 다른 가정생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평전 내용과 관련해 이 부탁이외의 ‘수정해 달라’거나 ‘내용이 틀린다’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 군데에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글쓴이의 자존심을 배려해 준 덕분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자신의 평전에 꼭 넣어 달라고 부탁한 가족 사진.



다섯 가지 예언(?)

평전 탈고를 한 뒤 마지막 감수를 받기 위해 그에게 가제본을 보낸 사흘 뒤인 2017년 9월 29일 오전. 이날은 10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로 필자는 사무실에서 잠시 밀린 일을 정리하고 오후에 노모가 계신 부산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로부터 예상치도 않았던 전화가 왔다. 그는 평전 감수를 마쳤으니 그대로 출판해도 좋겠다면서 ‘수고했는데 맛있는 식사 한 번 하자’며 이를 전인 9월 27일 진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 개촌식에 참석한 이야기를 꺼냈다. 필자도 개촌식에 참석을 했으나 그와는 자리가 틀려 서로 만나지는 못했다.

“진천선수촌이 엄청 좋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전문체육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어. 다가 올 2020년 도쿄올림픽이 걱정이야. 아마 도쿄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은 그의 말투에서 그대로 묻어 나왔다.

“지난 8월 파리에서 열린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 동메달 각 한 개씩에 그쳤으나 일본은 금 6, 은 1, 동 2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9월 헝가리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노 골드고 일본은 7개나 금메달을 따냈어. 배드민턴도 이제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가 없게 됐어.”

그의 걱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태권도도 앞으로가 걱정이야. 도쿄올림픽에 가라테가 정식종목이 됐는데 IOC가 비슷한 무도인 태권도와 가라테를 모두 정식종목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거야. 앞으로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IOC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IOC 위원 이야기와 다가 올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옮겨갔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IOC 위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데 모두 IOC 생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최근에 IOC 위원이 된 면면을 보면 대부분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이야. 우리나라에 그 정도 나이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있어?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IOC에 조정관이란 제도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IOC 위원을 하면서 방송 중계권료 협상까지 맡아 했지만 지금은 조정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IOC 위



진천선수촌 개촌식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악수하는 김운용.

원이 없어도 올림픽을 치르거나 IOC와의 업무 협조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마 평창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추가 IOC 위원이 나오기는 힘들 거 같아.”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북한 장웅 IOC 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에 질세라 마식령에서 스키 경기를 하면 되겠다면서 남북공동 주최를 주장하는 인사까지 있더군요. 올림픽 개최지를 왜 7년 전에 정하는지, 도대체 올림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까지 이런 인사들이 체육계에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워.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일부 유럽 선수들이 불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리는데 북한이 참가하면 올림픽 불참 명분도 사라질 거고 올림픽 흥행에도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틀림없이 남북한 공동개최나 남북한 단일팀 문제가 나올 거야. 지금 북한은 피겨 페어에서 출전권을 딸 선수밖에 없어. 공동개최나 단일팀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최대한 양보한다면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처럼 남북 공동입장은 가능할거야.”

끝으로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번에 진천선수촌에 가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거의 한 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도 벅차. 이제는 행사 참석도 하지 말아야겠어. 개촌식 마지막에 참석인사들과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행사를 하는데 모두 함께 하자고 하는데 다리가 불편해 사양했어. 젊은 사람들에게 폐 끼쳐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싫었어.”

이렇게 통화를 한 시간이 30분을 훌쩍 넘어 거의 한 시간이나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선물 ... 와인 한 병

부산에서 사흘을 보내고 다시 사무실에 나온 것은 추석 전날이자 개천절인 10월 3일 아침이었다. 추석 연휴여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서 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낯선 쇼파백이었다. 그 쇼파백에는 그에게 감수를 부탁한 가제본한 ‘세계를 품은 빅맨 김운용’과 와인 한 병이었다. 그가 수정이나 교정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책을 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평전을 쓰는 것을 알고 있는 언론사 선배였다.

“김운용 회장이 돌아가셨어, 알고 있어?” 불과 나흘 전에 정정한 목소리를 듣고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지금 TV 틀어봐. 자막에 나오고 있어.” 꿈결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의 모습은 영정에서나 볼 수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없었다. 추석 날 그의 빈소를 찾아 가제본된 책을 증정하고 돌아섰을 때 인생의 허무함보다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이 새삼 피부에 와 닿았다. 이제 그가 떠케한 지 8개월이 다가온다. 이 글을 쓰면서 그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떠올리니 그가 마치 앞날을 예견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다섯 가지 예언(?) -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와 공동입장, 우리나라에 추가 IOC 위원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대로 적중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배 이상 앞서고 태권도가 IOC 정식종목으로 계속 이어가는 나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맛있는 식사를 하지는 약속은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가 글쓴이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와인 한 병. 그 와인은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책상 서랍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김태**



땀으로 점철된 오늘의 영광, 장밋빛 미래의 밑알

『태권도』 선정 4·5월의 선수 곽여원

절제된 움직임이다. 한 치도 흐트러짐을 드러내지 않는다. 절도 있는 몸놀림에 압도됐을까? 공기조차 숨죽이며 정적이 흐른다. 일순 터져 나온 기합 소리가 허공을 가르다. 이윽고 솟구쳐 올라 웅틀입한다. 마치 공중에서 유평하는 듯하다. 힘과 도약과 회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연기는 모두를 사로잡는다. 경탄의 환호와 갈채가 절로 쏟아진다. 곽여원(24·강화군청)! 감탄 부호가 뒤따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왜? 당대 으뜸의 품새 솜씨를 뽐내는 그에게 어찌 탄복의 마음을 지니지 않을 수 있으랴. 남성을 능가하는 고난이도 기술을 손쉽게 펼치는 그의 연기를 보노라면 품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는 그를 ‘PLAYER OF THE MONTH’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수상자 선정 대상 기간(4·5월)에 그가 보인 활약보다 앞설 수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6월의 문턱을 앞둔, 5월이 거의 끝나 갈 즈음에 그가 올린 개선가는 수상에 더욱 토를 달 수 없게 했다.

반전의 금빛 차기, 호치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2018년 5월 25일, 곽여원은 흥분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다. 자꾸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지도 않았다. 승부사 기질을 한껏 뽐어냄으로써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아시아 정상에서 포효한 순간의 환희를 계속 만끽하고 싶었다. 베트남 호치민 푸 토 인도어 스타디움은 작약하는 그를 담아내기에 좁아 보였다.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5월 24~25일)는 분명 그에게 ‘약속의 땅’이었다. 그는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켰다. 과녁 한가운데에 화살을 명중시켜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 결전지로 떠나기 전인 지난 5월 17일 『태권

도』와 만난 그는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 있음을 내비치듯 밝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8일 뒤 뜻했던 바를 이뤘다. 자칫 무산될 뻔했던 꿈이었기에 더 진하게 느낀 감동이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용궁에 갔다 왔다. 토끼의 슬기를 바탕으로 오기의 한 수를 던져 모두에게 반전의 묘미를 맛보였다. 큰 키(173cm)와 비교적 호리호리한 체격이 주는 선입견이랄까? 얼핏 가냘프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를 중심으로 한 ‘태극 남자’들이 이런 독심 있는 승부수를 펼쳤으니 대견하기만 하다. 이 대회에서, 그가 연기한 분야는 최동아(18·경희대학교), 윤지혜(21·한국체육대학교)와 호

흡을 맞춘 여자 단체전이었다. 오는 8월에 열릴 제18회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초전 종목이라 할 수 있었다. 아시안 게임 금의 향방을 가능할 수 있는 시금석 성격의 프레 대회가 주는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일까? 준결승전에서, 태극 트리오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뜻밖의 난조를 보였다. 태극 → 베트남 → 인도네시아의 돌풍에 휘말리며 4위에 그쳤다. 당달아 우승의 야망이 물거품으로 끝날 듯싶었다. 이때 회심의 승부수가 나왔다. 결승전에서, 태극 남자들은 승부를 가름하는 자유 품새 난이도를 높여 연기했다. 자유 품새가 빼어난 곽여원의 강점을 극대화해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전술이었고 들어맞았다. 세 남자가 연출한 역전극은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등정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금의 환희는 컸다.

‘오뎅이’, 두 차례나 고비를 딛고 여왕으로 자리매김

곽여원은 될성부른 나무였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그는 일찍 꽃을 피웠다. 우리 나이 스물한 살 때, 첫 태극 도복을 입고 나간 제13회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2014년 6월)에서 2위(페어전)에 오르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13개월이 흐른 2015년 7월, 그는 드디어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랐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모두를 굽어보는 왕좌(단체전)에 자리했다. 이어 2016년 2월 제4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개인전)를 연기하며 독주 체제에 나섰다. 그러나 신은 시험을 잊지 않았고, 그는 시련의 운명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국가대표 선발전 직후 시범 훈련에서, 그는 왼발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절정을 내달리던 시기에 찾아온 뜻밖의 부상이었다. 신의 야속함을 원망해야 했을까? 그는 달랐다. 쓰러짐을 거부하는 오뎅이 기질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중학 시절 단 한 번밖에 우승(제3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개인전·2008년 8월)하지 못하는 바람에 ‘태권도를 그만둘까’ 흔들렸던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그였다. 이번에도 짓궂은 미소를 띠며 찾아온 부상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는 빠르게 회복해 갔다.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며 식을 뻔했던 열정을 다시 불살랐다. 또 훈련량을 높이며 재할에 매달렸다.

신은 곧 시험의 손길을 거둬들였다. 불과 5개월이 채 흐르기도 전인 그해 7월, 그는 제51회 대통령기대회서 정상을 되찾았다. 아울러 전성시대를 다시 활짝 열어젖혔다. 그가 얼마나 무풍지대를 홀로 내달리는지 이후 활약상에서 뚜렷하게 엿볼 수 있다. 제10회 WT(세계태권도연맹) 세계 선수권대회(2016년 9월) 페어전과 제29회 타이베이(臺北) 유니버시아드(2017년 8월) 단체전에서 우승을 휩쓸었다. “국내 무대보다 국제 무대가 더욱 편해요.”라는 그의 말에 부합하는 풍성한 금빛 결실이다.

그는 올해 들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위세를 떨치고 있다. 올 각종 국제 대회에 나갈 국가대표를 뽑는 마당에서, 그는 결코 1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2월)와 아시안 게임(4월) 선발전(이상 단체전)에서 독보적 경지에 오

른 솜씨를 뽐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 본선 무대에서 차지한 금은 당연한 결과였다.

땀과 오기, 세계 정상 도전의 두 축

곽여원은 무척 성실하다. 정성이 배어나온 땀을 밑거름 삼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의 활발한 성격을 눈여겨보고 태권도를 권유하셨어요.” 우리 나이 다섯 살 때 처음 도복을 입게 된 그는 이후 20년 동안 땀을 멀리하지 않았다.

“여원이가 게으름 피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어진 과제를 소화하려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죠. 오늘날 여원이가 이룬 성과의 토대는 단연코 훈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간(2014~2015년)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에서 그를 가르치며 자질을 개척한 이춘우 단장의 귀뜸이다. 고지를 향해 정진하는 그의 끈기가 엿보인다.

그가 얼마나 근성과 오기로 뭉쳤는지 그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동안 걸은 승부의 길에서, 그가 가장 기뻐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으레 “우승했을 때”라는 응답이 돌아올 법하다. 그러나 그에게선 이런 일반적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교 2학년 그날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최)유리(현 K 타이거즈)를 꺾었던 그때입니다.” 2011년 4월 제21회 용인대학교 총장배 대회 개인전 두 번째 판에서, 그는

최유리에게 처음 승리하는 기쁨을 누렸다. 물론 우승은 그의 몫이었다.

그는 자유 품새를 가장 자신 있어 한다. 2년 전 당한 부상 탓에 도약이 힘들긴 해도 차별화한 고난이도 연기로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신에게 불어넣는다. 초등학교 1~3학년 시절 태권 체조를 했고, 대학교 2~3학년 때 시범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자유 품새 강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시범단 활동은 기본기를 잘 닦게 해 새 품새 연기도 능통하게끔 도움을 줬다. 그는 또한 단점이 거의 없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점을 빼고 눈에 띄는 흠이 없다. 그를 스카우트해 품새 실업팀 1호를 창단한 염관우 강화군청 감독의 평은 그에게 향하는 기대치를 더욱 높인다. “여원은 도약·회전·연결 발차기가 뛰어나 어려운 동작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겨루기 선수만큼 체력 훈련을 잘 소화하는 데다 체격 조건이 좋아 더욱 선명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어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는 올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8월 아시안 게임 2관왕(개인전·단체전)을 디딤돌로 11월 타이베이 WT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하려 한다. 요즘 용솨음치는 그의 기세를 보면, 그 화살은 적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p>생년월일 1994.03.18 출생지 울산광역시 가족 곽의석(51), 박미선(51) 씨 슬하 1남 2녀 중 둘째 신장/체중 173cm/59kg 학력 울산 화진초등학교 - 방어진중학교 - 방어진고등학교 - 용인대학교 - 용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소속 강화군청 입문 4세 첫 우승 제3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 품새 대회 개인전(2008.08) 첫 국가대표 2014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국제 대회 성적 제13회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페어전 2위(2014.06) 제28회 광주 유니버시아드 여자 단체전 1위(2015.07) 제10회 WT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 페어전 1위(2016.09) 제29회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여자 단체전 1위(2017.08) 제5회 아시아 품새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1위(2018.05)</p>	
---	--

사진으로 배우는 태권도 기술 <2>

귀는 눈을 이기지 못하고, 눈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무엇을 깨우칠 때 듣기보다는 보기가, 보기보다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범이 백 번을 말한들 한 번 시범을 보이니만 못할 수 있다.
 『태권도』 지(誌)가 초보자들이 막연하게 알고 습득하려 했던 태권도 기술을
 연속 사진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한 까닭이다.
 느낌을 살려 많은 연습으로 체득해 보자.

앞차기

차는 다리의 무릎을 접어 끌어 올리며
 가슴에 가까이 올 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앞으로 내뻐는다.
 발가락을 젖힌 앞축으로 목표를 가격한다.
 찬 발을 무릎을 접어 끌면서 지면에 내려놓는다.



시범 정다인



TIP

1. 딛고 있는 다리는 무릎을 펴야 한다.
2. 차는 도중에 딛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은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뛰어 앞차기

앞차기의 응용 동작으로, 더 높은 목표를 차기 위한 기술이다.
 차는 방법은 앞차기와 동일하며,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여
 몸을 공중으로 띄어 찬다.



시범 박광호



TIP

1. 차는 발의 반대쪽 발 무릎을 접어서 최대한 높게 올려야 높게 찰 수 있다.
2.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착지 시 넘어질 수 있다.

옆차기

차는 다리의 무릎을 끌어 올리면서 몸을 차는 방향 반대로 튼다.
 접었던 무릎을 뺀으며 발뒤축으로 목표를 가격한다.
 차는 순간 고개를 젓혀 목표를 바라본다.
 찬 다리를 끌어 들어 원위치나 마음에 정한 곳에 옮겨 놓는다.



시범 조정현



TIP

1. 딛고 있는 다리는 발목을 충분히 펴라.
회전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딛고 있는 다리는 찰 때 무릎을 펴라.
추진력을 줘 가속도를 붙게 한다.
3. 차는 순간 상체를 차는 방향 반대쪽(뒤쪽 방향)으로 눕히지 마라.
추진력이 떨어진다.

뛰어 옆차기

옆차기의 응용 동작으로, 더 높이 멀리 차기 위한 기술이다.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여 몸을 공중으로 띄워 찬다.



시범 박광호



TIP

1. 점프하면서 두 무릎을 최대한 접어야 한다.
2. 타격 시 무릎을 편다.

도움말 이준우 대한태권도협회 시범 공연단 단장
 기술도움 김종수 대한태권도협회 시범 공연단 트레이너
 시범 대한태권도협회 시범 공연단
 참조 『태권도 기술 용어집』 (국기원·2006년)

태권도인이여, 서로 존중하고 단합하자



글 김경일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경기위원장

무지개가 떠오르는 태권도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세상이라 하면 우선, 아름다운 태권도 경기장이 연상된다. 그곳은 풍광이 멋진 곳에 외관이 미려하고 조형물이 멋지게 설치되어 있는 주경기장과 부속시설이다. 그곳은 또 실내의 공간이 넉넉히 확보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멋지게 꾸며진 곳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물리적 환경이 멋진 경기장을 갖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태권도 경기장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태권도인들 모두가 하나 되어 태권도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질서와 규칙이 존중되고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된 당당한 경쟁의 장이며,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그 기초를 마련해 나가는 교육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 공간과 사람,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겠으나, 더욱 소중한 하여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가 만들어왔던 태권도 경기장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구태를 반박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역사를 가진 그 무엇이라 해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며 태권도 또한 그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태권도 관련 종사자는 도장의 관장과 사범, 무도경찰, 유흥업소 관계자가 고작이었다. 연간 대회가 수차례 열리긴 했지만 선수층도 두터운 상황은 아니었으며, 해외사범들의 활약도 아직은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었다. 관련사업도 영세한 도복 제작자뿐이었다.

뚜렷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에 태권도장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각 대학의 태권도 학과의 개설이나 각급 학교에 겨루기 중심의 팀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또 해외사범의 파견도 제도권이나 개인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작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권도 업무관련 종사자들의 영역이나 역할의 폭이 전문화·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장 현장에서 그 소임이 세분화·전문화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겨루기 심판부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꾀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통하여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과 같이, 타 부서 또한 신분보장과 함께 보상책을 강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전문성을 높이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예전에 비하여 태권도 스펙트럼이 커졌고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미분화가 이뤄졌으나, 업무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계에 많은 우수한 인력과 자원은 있으나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구슬은 서말인데 꿰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그 사유나 과정이 어찌되었던,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끊임없이 송사에 휘말리고 시위와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 각계에 비치는 태권도의 국내외적 이미지 손상이나 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현정부 들어서 태권도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태권도인들의 내분과 갈등은 우리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리라 여겨진다.

특히, 단합되지 못하는 조직이나 단체에게 누가 무엇을 주려 하겠는가 말이다. 이제는 태권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안을 모색하여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부끄러움 아닌가? 아니 지금도 너무나 부끄럽고 후배들 앞에 서기가 낫 뜨거운 일이다.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갈아 먹어가며, 특정집단에 의한 “오직 내가 해야 한다!” 혹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나는 이제는 모르겠다.”는 태권도인이란 말이 그 누구도 이는 ‘우리’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한다. 일방에서 보기에 그것이 부정적이고 배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태권도를 위해 하나 되는 길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긍정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양보, 배려, 포용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의사결정과정을 구축하고 더욱 창조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태권도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2018년도 전반기를 보내는 오늘, 커지고 넓어진 태권도 스펙트럼의 각 영역별 각각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여 서로 간 다른 색도 상호 존중하자. 지금은 가시광선이 돋보이고 적외선과 자외선까지 아우르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태권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지하자.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태권도 중흥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는 장애인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글 최진우 국제태권도신문 편집인 겸 선임 기자

장 애인 태권도는 지난 2009년 9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 태권도연맹이 제1회 세계장애인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화에 돌입하였고, 이후 매해 세계장애인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세계화에 성공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5년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태권도를 2020 도쿄 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고, 태권도는 비장애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모두 정식 종목으로 도입되는 세계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은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비장애인 태권도의 경우 1963년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가입되어 현재까지 54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1,000여만 명의 승품단자를 배출하는 등 물리적인 급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장애인 태권도의 경우 중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보급과 확대, 연구개발 등을 위한 체계는 2009년이 되어서야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가 창립되어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는 태권도가 첫 정식종목으로 도입된 2009 소피아농아인올림픽을 시작으로 2013 타오위안농아인올림픽, 2017 삼순농아인올림픽과 2009년부터 개최된 세계장애인 태권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함으로써 본격적인 보급 및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2010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도입되고 이후 201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치러지면서 선수의 발굴과 육성의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상태다.

현재 비장애인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태권도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스포츠연맹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경우 현재 1개 국가당 1개 협회만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많은 해외 국가와 달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체육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주국 장애인 태권도를 주관하는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 중주국 장애인 태권도를 주관하는 단체는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로 나뉘어있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한태권도협회를 회원국으로 인정해 대한태권도협회에게만 회원국의 권한을 주고 있다.

중주국 장애인 태권도는 단순히 태권도인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만으로는 발전에 한계성이 있다.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예산지원 및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중주국 장애인 태권도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갖춘다면, 신인선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펼칠 유능한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비장애인 태권도보다 더욱 짧은 기간에 활성화를 이루고 중주국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비장애인 태권도는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창립 이후 5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화를 이뤘으며, 중주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로 평가 받으며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비장애인 태권도가 정부와 여러 유관단체의 지원을 통해 진정한 세계화를 이뤘다면, 이제 장애인 태권도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는 이제 장애인 태권도의 성장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비장애인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제 장애인 태권도에 필요한 때다.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적 향상이 최우선 과제다.

국기원은 장애인 태권도 공인품새 지정을 통해 장애인 태권도승(품)단 심사의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태권도사범지도자 연수와 해외 장애인 태권도사범 파견 사업을 통해 세계 각국에 장애인 태권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급 및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장애인 태권도의 기술체계를 적립하고, 모든 장애유형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태권도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장애인경기지도자와 장애인전문심판원, 등급분류사 등의 장애인 태권도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장애인 태권도의 전문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체육이 비장애인체육과 분리되어 운영중인 국가의 경우 장애인 태권도를 전담하는 단체를 장애인 태권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회원국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여 장애인 태권도가 국가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의 미래가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에 걸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태권도진흥의 최우선 과제를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로 정해 정부의 지원 아래 장애인 태권도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타이거즈 이욱현 태권도 선수, 머슬마니아 대회에서도 정상에 서다

101 히 피트니스(Fitness)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피지컬 피트니스(Physical Fitness)이다. 밸런스가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내는 일, 또는 그것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헬스'라고 널리 알려진 피트니스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수련한다. 비만관리, 부상치료, 전문 운동선수의 기능 향상처럼 폭넓은 분야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종목을 막론하고 프로, 아마추어 스포츠 현장에서 피트니스의 활용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피트니스는 개인의 근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이 가능하며, 각 동작의 원리, 운동과 부상에 관련된 정보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장 쉽게,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게 느껴져 많은 현대인들이 '헬스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스포츠 마니아(아마추어) 계층이 두터워지면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 중 '머슬마니아'는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대회일 것이다. 머슬마니아에 참가한 유승욱, 정미리, 심옴 등 수많은 입상자들은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들 가운데 유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태권도인이 있다. 그의 이름은 이욱현.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K-타이거즈 시범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18년 머슬마니아 퍼포먼스 분야에서 태권도를 활용한 독창적인 연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를 만나 보았다. 이욱현은 10살에 처음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였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해 잠시 수련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K-타이거즈 단원들의 고난도 격파와 절도 있는 품새 시연에 반해 17세에 다시 태권도를 수련했다. 다른 수련생들에 비해 늦은 만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운동한 결과 고교시절 품새 단체전 1위, 개인전 2위 등 좋은 성적을 거뒀고,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품새뿐만 아니라 시범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졸업 후 태권도를 포기했던 자신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었던 K-타이거즈 시범단에 입단하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그가 머슬마니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는 "머슬마니아 대회 참가는 자신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꿈은 대개 현실에 부딪히는 법. 그는 태권도 선수로서의 활동과 웨이트 운동을 병행하기에는 크나큰 심적 부담과 적절한 웨이트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두려웠다고 한다. 그러다 태권도 선배이자 가까운 지인인 이동기(2017 머슬마니아 퍼포먼스 분야 우승자)를 보고 많은 영감과 용기를 받았다고 한다.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듯 이욱현도 식단관리가 제일 힘들었다고 답했다. 자신의 몸을 가꾸는 피트니스는 식사시간을 꾸준히 지키면서 정확한 시간에 보충해 줘야 하는데 머슬마니아와 연관이 있는 헬스트레이너와는 다르게 이욱현은 태권도, 웨이트,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그날 그날 비워진 시간에 허겁지겁 먹거나 닭 가슴살만 먹었으며 머슬마니아 준비 기간에 아시안게임선발전이 열려 대회 연습과 체중관리, 식단관리를 병행하여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이욱현은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상소감을 묻자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은 "전부 곁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겸손해 했다.



태권도 시범단원이면서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우승한 이욱현.

이욱현은 이어 "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게 옆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운동, 포우징 그리고 시합 당일 서포터까지 함께 해준 이동기 형과 퍼포먼스에 필요한 음악구성 및 제작을 지원해주신 K-타이거즈 안창범 이사님, 좋은 기구와 환경을 제공해주시고 현 심사기준 등 유의사항 등 많은 정보를 도움주신 '유어 짐' 박선화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이욱현은 K-타이거즈에서 계속 활동하며 태권도 품새 대회에 꾸준히 출전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물론 머슬마니아 대회 출전도 계속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계획이다. 피트니스 운동으로 근력 운동에 새로운 지식이 쌓이면서 그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품새 운동 특성에 맞는 근력 보강 트레이닝 기법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 동료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자유품새, 새품새, 시범 등 품새 대회 종목이 다양해지다보니 선수들의 부상이 잦아지는 걸 직접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태권도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팀인 P.O.M(Performance Of Muscle) 팀과 함께 증명해 보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KFA**

글·사진 정혜나



지금 KTA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은 새 기술 연마 중

30 여 년간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통해 국가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단'. 그들은 그동안 100여 개국을 순회하며 중주국 태권도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대표 시범단이기 전에 각자 소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 1회 모여서 운동을 한다.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웨이트 운동과 재활운동 등 체력 단련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범단 주장인 이승진씨는 "태극마크를 달고 수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기술의 정확성과 난이도를 올려야 하므로,

기술 훈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단은 태권도 전 공생이면 누구나 꿈꾸는 기회다. 그는 "입단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동작, 기본 발차기, 품새, 겨루기뿐만 아니라, 격파, 호신술, 태권 체조 등 시범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쟁쟁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입단 경쟁이 어느 시범단보다 치열하다. 이씨는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또 합격 이후에도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단 준비 기간 동안 초심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도전하는 학생들

을 응원했다. 국가대표 시범단은 태권도 시범 공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2016년부터 태권도 퍼포먼스 '킥스(KICKS)' 사업을 시작했다. '킥스' 공연은 끝났지만, 새로운 공연을 위해 스태프들은 매주 회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당장 공연은 열리지 않지만 그들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태권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태권도 시범 기술의 변화, 태권도 시범의 보급 등 태권도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단순히 저희의 기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한 꿈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씨는 "국가대표 시범단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고난도의 기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태권도인의 긍지를 느낀다."면서 "중주국 태권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젊은 태권도인들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KFA**

글·사진 공찬욱



미국 공교육이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까닭은?

전 교생에게 한글과 태권도를 가르치는 미국 학교가 있어 화제다. 뉴욕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렘 차터 스쿨(Democracy Prep Charter school)'이라는 학교는 교육수준이 낮기로 유명한 할렘가에 위치했지만 설립 5년만에 뉴욕주 고교생 졸업 시험에서 상위 5%안에 드는 명문으로 부상해 미국 교육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학교 설립자는 세드 앤듀(Seth Andew) 교장이다. 그는 브라운 대학 졸업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에서 원어인 교사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특히 그의 교육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한국의 예의범절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의 문화를 학교에 도입했고, 한국의 입시 위주 교과 과정을 적용했다.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만 한국처럼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할렘가라는 위치 특성상 흑

인과 히스패닉 계열의 학생이 대부분이다. 뉴욕의 빈민가에 그는 데모크라시 프렘 재단의 자율형(Charter) 공립학교를 세웠다. 현재는 뉴욕주에 6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앤듀 교장은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전교생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 한국 예절과 태권도, 봉사 탈춤까지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를 교과과정에 집어넣은 학교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인 중심적이고 토론 위주의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태권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태권도 클럽이나, 정규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배우는 학교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페이지 등이 생겨나고 있다.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녀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자녀가 태권도를 배우면 자녀가 존경과 자기 수양을 배우고, 자신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팀



워크를 몸소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 지침을 따르는 방법 등을 체득하고, 신체 활동을 즐기는 법 등 태권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나열하며 태권도 교육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들에게 태권도는 단순히 주먹과 발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맨손 무예가 아니다. 인내와 극기, 공경과 예절 등 인성교육 이아말로 태권도 수련의 진짜 힘이자 가치인 것이다. **KFA**

글·사진 박진주

한국으로 전지훈련 온 인도네시아 품새 선수들

인 도네시아 서(西) 자바주 품새 대표선수들이 한국을 찾았다. 오직 품새에 대한 열정으로 전지 훈련차 방한한 것이다. 약셀 리츠키, 브릴리안 판제스투 링가르왕이, 올란 쿠수마 아라다니 등 3명의 선수와 감독이 그들이다. 이들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금메달태권도장'의 임성빈 관장 지도 아래 훈련을 진행했다. 태권도 저변이 그리 넓지 않은 인도네시아 선



수이지만 이들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며 국가대표급 실력을 지녔다. 지난해 세니어 선수권대회 품새 개인전, 단체전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이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 22일 한국에서 열린 '미션컵 전국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강자다. 이들이 전하는 인도네시아 태권도 열기는 예상 밖으로 대단했다. 국가적으로 태권도 인기가 많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태권도를 즐기며 배우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지역, 지방, 국가차원에서 여러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8월 아시안게임 개최지로서 태권도 품새가 인도네시아 금메달 경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 한 달간 생활을 하며 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들은 "품새 지도와 운동방법에 있어 다양하게 배워서 좋았고, 호흡, 리듬, 힘의 강약을 배우으로써 더 큰 품새 세계를 느꼈다"면서 "지

속적으로 한국 사범들과 함께 훈련하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을 전했다. 브릴리안은 훈련 도중 쓰러진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그는 "훈련 강도가 인도네시아와 달라 체력 훈련 도중 현기증이 나 쓰러졌다"면서 "그 당시에는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의 한계점을 경험한 것 같아서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태권도 수련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쓰러지면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고 휴식을 취한 후 금방 회복이 됐다고 한다. 이들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추가된 새 품새와 자유 품새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약셀 리츠키는 "새로운 동작과 화려한 기술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에 있어 큰 장점"이라면서도 "새 품새를 배우기 위해 회전, 아크로 바틱 등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글·사진 박해진**

한국 대학생, 부탄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다

계 명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웅 군이 히말라야 소국 부탄의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중이다. 김 군이 부탄으로 가게 된 것은 올 초 태권도학과 남승현 교수의 추천 때문이다. 그가 부탄으로 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국가에서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겁도 나기도 했다. 하지만 부탄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부탄 사람들은 어떤 태권도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칠 태권도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학기 인턴십을 통해 3개월 동안만 머물려고 했지만 3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3개월 간 그는 부탄 태권도 국가대표팀 선수 및 협회 임원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탄 국가대표팀은 20명의 선수와 2명의 코치, 1명의 감독으로 구성돼 있다. 부탄 대표 선수들은 모두 품새, 겨루기, 시범 세 분야의 국가대표였다. 훈련비중은 겨루기 70%, 품새 20%, 시범 10%로 겨루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부탄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태권도만 하지 않는다. 각자의 일을 모두 끝내고 훈련에 참가한다. 학생, 택시기사, 초등학교 코치, 애니메이션 그래픽 회사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간은 새벽 5시부터 7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파트로 나눠 훈련하고 있다. 부탄 국가대표팀은 부탄의 연예인, 영화배우보다 한국의 이대훈, 김태훈 선수를 더 좋아한다. 휴대폰 배경화면은 기본이고, 선수들의 사진을 스티커로 만들어 가방이나 필통, 책에 붙이고 다닐 정도다. 그들은 태권도와 한국을 사랑한다.



김 군이 부임하니 부탄 겨루기 선수들은 전자호구 대신 일반호구로 훈련하고 있었다. 국제대회 승리를 위해서는 전자호구에 특화된 기술 연마가 필요했었다. 김 군이 코치를 맡은 뒤 부탄 선수들은 전자호구에 최적화된 기술을 집중 연마했다. 5월 호치민 아시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이 1차 목표이고 다음은 부탄이란 나라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글·사진 정준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 대학생 태권도 선수의 알짜 팁

태 권도선수들이 입시를 위해 운동하던 청소년 시절을 힘겹게 지낸 후, 도달한 목표는 바로 '대학생'이다. 확실히 고등학생 때 보다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덜 하다. 하지만 '프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자율성과 강제성의 경계에 마주하는 이들이 바로 대학생이다. 그들이 대하는 '태권도 경기'의 뒷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청소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마추어를 지나 '프로'에 근접해가는 그들의 선수생활에 어떤 특이점이 있을지 궁금했다. 태권도는 품새와 겨루기, 시범이라는 3가지 분야에서 선수들의 종목이 나뉜다. 경희대, 한체대, 가천대 선수단을 만나 태권도 경기의 심리, 슬럼프 극복, 트레이닝 기법,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경희대학교 겨루기단

선수들이 부상으로 슬럼프를 많이 겪을 때 운동 수행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만 집중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운동에 임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특이했던 사례는 운동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자신의 실패 사례를 떠올린다는 선수도 있었다. 경기에서 지거나 울었을 때를 떠올리며 자신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를 상기한다고 했다. 꼭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고, 특별히 이 선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극복도가 높은 편이라고도 했다. 이는 슬럼프 극복 방식이 개개인에 따라 다른 방식의 심리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안정된 심리상태를 위해 경기 전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답변 또한 고무적이었다. 땀을 하는 방식도 다양했는데, 한 선수는 몸이 무거운 날에는 오히려 힘들게 몸을 푼다고 하였다. 조금 무리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숨이 트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겨루기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경기 절차는 체계이다. 선수들은 보통 2주 전부터 체중관리에 들어가는데, 감량은 하루에 500g 정도씩 꾸준히 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운동과 식단을 동시에 하기에 무리가 많이 감으로 선수들이 감량무게를 계산해가며 다이



에트를 실행한다고 했다. 체계 날에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멋진 속옷을 입는다고 했던 것이다.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또 특이했던 것은 유산소 운동 후, 체중증가를 염려해 물 대신 얼음을 섭취한다는 독특한 방법도 들 수 있었다. 선수로서 가장 멋진 순간은 언제라고 느낄까. 경기 후 헤드기어를 벗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답변한 선수가 많았다. 그래서 경기 당일에는 누구보다 멋지게 머리를 정돈한다는 답변이 인상 깊었다.

가천대학교 시범단

기본기를 돌아보며 슬럼프를 극복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본발차기를 하나하나 쪼개어 수행하며 생각을 정리하며, 실제로도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태권도 수련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서킷트레이닝 등을 통해 다른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한다고 한다. 안 되는 것은 제쳐두고 다른 집중할 것들을 수행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특이한 루틴은 항상 머리를 올리

나, 승리부적처럼 여기는 속옷을 착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루틴을 통해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자신감을 얻는, 그들의 독특한 방법도 눈길을 끌었다. 경기를 앞둔 가천대 시범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미있었다. 그들만의 신선한 컨셉의 태권체조에 관한 일이었다. 지난 대회에서는 '농촌'이라는 컨셉으로 태권체조를 준비한 만큼 초록색의 새마을을 모자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새마을금고 은행에 찾아가셨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한국체육대학교 품새단 가은

한국체육대학교 품새단은 재미있는 루틴이 많았다. 경기 당일, 각성된 몸 상태를 위해 후배들이 타주는 냉커피를 꼭 챙겨 마신 뒤, 땀을 닦는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도복에 뿌리고 경기에 임하는 등 자신만의 다양한 루틴이 있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모습도 다양했다. 바로 경기이외의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운동이 힘들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운동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슬럼프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여러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 만큼, 고교 선수들에게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경기를 준비하는 특별한 양상으로 는 여자 단체전 선수들끼리 머리끈을 맞추는 것을 들 수 있었다. 자그마한 특별함을 통해 선수들 간의 호흡과 의지를 다지고, 더욱 시신이 갈 수 있도록 고안해 낸 특별한 필승법이라고 소개했다. **글 김수진 사진 김수진, 태권도신문 제공**



무용수, 품새 선수가 되다

무용 전공자가 태권도 품새를 연마하면 실제로 품새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무용수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정무 태권도장에서 수련중인 주희씨. 그의 진짜 직업은 무용을 전공해 공연을 만드는 안무가이자 무용수다. 그의 하늘 높이 지르는 옆차기는 멋있다 못해 우아하기까지 하다.

주씨는 어릴 때부터 취미로 무용을 시작했지만 잠시 그만 둔 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부터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대학 전공으로 이어졌고 졸업 후에는 유럽에 가서 무용에 관한 다양한 워크숍에 참가했다.

“처음에는 현대무용이 서양 무용이니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직접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막상 가서 보니 유럽의 유명한 무용가들이 하고 있는 게 동양무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유럽에 가서 배울게 아니라, 현재 본인이 있는 곳에서 본인만의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돌아가 무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태권도를 배운 것은 아니었다. 주짓수, 태권도 등 여러 무술들을 알아보았는데 헬스나 수영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수련비가 더 싸고,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결국 태권도를 택하게 됐다.

“처음에는 품새보다는 겨루기가 더 재미있었어요. 겨루기는 싸우는 대상을 직접 두고 한다는 점에서 무용과는 다르고 새로운 트레이닝이 많이 되었어요.”

품새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서울 신촌 가온 태권도장 사범의 권유가 컸다고 한다. 태극 1, 2, 3장을 배울 때 장차 국가대표감이이라며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처음 품새 수련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무용을 했으니 유연성이 좋고, 동작을 외우고 정확한 선을 만드는 데는 태권도 전공자보다 흡수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준비하면서는 디테일한 훈련이 많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검은 띠를 따고부터는 아마추어 품새 대회에 나가게 됐다.

아마추어 대회에 입상한 뒤인 2017년도부터는 전문 선수를 목표로 품새 훈련을 했다.

“제가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에는 익숙한데, 품새 대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공연은 모두가 나를 집중해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고. 근데 대회장은 너무 산만한 곳에서 경기가 벌어지면서도 제 움직임 하나 하나가 점수에 직결되더라구요. 그게 1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수하는 만큼 점수가 깎이는데.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간 대회에서는 페어로 출전해 동메달을 땀다.

주씨는 지금도 본업인 입시 무용생들을 가르

치고 안무를 짜고 공연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새 수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품새는 늦게 시작했고 선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처럼 품새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무용과 품새 모두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이들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몸을 잘 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무용과 품새는 연관성이 커요.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하고.”

현대 무용의 경우 정말 다양한 몸짓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것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공연을 하면서는 창작자가 된다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태권도와 무용을 같이 하고 있으니 품새 공연에서도 본인만의 언어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품새의 흥미로운 점은 힘을 발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단순히 근육의 힘만 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면을 누르는 힘이 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강한 힘이 발산이 되는데, 그러한 원리들이 흥미로워요. 그리고 품새는 신체인지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신체를 강하게 인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점에서 품새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품새를 할 때 힘과 속도에 대한 안금 조절도 중요하데, 결국 그런 것도 다 몸을 잘 운용하는 방법들이니까요.”

그는 올해 품새 대회를 최대한 나갈 계획이고 공연 활동 또한 꾸준히 할 것이라 한다. 향후 목표를 묻자 생각지도 못한 철학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훌륭한 선수, 잘 나가는 무용수 그런 목표가 없어요. ‘좀 안 훌륭하면 안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려고 연습하고 열정을 다해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등 외에 다른 선수들이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훌륭한 원가가 되는 것 보다는 어떤 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소명이나 즐거움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KA**

글·사진 최성욱



무용수이면서 태권도 품새 선수로 나서 입상한 주희 씨(오른쪽).

01

경기도협회, 8회 태국왕실 공주컵 국제대회 공동 개최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김경덕)는 5월 5일 재태국 한인태권도사범연합회(회장 박종화)와 공동으로 태국왕실 공주컵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왕실 타이틀이 걸린 권위 있는 태권도 대회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의 파타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15개국 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출전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과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대회는 대회 규모가 예년의 2배로 커졌다.

판소리로 애국가 불려지고 70세 이상 실버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 시범, 아리랑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를 접목한 화려한 율동과 격파 시범 등은 현지 태국 관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전라북도 도청에서 지원한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한국 문화와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무예타이의 중주국 태국에서 태권도 인기는 매우 높다. 태국 전역에 태권도장이 3,000여개나 되고 태권도 인구도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태국 국민들이 특히 격투기를 특히 좋아하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태국 국가대표 최영석 감독의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 감독의 지도를 받은 태국 태권도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며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김경덕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한국과 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태권도대회를 계기로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심덕진 사진 경기도태권도협회 제공



02

울산광역시, 태권도 대표 시범단 창단

울산광역시가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3월 31일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했다.

울산 중화체육관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윤시철 시의회의장, 정갑윤 국회의원, 시교육청 김영오 교육국장, 울산시태권도협회 임원 및 태권도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울산시 태권도시범단 창단을 축하했다.

울산광역시 태권도 시범단은 초·중·고·대학부 시범단원(50명)과 감독, 코치 등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차도철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이, 부단장은 손효봉 울산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임명되었으며, 감독에는 현 울산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박학순 의장이, 코치는 전 울산광역시태권도 시범단 유현수 단장이 맡았다.

시범단은 울산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 수준 높은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계획이며 전국 단위의 대회에도 참가해 울산시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시범단은 울산시태권도협회 태권도 훈련장에서 매주 주말을 이용해 태권체조, 기본연합동작, 품새, 종합격파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정책에 맞춰 태권도와 울산을 알리기 위해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했다”라고 창단 배경을 말했다.

글 강정덕 사진 울산시태권도협회 제공





**“경기장 정장 착용은 태권도인의 의무”
지도자 위상 높이기에 나선 이화현 인천 회장**

03

“지도자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다. 태권도가 너무 가벼워졌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시태권도협회 이화현 회장이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놔 태권도 경기장 품격을 높이는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태권도가 다른 경쟁적인 스포츠와 구별되어 지는 이유는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예(禮)’를 중시하는 무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지도자들은 승부욕에 치우치다보니 스탠드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관중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품위를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이화현 회장은 흔들리고 있는 지도자의 위상과 품격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강 세우기에 앞장섰다.

지난 해 인천시태권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취임 전부터 경기장에서 지도자들이 정장 차림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기를 원했다. ‘웃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도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복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취임 후에는 지도자들의 복장을 정장차림으로 바꾸라고 강조했고 가장 멋진 차림의 복장을 한 지도자에게는 자비로 ‘드레스 상’을 주며 관심을 높였다.

이 회장은 또 대표자회의와 국기원심사, 각종 대회에서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도자의 위상과 품격이 학부모들에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이회장의 노력에 지도자들이 동참했고 지금은 지도자의 위상이 섰으며 품격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도자는 “정장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학부모가 인사하는 태도를 보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나부터가 정장을 하고 있으면 언행에서 조심을 하게 된다”며 찬성론을 폈다.

이같은 이 회장의 주문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일부 지도자의 반발도 있었다. 경기장 내에서 지도자의 복장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청바지 차림의 지도자가 어색한 것이 현실이다”고 전제한 뒤 “스스로가 위상을 세우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글 박종석 사진 인천태권도협회 제공



태권도 경기장 흡연, 더는 안된다.

04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한국중고연맹회장기태권도대회가 치러진 경남 김해체육관. 관중석은 승리를 바라는 각 팀들의 열띤 응원전으로 후끈 달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회 진행 임원들이 경기를 잠시 중단했다. 방송에서는 “태권도 가족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자랑하자”며 “관중석 청결을 위해 각 선수단 응원석을 청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장 밖의 모습은 이와는 딴판이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과 학부모들이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다니는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바로 대회 임원들과 지도자들이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 내뿜는 담배연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장 주변 곳곳에 버려진 담배꽂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는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실내체육관 주변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다. 대회가 열리는 실내체육관은 보통 시외에 공원과 함께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된다. 공원이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때문에 대부분 흡연부스 등 흡연 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태권도 경기가 열리면 달라진다. 일부 임원 및 지도자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맘대로 흡연’ 때문에 경기장 주변 전체가 흡연구역이나 진배없다. 체육관 청소 도우미들이 투덜대며 청소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 대부분은 선수와 관계된 태권도 가족들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자랑하자던 일부 임원 및 지도자들의 경기장 주변 흡연은 어린 선수들과 태권도 가족들에게 참피함을 모르는 행동으로 지적당해 마땅하다.

조카를 응원하러 왔다는 김해시의 한 관중은 “담배 냄새도 불쾌했지만 체육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임원이어서 더 놀랐다”고 말했다. 실내체육관의 한 관계자는 “높은 분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고 공초를 버려 줍기도 힘들다”며 “오히려 사람이 많은 관중석이 더 깨끗하다”고 비꼬았다. 한 때는 체육관내 관중석에서도 흡연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아주 먼 옛날이야기다. 지금은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눈치를 볼 정도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임원 및 지도자들 스스로가 경기장 주변에 흡연 구역이 없다면 흡연은 비상식적 행위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지켜 경기장 주변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태권도 가족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글 박종석 사진 인천태권도협회 제공

‘웃음 소녀’ 임소현, 3개 대회 연속 우승

05

‘웃음 소녀’ 임소현(인천부일중 3년)이 한국 여자 태권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소현(부일중 3년)은 28일 충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여중부 -48kg급 결승에서 경남 대표 박가경(곤양중)을 10대 2로 물리쳤다. 지난 1월과 4월에 열린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와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여자중등부 경기에서 우승했던 임소현은 최근 열린 3개 전국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기염을 토했다.

임소현은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모두 압도적인 실력차로 우승해 현장의 태권도 관계자들로부터 “태권 천재가 나타났다”는 극찬을 들었다. 임소현은 예선 1회전에서 21대 2, 2회전인 준준결승 23대 9로 이기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가장 적은 점수 차이인 6대 2로 승리한 데 이어 결승에서 10대 2의 스코어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특히 임소현은 2013년 이후 소년체전에서 금빛 사냥에 실패한 인천 여중부에 5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 기쁨이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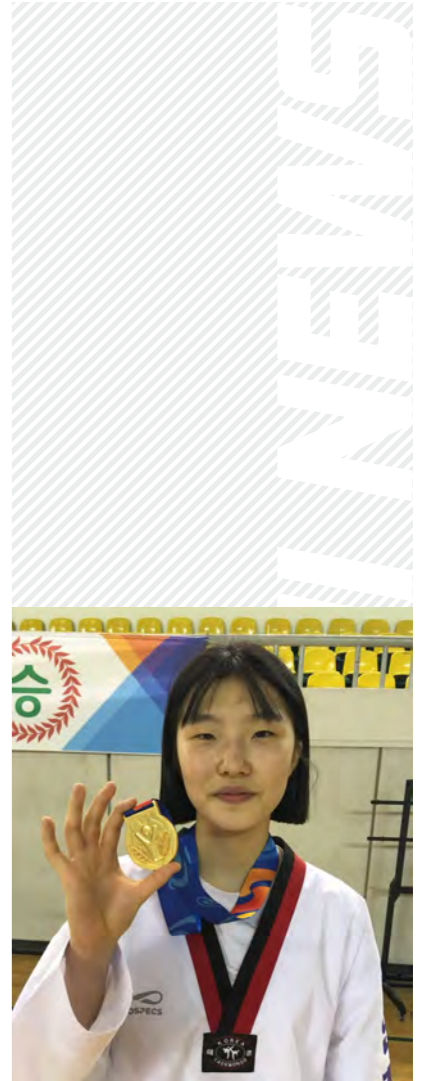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소현은 “많이 웃는 나 때문에 운동이 힘들어도 동료들 분위기는 항상 즐겁다”고 말했다. 또 “성격적으로 긴장감 넘치는 태권도 경기와 조화가 잘 맞는 것 같다”며 “여유 있는 마음 때문에 상대 선수의 작은 빈틈도 잘 보인다”고 자랑했다. 임소현은 중학교 1학년 첫 대회인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첫 대회 출전에서 우승한 그에게 태권도는 쉽게만 여겨졌다. 그러나 학년 구분 없이 치러지는 각종대회에서 경기 경험 부족으로 수많은 패전을 경험해야 했다. 이 때문에 태권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 한때는 선수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임소현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자고 웃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체중 6kg을 뺀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임소현은 “경기 중 긴장감과 이겼을 때의 짜릿함이 계속 태권도를 하게 한다”면서 “국가대표를 목표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여름 방학 때 부일중을 졸업한 국가대표 출신 김소희(에스원) 선배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선배님은 태권도 선수로서 나에게 둘도 없는 멘토”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자신감을 얻은 임소현은 지난 해 9월 국방부장관기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급성장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2018년 첫 전국대회 제주평화기에서 최우수선수로 정상에 올랐다. 또 4월에 열린 한국중고연맹회장기에서 두 번째 최우수선수상을 받으며 포기하지 않은 웃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앞발 상단차기와 뒷차기가 특기인 임소현은 오히려 이기고 있을 때 소극적인 것이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될 정도다. 이지에 코치는 “밝고 명랑한 데다 엄청난 노력파다. 본격적으로 운동에 전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운동 이해력이 빨라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글 박종석 사진 인천일보 제공



제5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품새 | 5월 24일 | 베트남 호치민

공인 품새 Under 30

- ▲ 남자 개인전 = ① 강완진
- ▲ 여자 개인전 = ① 김효민
- ▲ 페어 = ① 김선호·김효민

공인 품새 Under 40

- ▲ 남자 개인전 = ② 김도경
- ▲ 여자 개인전 = ① 김은주
- ▲ 페어 = ① 김도경·김은주

공인 품새 Under 50

- ▲ 남자 개인전 = ① 김학동
- ▲ 여자 개인전 = ① 김연부

공인 품새 Under 60

- ▲ 남자 개인전 = ① 배용신

자유 품새

- ▲ 남자 개인전 = ② 나태주
- ▲ 여자 개인전 = ② 곽여원
- ▲ 남자 단체전 = ① 한영훈·나태주·강완진
- ▲ 여자 단체전 = ① 곽여원·윤지혜·최동아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겨루기 | 5월 25 ~ 26일 | 베트남 호치민

남자(종합 우승)

- ▲ -54kg = ① 장준
- ▲ -58kg = ① 김태훈
- ▲ -63kg = ① 조강민
- ▲ -68kg = ② 김석배 ③ 신동윤
- ▲ -74kg = ③ 김대용
- ▲ -87kg = ③ 이승환
- ▲ +87kg = ① 인교돈

여자(종합 준우승)

- ▲ -46kg = ③ 이예지
- ▲ -49kg = ① 강보라
- ▲ -53kg = ① 하민아
- ▲ -57kg = ③ 이아름
- ▲ -62kg = ③ 김소희
- ▲ -67kg = ③ 김진디
- ▲ -73kg = ① 오혜리 ③ 이다빈
- ▲ +73kg = ② 김빛나

우수 지도자

이동환

우수 선수

장준

2018 아시안 게임 선발전

품새 | 4월 24일 | 가평 한석봉체육관

남자 1조 예선

- ① 한영훈(가천대) ② 한상희(가천대(일반)) ③ 배중범(조선대) ④ 조은상(가천대)
- ⑤ 이욱현(K타이거즈) ⑥ 유주현(용인대) ⑦ 이승준(한국체대) ⑧ 이재원(한국체대)
- ⑨ 홍도균(한국체대) ⑩ 서원우(경희대) ⑪ 이창식(흑룡태권도장) ⑫ 정우혁(경희대)
- ⑬ 김진우(경희대) ⑭ 강민구(한국체대) ⑮ 김영서(용인대) ⑯ 권준호(용인대)
- ⑰ 반정복(한국체대) ⑱ 김태민(용인대) ⑲ 이승용(경희대) ⑳ 정석호(우석대)

남자 2조 예선

- ① 박광호(한국체대) ② 나태주(K타이거즈) ③ 김선호(용인대) ④ 강완진(경희대)
- ⑤ 강민서(경희대) ⑥ 오창현(용인대) ⑦ 송동철(한국체대) ⑧ 김민중(용인대)
- ⑨ 이강민(K타이거즈) ⑩ 지호철(국가대표태권도장) ⑪ 정지윤(가천대)
- ⑫ 박민우(경희대) ⑬ 정승환(가천대) ⑭ 유준상(용인대) ⑮ 조정현(한국체대)
- ⑯ 이남경(가천대) ⑰ 신진호(오금고) ⑱ 김도형(용인대) ⑲ 김지원(한국체대)
- ⑳ 조영진(경희대)

여자 1조 예선

- ① 곽여원(강화군청) ② 윤지혜(한국체대) ③ 정승연(용인대)
- ④ 박소정(한국체대중평태권도장) ⑤ 윤보미(가천대) ⑥ 김유진(가천대)
- ⑦ 이소영(경희대) ⑧ 박민주(용인대) ⑨ 박해진(경희대) ⑩ 김서희(용인대)

- ⑪ 최서인(경희대) ⑫ 심소미(용인대) ⑬ 전주아(조선대) ⑭ 정도희(용인대)
- ⑮ 이연희(용인대) ⑯ 유설아(용인대) ⑰ 편채연(조선대) ⑱ 김영주(용인대)

여자 2조 예선

- ① 장한별(흑룡태권도장) ② 최동아(경희대) ③ 박재은(가천대) ④ 김지수(경희대)
- ⑤ 정화경(한국체대) ⑥ 엄지민(경희대) ⑦ 이서영(가천대) ⑧ 구은총(용인대)
- ⑨ 장인선(용인대) ⑩ 홍석희(용인대) ⑪ 나혜민(용인대) ⑫ 강만영(용인대)
- ⑬ 오예은(용인대) ⑭ 이효정(용인대) ⑮ 추예은(조선대) ⑯ 한예솔(조선대)
- ⑰ 이성희(조선대) ⑱ 김민경(용인대)

남자 1조 본선

- ① 한영훈(가천대) ② 조은상(가천대) ③ 한상희(가천대(일반))
- ④ 이욱현(K타이거즈) ⑤ 배중범(조선대) ⑥ 이재원(한국체대) ⑦ 유주현(용인대)
- ⑧ 정우혁(경희대) ⑨ 이승준(한국체대) ⑩ 강민구(한국체대) ⑪ 서원우(경희대)
- ⑫ 홍도균(한국체대) ⑬ 김진우(경희대) ⑭ 권준호(용인대) ⑮ 이창식(흑룡태권도장)
- ⑯ 김영서(용인대)

남자 2조 본선

- ① 박광호(한국체대) ② 김선호(용인대) ③ 강완진(경희대) ④ 나태주(K타이거즈)
- ⑤ 송동철(한국체대) ⑥ 지호철(국가대표태권도장) ⑦ 강민서(경희대)
- ⑧ 이강민(K타이거즈) ⑨ 오창현(용인대) ⑩ 정지윤(가천대) ⑪ 김민중(용인대)
- ⑫ 조정현(한국체대) ⑬ 유준상(용인대) ⑭ 정승환(가천대) ⑮ 박민우(경희대)
- ⑯ 이남경(가천대)

여자 1조 본선

- ① 곽여원(강화군청) ② 윤지혜(한국체대) ③ 박소정(한국체대중평태권도장)
- ④ 김유진(가천대) ⑤ 이소영(경희대) ⑥ 윤보미(가천대) ⑦ 정승연(용인대)
- ⑧ 박해진(경희대) ⑨ 박민주(용인대) ⑩ 김서희(용인대)

여자 2조 본선

- ① 김지수(경희대) ② 장한별(흑룡태권도장) ③ 최동아(경희대) ④ 박재은(가천대)
- ⑤ 홍석희(용인대) ⑥ 구은총(용인대) ⑦ 엄지민(경희대) ⑧ 장인선(용인대)
- ⑨ 정화경(한국체대)

남자 결선

- ① 한영훈(가천대) ② 김선호(용인대) ③ 강완진(경희대) ④ 나태주(K타이거즈)
- ⑤ 박광호(한국체대) ⑥ 조은상(가천대) ⑦ 한상희(가천대(일반))
- ⑧ 이욱현(K타이거즈)

여자 결선

- ① 곽여원(강화군청) ② 최동아(경희대) ③ 박재은(가천대)
- ④ 장한별(흑룡태권도장) ⑤ 김지수(경희대) ⑥ 윤지혜(한국체대)
- ⑦ 박소정(한국체대중평태권도장) ⑧ 김유진(가천대)

2018 아시안 게임 선발전

겨루기 | 4월 30일 ~ 5월 1일 | 안산 상록수체육관

남자부

- ▲ -58kg = ① 김태훈(수원시청) ② 장준(홍성고) ③ 배준서(강화고)
- ▲ -63kg = ① 조강민(한국체대) ② 김태용(경희대) ③ 노민우(용인대)
- ▲ -68kg = ①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 ② 황연준(상명대) ③ 신동윤(삼성에스원)
- ▲ -80kg = ① 이화준(성남시청) ② 남광환(한국체대) ③ 김현승(한국가스공사)
- ▲ +80kg = ① 이승환(한국가스공사) ② 인교돈(한국가스공사) ③ 배윤민(한국체대)

여자부

- ▲ -49kg = ① 강보라(성주여고) ② 심재영(고양시청) ③ 김정은(한국체대)
- ▲ -53kg = ① 하민아(삼성에스원) ② 김민정(한국가스공사) ③ 임금별(한국체대)

- ▲ -57kg = ① 이아름(고양시청) ② 김아름(영천시청) ③ 김민선(한국체대)
- ▲ -67kg = ① 김진디(삼성에스원) ② 오혜리(춘천시청) ③ 서소영(서울시청)
- ▲ +67kg = ① 이다빈(한국체대) ② 명미나(경희대) ③ 김빛나(인천 동구청)

제20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정기 전국 남녀 중·고대회

5월 11일 ~ 18일 | 광주 빛고을체육관

남자 고등부

- ▲ 핀 급 = ① 민태영(안중고) ② 이정일(한성고) ③ 이성규(풍생고), 이정민(울산스포츠과학고)
- ▲ 플라이급 = ① 최서한(다사고) ② 주진열(울산스포츠과학고) ③ 성연서(안중고), 김민재(부흥고)
- ▲ 밴 텀 급 = ① 김우환(서울체고) ② 최희재(광주체고) ③ 이승훈(풍생고), 조은상(속지고)
- ▲ 페 더 급 = ① 이주형(전북체고) ② 문지용(상모고) ③ 서주형(광주체고), 김응석(아름고)
- ▲ 라이트급 = ① 안진열(강원대사대부고) ② 장지훈(대전체고) ③ 박수연(남녕고), 여영준(다사고)
- ▲ 웰 터 급 = ① 김현우(삼일고) ② 신성민(천안중앙고) ③ 조승규(한성고), 이시원(경상공업고)
- ▲ L-미들급 = ① 변명균(한성고) ② 최무수(인평자동차고) ③ 원혁(광주체고), 고승태(양주고)
- ▲ 미 들 급 = ① 박상훈(경상공업고) ② 박치우(충남체고) ③ 황선명(천안상업고), 안범섭(한성고)
- ▲ L-헤비급 = ① 김민혁(충남체고) ② 유태진(백석고) ③ 박철진(금정고), 이상준(상모고)
- ▲ 헤 비 급 = ① 원동재(송곡고) ② 김민서(설악고) ③ 이상민(남녕고), 김영호(속지고)

- ▲ 우 승 = 한성고등학교
- ▲ 준우승 = 충남체육고등학교
- ▲ 3 위 = 다사고등학교
- ▲ 감투상 = 안중고등학교
- ▲ 장려상 = 경상공업고등학교
- ▲ 최우수 선수상 = 변명균(한성고)
- ▲ 지도상 = 윤창욱(한성고)

여자 고등부

- ▲ 핀 급 = ① 한나연(대전체고) ② 김나연(공주영명고) ③ 박수빈(설악고), 추다인(울산스포츠과학고)
- ▲ 플라이급 = ① 박예운(대전체육고) ② 금가은(평내고) ③ 채민희(양주고), 고세라(강화여고)
- ▲ 밴 텀 급 = ① 박수현(영주고) ② 김희정(금정여고) ③ 신하영(대전체고), 양지혜(금오여고)
- ▲ 페 더 급 = ① 김유진(서울체고) ② 엄지은(강화여고) ③ 김혜원(대전체고), 조은지(성안고)
- ▲ 라이트급 = ① 류지수(효정고) ② 나채림(대전체고) ③ 박동영(공주영명고), 박주이(영광고)
- ▲ 웰 터 급 = ① 남민서(울산스포츠과학고) ② 홍지우(서울체고) ③ 서혜녕(성안), 박나현(대구보건고)
- ▲ L-미들급 = ① 장유진(서울체고) ② 안혜영(강원체고)

- ③ 최정원(의정부공업고), 권예진(연제고)
- ▲ 미 들 급 = ① 윤설화(강원체고) ② 김가현(연제고) ③ 김채원(홍주고), 진가연(성안고)
- ▲ L-헤비급 = ① 김윤정(충남체고) ② 김남경(효정고) ③ 박서진(금정여고), 전지영(고양고)
- ▲ 헤 비 급 = ① 김수연(강원체고) ② 정수진(전북체고) ③ 윤재은(선덕여고), 우다빈(대구보건고)

- ▲ 우 승 = 대전체육고등학교
- ▲ 준우승 = 서울체육고등학교
- ▲ 3 위 = 강원체육고등학교
- ▲ 감투상 = 효정고등학교
- ▲ 장려상 =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 ▲ 최우수 선수상 = 한나연(대전체고)
- ▲ 지도상 = 이진만(대전체고)

남자 중등부

- ▲ 핀 급 = ① 윤준혁(전북체중) ② 정우혁(본오중) ③ 유승민(성문중), 이수호(금정중)
- ▲ 플라이급 = ① 현지수(신관중) ② 권민상(흥해중) ③ 송낙연(광주일등중), 이정재(포항영신중)
- ▲ 밴 텀 급 = ① 김종명(대전체중) ② 장현중(태백중) ③ 이솔(여수구봉중), 이정재(풍생중)
- ▲ 페 더 급 = ① 유희서(전북체중) ② 남용혁(오정중) ③ 김정배(백석중), 안건우(천안성정중)
- ▲ 라이트급 = ① 문성인(원일중) ② 오민수(풍생중) ③ 정세욱(운천중), 박대진(익산부천중)
- ▲ L-웰터급 = ① 신광철(대전체중) ② 조용석(흥해중) ③ 임경섭(갈월중), 김경준(서원중)
- ▲ 웰 터 급 = ① 김지원(금산중) ② 김태정(전북체중) ③ 이상모(춘성중), 박범진(광양중등중)
- ▲ L-미들급 = ① 조성빈(송탄중) ② 김동민(청주중) ③ 임경오(백석중), 선승위(대관령중)
- ▲ 미 들 급 = ① 서강연(성곡중) ② 김성현(오정중) ③ 박민재(송절중), 이요셉(시흥매화중)
- ▲ L-헤비급 = ① 배상열(대전체중) ② 김영훈(문성중) ③ 유호선(동성중), 강헌제(아라중)
- ▲ 헤 비 급 = ① 진건우(광양중등중) ② 현지훈(오현중) ③ 최혁준(부천부흥중), 윤건우(중화중)

- ▲ 우 승 = 대전체육중학교
- ▲ 준우승 = 전북체육중학교
- ▲ 3 위 = 광양중등중학교
- ▲ 감투상 = 신관중학교
- ▲ 장려상 = 원일중학교
- ▲ 최우수 선수상 = 신광철(대전체중)
- ▲ 지도상 = 박순용(대전체중)

여자 중등부

- ▲ 핀 급 = ① 진서연(광남중) ② 홍지민(권선중) ③ 전희(부천동여중), 윤보영(광남중)
- ▲ 플라이급 = ① 이은지(상무중) ② 최준희(권선중) ③ 정혜민(중화중), 안소정(광남중)

- ▶ 밴 팀 급 = ① 송윤서(대전체중) ② 구해원(부천동여중) ③ 김예지(봉의중), 구본이(금정중)
- ▶ 페 더 급 = ① 송가희(봉의중) ② 민정민(흥해중) ③ 양소현(정각중), 이혜성(운천중)
- ▶ 라이트급 = ① 김소연(오정중) ② 박봄이(부천동여중) ③ 오연지(상안중), 김민주(흥해중)
- ▶ L-웰터급 = ① 명찬비(경기고창중) ② 최예은(마산의신여중) ③ 곽다희(정각중), 유채민(발산중)
- ▶ 웰 터 급 = ① 김민경(천곡중) ② 배소영(신관중) ③ 이하리(발산중), 유하경(부천부흥중)
- ▶ L-미들급 = ① 이도현(봉의중) ② 김나현(성서중) ③ 김아현(합태중), 박서연(한림여중)
- ▶ 미 들 급 = ① 이나연(흥해중) ② 박가현(흥해중) ③ 정가현(성서중), 김미정(부천부흥중)
- ▶ L-헤비급 = ① 이주원(신관중) ② 노유빈(동화중) ③ 박세희(성곡중), 박지연(순천남산중)
- ▶ 헤 비 급 = ① 윤다현(서귀중앙여중) ② 김윤영(신관중) ③ 최한나(서원중), 박주현(성안중)
- ▶ 우 승 = 봉의중학교
- ▶ 준우승 = 신관중학교
- ▶ 3 위 = 흥해중학교
- ▶ 감투상 = 광남중학교
- ▶ 장려상 = 부천동여자중학교
- ▶ 최우수 선수상 = 이도현(봉의중)
- ▶ 지도상 = 윤성하(봉의중)

2018년도 중별 선수권대회

품새 | 4월 11일 ~ 13일 | 예산 윤봉길체육관

남자 개인전

- ▶ 초등 중학년부 = ① 황규민(옥천장야초) ② 오종민(흥도초) ③ 권민성(매탄초), 이규민(삼양초)
- ▶ 초등 고학년부 = ① 강민재(의왕덕성초) ② 이현명(대구용호초) ③ 김태우(옥길산들초), 홍의주(영왕부곡초)
- ▶ 중등 1학년부 = ① 김진환(호매실중) ② 최세현(양정중) ③ 김민혁(한성중), 문현민(성덕중)
- ▶ 중등 2학년부 = ① 이승민(신천중) ② 김창민(대경중) ③ 김도윤(천안월봉중), 이수명(무원중)
- ▶ 중등 3학년부 = ① 강현빈(내정중) ② 안치찬(천안백석중) ③ 이호영(대경중), 정민혁(가람중)
- ▶ 고등 1학년부 = ① 이준석(상암고) ② 양소현(천안중앙고) ③ 엄지섭(신천고), 현태용(진관고)
- ▶ 고등 2학년부 = ① 강지훈(백양고) ② 강동엽(부산중앙고) ③ 김도권(창원고), 최민석(초월고)
- ▶ 고등 3학년부 = ① 하상현(대구달서공업고) ② 김재현(서울아이티고) ③ 권민석(현일고), 김도형(천안쌍용고)
- ▶ 대학 1부 = ① 김민중(용인대) ② 허세준(전주대) ③ 권준호(용인대), 신장호(단국대)
- ▶ 대학 2부 = ① 장형모(우석대) ② 김형준(계명대)

- ③ 김상욱(동의대), 김진영(우석대)
- ▶ 금강 1부 = ① 조우석(다온태권도) ② 박민우(아리랑멋태권도) ③ 김영석(21C한국태권도), 백강원(청무체육관)
- ▶ 태백 1부 = ① 석영준(남구미태권도) ② 임태윤(큰마루태권도) ③ 김성용(고수회), 이준호(고수회)
- ▶ 지태 1부 = ① 백형현(한가림태권도) ② 이동근(고수회) ③ 박태룡(천권태권도), 최성영(월드클래스태권도)

여자 개인전

- ▶ 초등 고학년부 = ① 문지수(서울신가초) ② 이은서(서울동교초) ③ 신정아(흥도초), 이다연(신길초)
- ▶ 중등 1학년부 = ① 권태정(오산원일중) ② 강윤주(운암중) ③ 김도은(오주중), 오혜빈(용곡중)
- ▶ 중등 2학년부 = ① 전가연(성산중) ② 유선화(대성여중) ③ 박송주(신백현중), 최영은(능동중)
- ▶ 중등 3학년부 = ① 김예진(부안중) ② 고나은(마산제일여중) ③ 조효은(광평중), 지민경(부안중)
- ▶ 고등 1학년부 = ① 박지원(정명고) ② 김혜인(울산동천고) ③ 강지은(마장고), 김서영(서울아이티고)
- ▶ 고등 2학년부 = ① 정혜윤(창의고) ② 최윤서(서울아이티고) ③ 이예지(산본고), 임다은(서울아이티고)
- ▶ 고등 3학년부 = ① 정선아(관악고) ② 이슬(일산국제컨벤션고) ③ 김예슬(무원고), 윤서연(백양고)
- ▶ 대학 1부 = ① 김영주(용인대) ② 김수희(단국대) ③ 김지수(단국대), 허혜진(우석대)
- ▶ 금강 1부 = ① 구예린(청지회) ② 이지영(성포경희체육관) ③ 김진희(태아일체태권도), 유하연(한가림태권도)

남자 단체전

- ▶ 초등 고학년부 = ① 김정우·박보성·정현우(하늬바람태권도장A) ② 홍의주·강민재·정인태(부곡경희대석사태권도A)
- ▶ 고등부 = ① 한주승·이정원·구본건(하늬바람태권도장A) ② 김정현·강영준·정현규(청시의지태권도장A) ③ 박동심·장은수·김철준(국가대표태성태권도장A), 박상혁·심종현·강남준(선진체육관A)
- ▶ 대학부 = ① 권준호·김민중·도지윤(용인대B) ② 김도형·전성민·조재우(동아대A) ③ 신용원·문재원·신장호(단국대A), 여지훈·박수혁·연제웅(계명대A)

복식전

- ▶ 중등부 = ① 최세현·유선화(경희대윤성태권도A) ② 김민승·이다윤(덕신명성체육관A) ③ 신승호·박서진(국가태권도장A), 전영환·임윤영(코리아태권도체육관A)
- ▶ 고등부 = ① 이건규·신지호(청시의지태권도장A) ② 박우진·전아현(서울아이티고A) ③ 김도현·이아영(오산마루한태권도장A), 지명경·이연수(일진태권도장A)
- ▶ 대학부 = ① 임형은·김영주(용인대A) ② 박관득·은슬비(우석대A) ③ 강지용·신수빈(단국대A), 변민규·김수희(단국대B)



| 초급 |

8		4		2			5	
	2		5	9				4
		1			7	3	9	
3					8		6	1
5				3	1			8
2	1				5			3
	6	7	3			8		
4				6	9		1	
	8			1		6		5

| 중급 |

		7	6	9				1
6			4					3
		8	5					2
		5				2		
				5			1	
4					5	9		
1					9			5
3				4	7	1		

| 초급 |

9	1	7	8	2	4	3	5	6
4	8	6	3	9	5	2	7	1
3	5	2	6	7	1	8	9	4
7	6	3	1	5	9	4	8	2
5	9	4	2	3	8	1	6	7
8	2	1	4	6	7	5	3	9
1	3	5	7	4	6	9	2	8
2	7	8	9	1	3	6	4	5
6	4	9	5	8	2	7	1	3

| 중급 |

5	1	8	9	3	7	2	4	6
7	9	2	8	4	6	5	1	3
4	3	6	5	1	2	8	7	9
3	8	5	2	7	9	1	6	4
2	4	9	1	6	5	3	8	7
6	7	1	4	8	3	9	2	5
9	2	4	6	5	1	7	3	8
8	5	3	7	2	4	6	9	1
1	6	7	3	9	8	4	5	2

스도쿠 푸는 법

- ① 가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② 세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③ 작은 상자(3x3)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스토쿠(SUDOKU) 퍼즐 정답을 옆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맞는 도복을 위해 입을 분의 키를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아래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② 전화 확인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 ③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편집팀 앞.

167호 정답 및 정답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 2동 대신로 164 205동 502호 서혜린(170cm)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2길 5 207동 202호 최한울(168cm)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110 406동 602호 오숙자(173cm)



2018 06

SUNDAY	MONDAY	TUESDAY
3	4	5
10	11	12
17	18	19
24 백석대학교 6월 23일(토) ~ 24일(일)	25	26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미정 6월 23일(토) ~ 28일(목)		
제30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강원 흥천 6월 23일(토) ~ 29일(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이탈리아 로마 6월 1일(금) ~ 3일(일)	
6	7	8	9
13	14	15	16
20	21	22	23 제3차 KTA 미래 인재 양성 교육
27	28	29	30

2018 07

1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학 태권도대회(폼새·겨루기) 겸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	2	3
8 제4회 태권도원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무주 태권도원 7월 6일(금) ~ 10일(화)	9	10
15 제16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우석대학교 7월 13일(금) ~ 20일(금)	16	17
22	23	24
29 제17회 여성가족부 장관기 전국 여성태권도대회 겸 제16회 한국여성연맹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30	31

4 충북 충주 6월 29일(금) ~ 7월 6일(금)	5	6	7
11	12	13 제12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무주 태권도원 7월 12일(목) ~ 17일(화)	14
18	19	20	21
2018 제주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제주 한라체육관 7월 18일(수) ~ 24일(화)			
25	26	27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2 러시아 모스크바 7월 27일(금) ~ 29일(일)	28
1	2	3	4
충북 충주 7월 27일(금) ~ 8월 2일(목)			

일상속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강보라(국가대표·성주여고)



곽여원(국가대표·강화군청)